

2010년 제20권 제4호 · 겨울

#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0-02-04  
정간위 심의필 95-13-4-21

새국어생활 Saegugosaenghwal

제20권 제4호(2010, 겨울) Vol. 179

인쇄일·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펴낸이 권재일

편집위원 박진호·시정곤·여규병·유현경·이해영·정희원

기획·편집 위 진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157-857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4, Geumnam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찍은 곳 대우문화인쇄

전화 (02) 2274-5493

전송 (02) 2266-5493

ISSN 1225-7168

## 차례

### 특집1 • 새국어생활 20년의 성과와 반성 • 5

|                                    |     |     |
|------------------------------------|-----|-----|
| 새국어생활 걸어온 길, 걸어갈 길 .....           | 한재영 | 5   |
| 국어 정책 관련 논의에서 이론 것과 이루어야 할 것 ..... | 최경봉 | 19  |
|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본                       |     |     |
| (한)국어 교육 논의의 성과와 과제 .....          | 서 혁 | 31  |
| 어휘·사전 분야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         | 남길임 | 51  |
| 새국어생활과 어문 규범 논의 .....              | 이선웅 | 63  |
| 새국어생활 20년 방언 연구의 성과와 반성 .....      | 김덕호 | 81  |
|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     |     |
| 국어학사의 현재와 미래 .....                 | 이상혁 | 99  |
| 국어 정보화와 새국어생활 .....                | 이건식 | 111 |
| 국어 순화 논의의 성과와 한계 .....             | 박용관 | 127 |

### 특집2 • 새국어생활에 바란다 • 149

|                                  |     |     |
|----------------------------------|-----|-----|
| 국어 생활을 위한 새국어생활 .....            | 홍윤표 | 147 |
| 이론적 연구의 융용화에 노력해야 .....          | 고영근 | 151 |
| 새국어생활의 20주년을 축하하며 .....          | 박준언 | 153 |
| 우리말 속의 일본말, 모두 청산할 수 있을까? .....  | 이한섭 | 155 |
|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       | 박현우 | 158 |
| 국어 생활의 든든한 길라잡이 .....            | 이경우 | 160 |
| 정보가 많아서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에             |     |     |
| 진실을 보는 지혜를 주는 책으로 거듭나길 .....     | 안용순 | 162 |
| 새국어생활 커뮤니티를 만들자 .....            | 엄진섭 | 165 |
| 편집 디자인이 중요하다 .....               | 김철호 | 167 |
| 두 가지 접근성에 대하여 .....              | 곽숙영 | 169 |
|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 주는 새국어생활이 되어야 ..... | 김수경 | 171 |

|                                   |     |     |
|-----------------------------------|-----|-----|
| 이곳 이 사람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     | 장승옥 | 173 |
| 그분을 그리며 방종현 선생님의 강의를 읽힌 이야기 ..... | 이기문 | 185 |
| 풍경 속 우리말 '괴기(怪奇)'와 공포의 취미화 .....  | 김지영 | 193 |
| 우리 시의 향기 '모파'에 담긴 사랑과 윤리 .....    | 유 준 | 203 |
| 국어 산책 외국인 성(姓)의 뿌리를 찾아서 .....     | 황성규 | 211 |
| 세계의 언어 정책 칠레의 언어 정책 .....         | 민원정 | 219 |



---

## 새국어생활 걸어온 길, 걸어갈 길 - ‘특집’을 중심으로 -

한재영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I. 들어가며

국립국어원이 임의 연구 기관인 국어연구소의 이름으로 문을 연 이후 스물여섯 해,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른 국립 기관으로 스무 해, 시간은 무척 빠르게도 지난 셈이다. 그 시간 동안 단지 시간만이 흘러간 것은 아니어서 국립국어원은 주어진 제 몫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정하고 다듬는 작업이 국립국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최고의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의 간행도 국립국어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언어 예절을 살피고, 국어의 순화를 도모하는 일도 그간 이루어낸 주요 사업이었으며, 국어학계의 연구 업적과 국어 관련 현황을 정리한 국어학 연감과 국어연감의 간행도 학계는 물론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계 획21을 통한 국어의 정보화와 한국어의 보급을 통한 세계화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도 국립국어원의 주요 업무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는 그를 위한 사업 내용의 일부인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다른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기관지인 《국어생활》의 간행을 들 수 있다. 1984년 10월 《국어생활》의 이름으로 창간되어 1991년 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직제가 확정된 이후 《새국어생활》로 명칭을 바꾸어 이어오고 있는 《국어생활》(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어생활》이라 이르기로 한다.)의 간행은 일견 국립국어원 본연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를 가지는 부차적인 업무인 듯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84년 10월의 창간사에 따르면, ‘언어는 방임하여 두면 혼탁해 가기 쉬워 국가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국어생활》이 발간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국어생활》에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과 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는 혼탁한 말을 다듬어 소개하기도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어에 관한 간략한 학문적 지식도 알리고 문학 작품, 속담, 수수께끼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두가 국어를 통한 우리 생활의 한 모습이며, 또 이런 일이 국어 생활을 바르게 이끄는 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당시 국어연구소의 연구와 어문 정책의 수행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생활》에 ‘특집’을 마련한 것은 그러한 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어생활》의 특집 내용과 구성 방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이 국어연구소에서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그리고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달리함에 따라 《국어생활》도 그 성격을 바꾸어 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국어생활》의 창간 이래로 다루어온 특집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과 《국어생활》의 지난 시간을 정리하여 보고, 나아갈 바를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살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특집’의 주제와 내용을 통하여 그간 국립국어원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여 온 국립국어원의 활동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II. 걸어온 길

국립국어원이 국립 기관으로 직제를 갖추게 되는 1990년 겨울까지 《국어생활》은 총 23호를 간행하였고, 이후 국립 기관으로 모습을 바꾼 1991년 봄 이래 계간으로 총 79호가 간행되었다. 때호마다 ‘특집’이 구성되었고, 모두 102호가 간행되었으니 특집의 목록도 102가지나 되는 셈이다. 《국어생활》에서 다룬 ‘특집’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가져왔던 관심의 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특집의 주제를 가나다순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1)과 같다.

- (1) ① 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 향상
- ② 국어 순화
- ③ 국어 정보화
- ④ 국어학사·문화 인물
- ⑤ 남북 언어
- ⑥ 대우법
- ⑦ 매체와 언어
- ⑧ 문법
- ⑨ 문자
- ⑩ 표기
- ⑪ 문체
- ⑫ 방언
- ⑬ 법과 제도

- ㉔ 사전
- ㉕ 어문 규범
- ㉖ 어휘(한자어, 외래어 포함)
- ㉗ 언어 예절
- ㉘ 언어 정책
- ㉙ 언어와 인접 학문(학제적 연구)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국어 생활과 관련된 또는 관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망라되어, 별다른 문제가 있을 듯 보이지 않는다. 당면한 현안이 ‘특집’의 주제가 되고, 그때그때의 관심사를 ‘특집’의 주제로 삼았다지만 비교적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하여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일을 진행하며 미진하였던 점을 돌아보고, 아쉬웠던 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특집으로 다루어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그간의 《국어생활》을 되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그를 위하여 우리는 《국어생활》에서 다루어 온 ‘특집’의 내용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시적인 측면이 ‘특집’의 주제 선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미시적인 측면은 주제를 다룬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가리킨다.

## 1. 거시적인 측면

《국어생활》에서 ‘특집’으로 다루어 온 내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국어생활》을 간행 시기별로 갈라볼 필요가 있다. 간행 시기에 따라 《국어생활》의 편찬 의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 ‘특집’의 구성 방침도 달라져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생활》의 간행 시기는 다음 (2)에서와 같이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① 제1기: 국어연구소 시기(1984. 10.~1991. 1.)
- ② 제2기: 국립국어연구원 시기(1991. 1.~2004. 11.)
- ③ 제3기: 국립국어원 시기(2004. 11.~현재)

이와 같은 간행 시기의 차이에 따른 ‘특집’ 구성의 첫 변화는 가시적이다. 우선 《국어생활》이라는 기관지의 명칭을 《새국어생활》로 바꾸고 발간 호수도 새로이 시작한 것이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관지의 성격도 바뀐 것이다. 《새국어생활》로의 변화에 대하여 간행사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3) ‘새국어생활’은 국어연구소에서 발행하여 온 ‘국어생활’을 새로이 계승한다는 뜻으로만 제호를 고친 것이 아니다.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정보와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제공하여 온 국민의 국어생활이 새 모습을 갖도록 한다는 잡지 간행의 뜻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국어생활’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새 국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뜻으로 ‘새국어생활’이 간행된다.(밑줄은 필자)

앞서 간행되어 온 《국어생활》이 국민 교양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데에 비하여, 어문 정책의 홍보와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전문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2004년 겨울호인 14권 4호부터 시작되는 제3기의 《국어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별도의 간행사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어찌 보면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생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이러한 시기 구분이 가지는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정보와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발행 방침이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바뀐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4)는 제3기 《국어생활》에서 다룬 주제 목록이다.

(4) 제14권 4호(2004년 겨울): 언어와 사회

제15권 1호(2005년 봄): 국어 순화

제15권 2호(2005년 여름):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생활

제15권 3호(2005년 가을):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권 4호(2005년 겨울):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제16권 1호(2006년 봄): 소외 계층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제16권 2호(2006년 여름):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제16권 3호(2006년 가을):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제16권 4호(2006년 겨울): 신어

제17권 1호(2007년 봄): 전문용어와 국어생활

제17권 2호(2007년 여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제17권 3호(2007년 가을):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

제17권 4호(2007년 겨울): 사라져 가는 언어들

제18권 1호(2008년 봄):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제18권 2호(2008년 여름): 영어 공교육 강화와 한국어

제18권 3호(2008년 가을):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제18권 4호(2008년 겨울): 외래어 표기 반성

제19권 1호(2009년 봄): 세종계획의 성과와 전망

제19권 2호(2009년 여름): 국민의 문해력

제19권 3호(2009년 가을): 국어능력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

- 제19권 4호(2009년 겨울):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  
 제20권 1호(2010년 봄):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  
 제20권 2호(2010년 여름):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20권 3호(2010년 가을):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

주로 언어 정책이라든가 국어 보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특집의 주제로 선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관의 명칭에서 ‘연구’를 빼어 낸 것에 대하여 ‘연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는 물론 그 밖의 국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려 하였던 것이 그릇된 것은 아니었던가 싶다. 언어 정책이라든가 국어 보급에 주된 관심을 가지도록 한 간행 방침은, 제2기 이후 정기적으로 ‘특집’의 주제가 되었던 국어학사상의 인물 탐구에 대한 시도가 제3기에 들어 전혀 시도되지 않은 까닭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특집’의 주제로 다루었던 국어학사상의 인물과 그를 다룬 호수는 다음의 (5)와 같다.

- (5) 제3권 3호(1983년 가을):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4권 3호(1994년 가을): 일석 이회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5권 3호(1995년 가을): 한결 김윤경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6권 3호(1996년 가을):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7권 3호(1997년 가을): 열운 장지영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8권 3호(1998년 가을):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9권 3호(1999년 가을):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제10권 3호(2000년 가을): 서파 유희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11권 3호(2001년 가을): 설릉 선생과 국어  
 제12권 3호(2002년 가을): 신숙주의 학문과 인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특집’의 내용을 살펴면서 ‘특집’의 주제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던가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듯하다. 우선 적용하였던 주제 선정의 1차적인 원칙은 ‘당시의 현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1기 《국어생활》에서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가 그것이었으며, 제2기 전반의 《국어생활》에서의 국어사전, 후반의 《국어생활》에서의 남북 언어라든가 국어의 보급과 세계화 등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제2기 전반의 ‘특집’ 선정 기준으로 한글날이 속한 가을호에 정기적으로 문화 인물을 다루었던 사실도 아울러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주제 선정의 원칙은 이만한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 밖의 ‘특집’ 주제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한 주제가 시기를 달리하여 ‘특집’의 주제로 선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성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도 변할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사한 주제를 다시 ‘특집’의 주제로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집필을 의뢰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주제의 성격에 따라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나, 유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서 동일한 집필자에게 다시 집필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가를 생각하여 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 유사한 주제를 다루지 않은 집필자도 있으나, 다음 (6)은 ‘특집’에 원고를 2회 이상 기고한 집필 횟수별 가나다순 필자들의 명단이다. 이름 다음의 숫자는 집필 횟수이다.

|            |       |       |
|------------|-------|-------|
| (6) 강신항 10 | 김광해 7 | 김민수 6 |
| 김세중 9      | 박갑수 7 | 남중현 6 |
| 이익섭 8      | 강인선 6 | 이상규 6 |
| 홍윤표 8      | 권재일 6 | 임홍빈 6 |



|                    |       |       |
|--------------------|-------|-------|
| 조남호 6              | 송민 3  | 서정수 2 |
| 고영근 5              | 송철의 3 | 송향근 2 |
| 권인한 5              | 안병희 3 | 안성근 2 |
| 민현식 5              | 안상순 3 | 유구상 2 |
| 심재기 5              | 양명희 3 | 유재원 2 |
| 유만근 5              | 이기문 3 | 유창균 2 |
| 이강로 5              | 이돈주 3 | 윤회원 2 |
| 이병근 5              | 장세경 3 | 이관규 2 |
| 정회원 5              | 전수태 3 | 이성영 2 |
| 홍제성 5              | 정재영 3 | 이성현 2 |
| 김계곤 4              | 조재수 3 | 이승환 2 |
| 김희진 4              | 채완 3  | 이용주 2 |
| 남기심 4              | 최명옥 3 | 이은정 2 |
| 박경래 4              | 곽충구 2 | 이용호 2 |
| 송기중 4              | 김기중 2 | 이정복 2 |
| 송기형 4              | 김문장 2 | 이주행 2 |
| 이기갑 4              | 김병선 2 | 이한섭 2 |
| 이승재 <sup>o</sup> 4 | 김석향 2 | 이현복 2 |
| 이용백 4              | 김순임 2 | 이현우 2 |
| 임동훈 4              | 김승국 2 | 이현주 2 |
| 전광현 4              | 김용직 2 | 이회자 2 |
| 정양원 4              | 김정수 2 | 임철성 2 |
| 허웅 4               | 김장섭 2 | 장경희 2 |
| 허철구 4              | 김충희 2 | 정광 2  |
| 김석득 3              | 김홍규 2 | 정길남 2 |
| 김영배 3              | 박민규 2 | 정인상 2 |
| 김완진 3              | 박병채 2 | 정재도 2 |
| 김하수 3              | 박양규 2 | 정호성 2 |
| 남광우 3              | 박영순 2 | 정희창 2 |
| 문효근 3              | 박용관 2 | 최호철 2 |
| 박창원 3              | 서상규 2 | 허성도 2 |

\*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특집'에 보이는 '사전의 방향 잡기'의 필자와는 한글 표기 성명이 동일한 동명이인이다.

'특집'의 이름으로 실린 원고 655편 가운데 위 (6)의 집필자들에 의하여 집필된 원고의 수가 350편으로 53.4%에 이른다.

## 2. 미시적인 측면

여기서는 '특집'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집'의 주제가 멋지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특집'은 성공한 '특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주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된 세부 내용들의 충위는 균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각론에서 언급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몇몇 사례를 간단히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1993년 겨울에 간행된 제3권 4호에서는 '북한의 국어 사전'을 특집의 주제로 삼아 북한 국어 사전의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를 위하여 '북한 사전의 올림말, 올림말의 관련 어휘 처리, 북한 사전의 발음, 북한 사전의 다듬은 말'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전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표제항은 물론 미시구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단지 발음만을 살피고 있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과 관련하여서는 1998년 봄의 제8권 1호에서도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접두사와 접미사, 의존명사, 조사, 어미, 명사, 동사 형용사, 표준 발음' 등의 내용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적인 처리에서 늘 문제가 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배제되어 있어 역시 충분한 논의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특집'의 주제와 아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나 다른 내용들과

성격이 다르거나 중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특집’ 구성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0년 가을에 간행된 제20권 3호에서의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논의하면서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전개 현황, 지역어 조사·보존의 방법론,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다룬 것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는 다른 내용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 표기 반성’을 다룬 2008년 겨울의 제18권 4호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일반적인 논의와 함께 다룬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외래어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유사한 경우로는 1994년 봄의 제4권 1호에서 다룬 ‘한국의 지명’과 1988년 봄의 《국어생활》 12호에서 다룬 ‘바람직한 국어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명의 경우 일반론에 이어지는 각론으로 ‘부여, 서울, 제주, 북한’ 등의 지명을 다루었으나 여타 지역이 배제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어과 교육의 현황과 그 특성, 말하기와 듣기 교육, 독서 교육의 나아갈 방향, 글짓기 교육, 바람직한 언어 교육’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내용에 ‘정독과 그 보고서 작성의 훈련’이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986년 겨울호인 《국어생활》 7호에서 다룬 ‘국어 사전과 그 편찬’에서는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사전 : 그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문제,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사전 주석에 대하여’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사전의 편찬 문제를 다루는 자리라는 점에서 사전의 분책이라든가 조판 또는 그림이나 사진의 사용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2005년 봄호인 제15권 1호에서 다룬 ‘국어 순화’에서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 의학 용어의 순화와 미래, 법령문의 순화와 그 이후, 남북 교과서

를 통해 본 전문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전문 용어, 전문 용어의 순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용어의 순화 방안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어 순화의 성과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용어의 순화 방안 못지않게 순화된 결과의 보급 방안과 성공하지 못한 원인의 파악에도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6년 봄호인 《국어생활》 4호에서 다룬 '개화기의 우리 어문에 대한 자각과 그 연구'와 1987년 봄호인 《국어생활》 8호에서 다룬 '국어 속의 한자어'의 경우에는 '특집' 자체가 추구하는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각각의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유의미한 것이었으나, 그들을 꿰어 하나의 '특집'으로 구성하여 '특집' 자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III. 결어갈 길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생활》에서 다루어온 '특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집'을 구성하면서 고려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 1. 특집의 준비

먼저 필요한 것은 '특집' 구성의 원칙이다. 이는 장기적인 기본 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특집' 구성의 1차적인 원칙이 현실적인 관심사나 현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미 다루어온 '특집'의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는 장기 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태도에서는 다소 차

이를 보이기도 하나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야 하며, 그 까닭이 표방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 기본 계획의 내용에는 ‘특집’ 주제의 목록뿐만 아니라 그를 다룰 필자의 명단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직접 ‘특집’으로 다루게 될 경우의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을지라도 보다 충실한 결과를 구하는 데에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보다 충실한 내용을 구하기 위하여 ‘특집’의 원고 집필 의뢰는 1년 내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역시 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 2. 특집으로 다룬 내용에 대한 처치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특집’이 ‘특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집’에서 다룬 결과가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립국어원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며,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나 민간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 순화나 어문 규정과 같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라면 홍보 전략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립국어원 내에서의 작업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겠으나, ‘특집’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의 후속 처리 결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라고 하겠다.

## IV.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간행된 《국어생활》에서 다룬 ‘특집’의 대강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특집’의 목록을 통하여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관심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특집’을 선정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장기 계획의 내용에는 ‘특집’의 목록과 아울러 그를 다룰 예상 집필자들의 명단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특집’ 각각의 내용을 살펴면서 우리는 ‘특집’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목소리가 선명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글들의 위상과 중위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집’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망라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아울러 ‘특집’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가 ‘특집’을 통하여 대안을 찾아나가고 국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면 ‘특집’이 ‘특집’을 넘어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특집’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좋았던 점, 잘 된 점 그리하여 장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 넉넉지 않은 지면을 통하여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아쉽고 부족한 점을 먼저 들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여유롭지 못한 시간을 통하여 행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거칠 수밖에 없었음도 인정한다. 이해를 구한다.

---

## 국어 정책 관련 논의에서 이룬 것과 이루어야 할 것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국어 정책의 민주화와 《새국어생활》의 역할

《새국어생활》 1994년 겨울호의 특집은 ‘갑오경장 100년 기념’이었다. 《새국어생활》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 특집은 이것이 유일하다. 국어의 위상을 규정하는 일, 표기법과 표준어를 확정하는 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교육하는 일 등 국어 정책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이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기에 국어 정책사에서 갑오경장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의 근현대사를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어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 전개되었고 때로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절대 군주의 칙령으로 시작된 근대 국어 정책은 지식인 집단의 연구를 통해 심화되었고 대중적 참여를 통해 확장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국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결정될 수 없고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합의를 전

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내는 일에는 반드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1990년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하며 촉발된 한글날의 위상에 대한  
논란은 2005년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에 포함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한  
글날이 국경일로 다시 지정되었으니 이와 관련한 국어 정책은 성공적으  
로 마무리되었다고 봐야 할까? 그러나 사실 한글날은 국경일일 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글날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왜 일  
어났는지 그리고 현재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잃었던 것과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이때 국어 정책 기관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  
하는 것이 국어 문화의 진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떠  
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과  
분석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국어 정책을 다루는 전문  
매체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논의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날  
의 국경일 지정과 같이 당위적으로 보이는 사안일수록 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어 정책 전문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어 정책 전  
문지는 단순히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어문화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가의 영역과 대중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국어 정책의 경  
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대중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들의 국어 사랑 정신과 국어 정책 전문가  
들의 냉철한 분석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이견들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  
으로 조정될 때 국어 정책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국어생활》이 그러한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새국어생활》은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국어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새국어생활》은 국어 정책 기관에서 발행하는 매체로서 국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책임 있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 정책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기획 특집의 내용에 잘 나타난다. 특집은 국어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 하며 그 배경을 설명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쟁의 장을 제공 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국어 정책 관련 주제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어 정책 사안을 다루어왔다. 이는 국어 정책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새국어생활》이 걸어온 길 돌아보기

국어 정책과 관련한 《새국어생활》의 특집은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국어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특집의 의의와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새국어생활》 특집 중 국어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를 유형화하면 ‘국어의 표준화와 언어의 평등’, ‘법과 제도의 정비’, ‘국어의 미래에 대한 설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1. 국어의 표준화와 언어의 평등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고시될 때만 하더라도 국어 정책 기관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집 ‘표준어 정책,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2004년 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특집을 통해 ‘표준어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규범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것은 표준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 특집에는 그동안 모호하면서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표준어 설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특집의 문제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논의는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김세중)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기존의 표준어 정책과 대립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언중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나가고 어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어 나간다. 몇몇 심의 위원이 사정한 결과에 따라 언중이 언어 생활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대신 대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는 이 논의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당시 국어 정책 기관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어 정책의 성격을 전환하고 국어 정책의 관심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표준어 문제로부터 시작한 문제제기는 소수언어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장되면서 언어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 것이다.

《새국어생활》의 특집은 이러한 논의의 심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2006년 봄), ‘사라져가는 언어들’(2007년 겨울),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2008년 봄),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2010년 여름),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2010년 가을) 등의 특집은 기존 국어 정책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소수자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논의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첫째는 ‘소수 언어를 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수자들의 언어생활을 불편 없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집 ‘사라져 가는 언어들’(2007년 겨울)은 언어 문화의 다양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소수 언어 보존의 당위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소수 언어의 보존이 왜 중요한지를 소수 언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과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기획의 국어 정책적 의미는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이상규)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즉 ‘소수 언어의 위기가 언어 식민지화에서 비롯되었고 변두리 언어, 즉 방언의 소멸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지역어의 조사와 보존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역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2003년 겨울호의 특집인 “방언과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즉 ‘방언과 문화’가 방언 연구의 방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2010년 가을)은 지역어의 보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의의는 지역어를 살리는 문제에서부터 우리말의 통합 문제까지 걸쳐 있다. 특히 외국의 지역어 보존 사례를 다룬 데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때 외국의 사례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가 거론되었는데, 프랑스의 사례를 다룬 것은 지역어 보존 문제를 소수 언어의 보존 문제 차원에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지역어 보존 문제는 현재 프랑스어와 언어권이 다른 언어를 보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의 언어생활을 불편 없게 한다는 차원의 논의는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2006년 봄),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2008년 봄),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2010년 여름) 등의 특집에서 진행되었다. 이 특집을 통해 소외 계층 언어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은 의미가 있다. 소외 계층 언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2006년 봄 특집)한 후 이와 관련한 문제 중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특집이 뒤를 이었다. 이는 앞으로 국어 정책이 소수자의 언어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주민들의 언어 문제(2008년 봄)와 장애인 언어 복지 문제(2010 여름)

등이 논의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주민들의 언어 문제를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새터민들의 언어 문제를 다루는 특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어 보존 문제를 다룰 때는 소수자 언어의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다문화 사회의 언어 문제를 다룰 때는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 언어의 보호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한국어로의 동화 정책이 현재 다문화 언어 정책의 기본 방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2. 법과 제도의 정비

1894년 조선 정부의 칙령 제1호 공문식(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되, 한문을 덧붙여 번역하거나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은 최초의 국어 관련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지만 당분간 한자를 병용한다’는 한글 전용 법률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국어 관련법은 이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특집 ‘국어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2003년 여름)는 국어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여름 특집은 국어기본법을 확정하기 전 국어기본법의 의의와 방향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국어기본법의 문제의식을 일반 국민과 공유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정된 국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어기본법이 공포된 해에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2005년 가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한 특집이 이어졌는데,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 시험 제도’(2006년 여름), ‘국어

능력 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2009년 가을) 등의 특집이 있었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내용과 의의를 다룬 것은 향후 국어 정책의 주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07년 여름)을 통해 볼 때, 3대 중점 추진 과제인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 등은 2007년 이후 국어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특집이 2008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문해력’(2009년 여름), ‘국어 능력 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2009년 가을),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2010년 봄), ‘국의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2008년 가을),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2009년 겨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 중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은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안이었는데,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 시험 제도’(2006년 여름)와 ‘국의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2008년 가을)은 국민적 관심사에 호응하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 시험 제도’의 경우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고 현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논쟁적 문제 제기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국어기본법에 의한 변화 중 한국어교육 부분을 특화해 다루었다면 그 논의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 예로 이 제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대부분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을 전공한 인력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을 것이다. 전문가 여론 조사 등의 방식

으로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와 관련한 쟁점을 뽑아내는 기획력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 2.3. 국어의 미래에 대한 설계

국어의 미래를 설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남북 언어의 통일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과 북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 남북 언어의 통일은 국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국어의 미래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영어와 국어의 관계 문제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영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국어 정책의 관심 사항이 될 수 있다. 영어 공용화 주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남북 언어 통일과 관련한 특징과 영어 관련 특징은 한국의 국어 정책이 처한 특수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언어 통일과 관련한 특징은 1988, 1993, 2001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국어생활》의 특집 ‘북한의 말과 글’(1988년 겨울)이 북한의 언어 실태를 정확히 알지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면, ‘북한의 국어사전’(1993년 겨울)은 북한 국어사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에 참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북한의 언어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언어 통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1990년대는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성화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안들을 집대성한 특집이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2001년 봄)이다. 총론 격인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곽충구)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에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남북한 언어 통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각론의 통합 방안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2001년 이후 특집에서 남북 언어 문제는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2006년 봄)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세터민 문제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이 남북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와 국어의 관계 문제가 국어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1990년대 말 영어 공용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영어 공용어화’(2001년 겨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영어 공용화 논의를 반대론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집 방향은 영어 공용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영어 공용어화의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영어 공용화가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논의 방향이 영어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한국어’(2008년 여름)는 영어 교육의 강화와 국어 교육의 강화 문제를 연결 지어 살펴보고 있다. 이 특집의 취지는 ‘영어 교육의 강화와 함께 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획기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 능력 인증제 실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창덕)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국어 능력의 강화 문제를 영어 교육의 강화 문제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 교육 강화 문제가 국어 정책 전문지인 《새국어생활》의 특집 주제가 된 것은 영어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특집도 이러한 비정상성을 극복하지는 취지로 꾸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교육 문제를 국어 정책의 논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영어 교

육 강화가 국어 교육 및 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영어 공교육 강화 조치가 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 제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적인 외국어 교육과 항구적인 국어 교육을 길항 관계로 보는 것은 국어 교육과 국어 정책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제언

갑오경장 100년 기념 특집을 거론하며 이 글을 시작하였는데, 마무리도 갑오경장 100년 기념 특집을 거론하며 시작하고자 한다. 갑오경장 100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특집은 갑오경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국어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어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갑오경장과 어문 정책’과 ‘갑오경장 전후의 국문 한문 사용 논쟁’ 뿐이고, 나머지는 개화기의 음운, 어휘, 문법, 문체의 양상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특집의 기획 의도가 갑오경장의 국어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지 않았거나 특집의 내용이 기획 의도를 살리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가 전자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특집은 《새국어생활》의 존재 이유와 동떨어져 기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후자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특집은 편집진과 필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94년 특집에서 보인 문제가 최근의 특집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1세기 세종 계획의 성과와 전망’(2009년 봄)은 세종 계획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 성과가 자신들의 국어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는 전문가가 전문가를 의식하며 세종 계획을 설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국어생활》이 국어



정책 기관과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꾸려나가는 국어 정책 대체를 지향한다면,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의 여론을 분석하는 등의 시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기획 주제 아래 여러 필자가 관련되는 하위 주제에 대한 글을 쓴다는 점 때문에 일부 중복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슷한 설명이 여러 필자의 글에서 반복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 시험 제도’(2006년 여름)에서 ‘교사 자격 인증 제도’는 각각의 글이 완결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이 글마다 중복됨으로써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특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이다. 편집자와 필자 간에 혹은 필자와 필자 사이에 대주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편집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새국어생활》의 형식과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특집에서조차 편집진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독자들에게 특집 기획의 배경과 의도를 밝히거나 특집 논문 간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편집진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특히 특집에 대해 소개하는 편집진의 글은 독자들이 특집의 내용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金敏洙(1973), 《國語政策論》, 고려대 출판부.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20-2, 117-131.



---

##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어 교육 논의의 성과와 과제

서 혁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 1. 들머리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이 있듯이, 한국인은 한국어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함께 생활하고 살아간다. 그러기에 한국어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의 근본 바탕이요 또한 희망이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우리의 근본과 바탕을 후세에 물려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써 나가는 희망이 싹 트게 된다.

1991년에 창간된 《새국어생활》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4년에 창간된 《국어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30년의 세월이다. 이 기간 동안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통해 국어 교육과 관련된 특집만 살펴보더라도 문법 교육, 국어 능력 시험, 한국인의 문해력(文解力), 표준 화법, 높임법, 호칭어, 국외 한국어 교육 등 굵직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통해 국어 교육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생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실질적인 국어

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국어 교육, 국어 능력, 국어 시험, 국어 생활 등과 관련된 특집 내용들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새국어생활》에서 더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새국어생활》의 국어 교육 논의의 성과

### 2.1.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 방향 논의

《새국어생활》과 《국어생활》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 관련 특집이다. 그 중에서도 바람직한 국어 교육(1988),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2004), 학교 문법 교육(1984, 2000), 한국인의 글쓰기(1999), 표준 화법(2003),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2005) 등이 눈에 띈다. 그 밖에도 국어 생활 예절(1987), 호칭어(1989), 경어법(1991), 한자 문화권의 한자 교육(1999) 등 많은 주제들이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 2.1.1.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방향

《국어생활》 12호(1988)에서는 <바람직한 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1987년 말에 새로 개정된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과 기본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련 전문가들이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배경과 핵심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어과 교육의 특성으로 언어 사용 기능을 발달시키는 교과임

을 분명히 하면서, 국어과는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라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다(정준섭, 1988). 또한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말하기 듣기 교육 과정과 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 과정과 교육 현실과의 괴리 현상을 지적하고, 말하기 듣기 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사항은 말하기와 듣기 및 그 교육에 관한 정밀한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윤희원, 1988). 이는 여전히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독서 교육의 현주소를 위기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문식성(문해력)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97%에 이르는 문맹 퇴치율에 안주할 때가 아니며, 학습자들이 평생 독자로서 높은 수준의 문식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노명완, 1988)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보다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작문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전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길러 주어야 한다’(박영목, 1988)는 지적 역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문법 영역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언어 교육의 모색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어휘 조사와 문법의 각 분야별 공동 연구가 선행된 뒤에 학교별, 분야별 규범 문법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박영순, 1988)는 제언 역시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국가 기관에서도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국어생활》 14권 3호(2004)에서는 전술한 1988년의 논의에 이어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초·중등학교에서의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초등학교 말하기·듣기 교육과 관련한 논의(심영택, 2004)에서는 문해력(문식성,

literacy)과 대비가 되는 구어 사용 능력의 개념으로 ‘구통력(口通力, oracy)’을 제시하면서, 할러데이의 맥락 이론, 오스틴의 화행 이론, 바흐만의 사회적 대화 이론과 이해 이론을 중심으로 말하기·듣기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통력이 모든 교과 학습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과, 수업 맥락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등 읽기 교육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독해 지도와 독서 지도가 서로 선순환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성영, 2004). 즉,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독해) 능력은 최상위로 나타나지만, 읽기(독서)에 대한 선호도는 최하위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독해 지도와 독서 지도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관계를 위하여 독해 교육 쪽에서 점차 독서 지도를 향해 다가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읽기 교육에서도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지적이다.

<초등학교 쓰기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박태호, 2004)과 관련하여서는 ‘쓰기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 전략’에 초점을 둔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습자 중심 교육과 과정 중심 교육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장르별 특성을 도외시한 활동 중심의 쓰기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쓰기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이관규, 2004)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수자나 학습자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등학교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유수열, 2004)에서는 문학 교육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된 유산으로서의 문화’와 ‘기호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학이라는 한 영역의 명칭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른 언어 활동의 자료와 내용을 제공하는 과감한 투신을 통하여,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교육 과정 논의에서도 참조할만한 중요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 2.1.2. 문법 교육

《새국어생활》 10권 2호(2000)에서는 학교 문법의 개념과 과거의 역사, 현재의 상황, 미래의 전망을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과 유사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강제력이 강하지는 않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임흥빈, 2000). 또한 개화기부터 현대까지의 문법 교육의 역사를 남한, 북한, 재외 교민으로 나누고, 통일 시대,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의 21세기 학교 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도 눈에 띈다(고영근, 2000).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국어 사용 기능 영역들과 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선택과 운용에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이관규, 2000)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문법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유효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통사론 중심의 문법 교육 대신에 국어를 알고 가꾸는 국어 지식 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 차원에서 지식 전달 중심의 문법 교육이 아니라 ‘탐구 학습법’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발견하고 이해해 나가는 사고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김광해, 2000)은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눈

에 된다. 즉 내국인용 학교 문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교육도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견해(민현식, 2000)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표준 문법의 체계화 필요성과 함께 규범성, 범용성,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권재일, 2000)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전통적인 통사론, 형태론을 포함하는 순수한 ‘문법’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화하되, 학교 문법의 체계, 기술 방법, 술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전술한 논의들은 학교 문법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어 교육 문법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학교 문법의 위상이나 구체적인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 2.1.3. 표준 화법과 화법 교육

《새국어생활》 13권 1호(2003)에서는 표준 화법의 문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간에 따른 언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일반 대중들의 언어생활은 혼란스럽고 규범어 규정과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나, ‘분명한 오용은 관용과 구별해야 한다.’는 언급은 여전히 유념할 내용이다(강신항, 2003). 또한 1992년 확정된 표준 화법에서 호칭, 지칭어는 주로 3촌 이내의 관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준 화법을 보완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대중이 널리 쓰는 용법들에 대해 재검토와 수용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김세중, 2003)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 화법’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요구와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거



나, ‘자기’라는 부부간의 호칭어·지칭어의 배제 문제, 권위주의의 상징인 입존법을 종전과 같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전영우, 2003)도 눈에 띈다.

표준 화법 준수의 네 가지 조건으로 ‘상황 반영, 진실성, 쉽고 자연스러움, 실효성’을 제시한 점이나, 모든 교사는 모범적인 화법 교사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서 언론인의 표준 화법 구사 능력의 중요성, ‘방송·신문 언어 검증 제도’ 도입, 국민 계몽을 위한 화법 프로그램과 지면 확보, 교육 과정에 표준 화법 포함, 표준 화법 교본의 필요성을 강조(김희진, 2003)하고 있는 것도 의의가 크다. 이후 실제로 ‘표준 화법 해설서’가 출간된 바 있다. 아울러 대화방, 인터넷 게시판, 전자편지 언어 등을 중심으로 통신 화법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화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이정복, 2003).

이상으로 표준 화법 특징은 표준 화법의 필요성과 보완해야 할 점, 언어 예절 태도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고, 표준 화법의 범위를 인터넷 통신 공간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규범으로서의 표준 화법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며, 실제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화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언어 사용 장면에서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표준 화법 개정판’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2.1.4. 쓰기 교육

《새국어생활》 9권 4호(1999)에서는 <한국인의 글쓰기>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인의 글쓰기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비문과 오문으로 뒤범벅된

우리의 글쓰기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 장애 현상, 말하자면 일종의 실어증’이라는 지적(이익섭, 1999)은 깊이 되새겨볼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글쓰기 능력을 문화 국민의 척도로서 국가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글 분석(이현우, 1999)에서는 어휘, 나열과 접속 등의 측면에서 오류를 분석하고, 개인의 글쓰기 능력과 함께 교과서에 게재될 글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원진숙, 1999)에서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부적절한 어휘 사용, 외래어의 남용과 현학적인 문투, 주술 호응 문제, 필수 성분의 생략, 단락 의식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작문 교육의 방향을 ‘비관적 언어 사용 능력 신장’, ‘문제 해결 전략 중심의 과정적 글쓰기’, ‘독서와 토론을 통합한 글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문 규범, 단어 용법, 문장 오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허철구, 1999). 아울러 문장의 성분 사이의 의미 호응, 능동과 피동, 존대법을 중심으로 문법적인 문장 구성과 명료한 문장 쓰기, 텍스트의 결속 구조와 주제 구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잘 쓰려고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쓰기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장경희, 1999).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여러 계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한국인의 글쓰기 오류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인터넷 글쓰기’를 비롯한 ‘디지털 글쓰기’가 전 국민의 글쓰기 생활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새국어생활》 15권 4호(2005)에서는 대학 입시와 맞물려 교육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술·구술 교육이 불가피하게 대학 입시에 도입되었고, 현행 학교 교육은 여전히 학습

자들에게 논술·구술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우한용, 2005, 임철성,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구술 교육의 결핍의 답은 학교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논술과 구술의 기초 다지기>(이상태, 2005)에서는 바람직한 논술·구술 교육의 방향으로, 논술 능력의 구성요소(이해력, 사고력, 논리력, 문제학적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술·구술 교육을 전체 교과와 전체 학년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필수 교양 과목인 ‘사고와 표현’ 강좌를 사이버 강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논술 교육한 사례(성낙수, 2005)도 주목을 끈다.

## 22. 국어 능력과 국어 시험

국민의 자국어 능력이나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은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들을 개발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이는 토플이나 토익처럼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문화 파급 효과도 커서 엄청난 브랜드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와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국어생활》 12권 2호(2002)에서 다룬 <한국인의 국어 능력> 특집은 국어 능력 평가 실태와 외국의 자국어 능력 평가를 두루 소개하고 있어서 의의가 크다.

### 22.1. 국어 능력과 외국의 자국어 교육·평가 사례

국어 능력이란 ‘정보화 사회에서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정보 수행 능력’으로 정의된다(권영민,

2002). 아울러 기존에 각급 학교 현장이나 공공 기관, 민간 단체의 채용 시험에서 대부분 국어에 대한 일반 지식을 측정한 경우가 많아 언어의 활용 기능이나 여러 가지 언어 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우선 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목적과 효용에 맞춰 다양한 시험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난이도 조절, 문제 은행 구축 등이 요구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우리의 국어 사용 능력이 매우 비관적 수준이며, 국가적 차원의 표준적, 정기적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민현식, 2002). 이를 위해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을 광범위하게 수립하여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술될 2008년의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의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해 대학 신입생의 필수 과목의 하나로 ‘집중적으로 글쓰기(Intensive Writing)’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 작문 센터(대학 부설 문장 상담소, College Wri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지역 사회의 ‘읽고 쓰는 능력 배양 센터(Literacy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하광호, 2002). 프랑스 역시 자국어 교육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프랑스어 총위원회’, ‘프랑스어 최고 이사회’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 보존, 정비, 발전, 확산과 관련된 문제 및 외국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 수행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교육, 특히 언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육과 재미의 결합에 있는데,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은 물론 ‘숫자와 글자’, ‘황금사전’ 등 텔레비전을 통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단어 맞히기와 받아쓰기 시험을 들 수 있다(한선혜, 2002).

일본의 국어 정책, 공무원 채용 시험, 초·중등학교의 국어 교육과 국

어 관련 각종 시험에 대해 소개도 인상적이다. 일본에서는 2001년 ‘문화 예술 진흥 기본 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일본어 조사 연구 보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어에 대한 이해와 논문 작성을 통한 문장 표현력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민광준, 2002).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시험이 표준화되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조할 사항이다.

## 2.2.2. 국어 능력 시험

《새국어생활》 19권 3호(2009)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국인을 위한 국어 능력 시험인 ‘KBS한국어능력시험’과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중심으로 특징, 등급 체계, 평가 영역과 내용, 활용 등 그 현황을 소개하고, 문항 분석을 통해 두 시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김형배, 2009). 구체적으로 KBS한국어능력시험은 표준화된 문항 체계 개발 운영, 구어(口語)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듣기 영역의 설정, 듣기·말하기의 통합 평가 문항, 작문 과정 중심의 사고력 평가, 실용문 중심의 읽기 능력 평가와 복합 문식성 측정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박재현, 2009). 한편,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언어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개발되었고, 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발맞춘 인재 육성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배동준, 2009). 향후 더욱 우수한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를 높이고, 학습자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이도영, 2009).

《새국어생활》 20권 1호(2010)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국어 시험들이 국어 능력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대로 변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국어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 시험은 그 나름대로 대학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충실히 성취해 왔다. 여러 한계로 인해 국어 활동의 전 부문을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국어 활동의 다양한 부문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적 사고력을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종훈, 2010).

반면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분석과 관련하여, 5급에 비해 7·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형래, 2010). 무엇보다도 표준안이 마련되지 못해 출제자에 따라서 신뢰도, 타당도, 변별도에 커다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표준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법학 적성 시험’이나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도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최지현, 2010).

국어 능력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능력이며, 실제적 지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선발을 위한 결과 평가가 아닌 송환을 위한 과정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능력 평가는 국어 생활을 통해서 비형식적 평가와 과정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생활의 과정과 결과물을 수집 정리한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성영, 2010)는 지적도 흥미해 볼 필요가 있다.

### 2.2.3. 국민 기초 문해력

《새국어생활》 19권 2호(2009)에서는 문해력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해 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지칭하던 문해력(문식성, literacy)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존의 국내외 문해력 조사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미래 지향적인 문해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윤준채, 2009).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바탕으로 그 조사 추진 경위와 조사 방법,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조사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총 5,212 가구 12,137명을 대상으로 한국궐립조사연구소와 함께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 국민의 비문해율은 1.67%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98.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19~79세) 중 약 62만 명이 비문해자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장 이해 능력이 부족한 반(半)문해자가 5.3%로서 약 200만 명에 달해 도합 약 260만 명의 국민들이 문해율 부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김순임, 2009).

서구에서 문해력의 개념은 ‘기초 문해, 기능(functional)문해, 비판 문해’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문해력의 수준이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 이상으로 평생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인구의 약 15%인 600만 명에 이르며, 다문화 가정의 증가함에 따라 성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해 교육 강화와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초등학교 학력 및 중학교 학력 인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인종, 2009). 아울러 여성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해 교육 방안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전은경, 2009).

### 2.3.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에 한국어 교육이 국내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국어생활》 제18권 3호(2008)에서는 <국의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을 특집으로 하여,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국어의 세계화 논의와 관련하여 일방적 전파가 아닌 문화 호혜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이상규, 2008)는 지적은 되새겨볼 만하다. 특히 전 세계 27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 학교의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재의 표준화, 문법 모형 개발, 교재 및 부교재의 개발과 보급, 한국어 교원의 교육과 연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의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이상규, 2008).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 이중언어 교육 병행, 한글 학교의 표준 교육 과정 구안, 현지에 적합한 학습 자료 개발, 유능한 교사 확보, 다양한 교수법 활용, 언어 문화의 통합 교육 지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박갑수, 2008).

한국어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세종학당’이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김재훈, 2008)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종학당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즉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2단계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에서 1,200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755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1조 3,250억 원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편익 비율은 191.2에 이른다. 간단히 말해서 세종학당에 투입될 비용에 비해서, 그로 인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190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외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학당에서 지향하는 ‘문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 시 학습 초기부터 자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목표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학습 내용과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백봉자, 2008). 즉, 학습자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와 한국 사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이를 언어와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언어 사용 맥락 및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학당을 한국 문화의 센터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교육 과정의 수립과 다양한 유형의 교재 개발,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의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세종학당을 통해 현지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원 양성을 병행하는 방안(손중권, 2008)도 제안되었다.

<한국어 교원 수급 방향>(송향근, 2008)과 관련하여서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 수를 계산해 보면 총 수요가 2,991명, 총 공급이 3,529명이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에게만 부여하고 그 외의 비전공자에게는 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여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기존에 자격증 발급 시 요구했던 교육 경력 시수 800시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0시간으로 줄이자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훈련시켜 새로이

이주해 오는 출신 국가의 여성을 교육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새국어생활》 19권 2호(2009)에서는 한국어 세계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한국 언어 문화 및 현지 문화의 상호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견인해 나갈 세종학당의 구체적 방향과 국외 한국어 교육 방향, 교원 수급 방향, 교재 개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폭 넓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다만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편익 분석,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나가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과제와 전망

《국어생활》,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다루어진 국어 교육, 국어 능력과 국어 시험, 한국어 교육 등의 논의는 우리 국어 생활에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와 국어 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새국어생활》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의 문해력(문식성), 국어 생활, 한국어 교육 등과 관련되는 새로운 사회적 의제의 발굴과 여론 형성의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하여 국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생애 주기 국어 생활의 특징과 발달 및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 문식성 조사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국어 시험의 내용 체계 표준안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안이나 표준안이 없이 출제자에 따라 조

변석개하는 타당도와 변별도가 떨어지는 평가 문항으로는 국가 공무원 선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국민 문해력 측정을 체계화·정기화하고, 인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어 능력 시험들을 통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종합적인 이해·표현 능력 측정 및 인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최고급 단계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면모를 살려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매체 환경에 따른 국민 언어 생활의 특징과 실태 조사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의 확장과 그 활용은 국민 언어 생활은 물론 국어 교육의 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어 순화 운동과 고유어 소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어 교육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일반 국민들의 국어 사랑 운동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황금사전’과 같이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우리말 겨루기나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적 국어 사용 진흥 노력이 필요하며, 교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국어 교육, 컴퓨터 공학, 전산 언어학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전산 언어학과 컴퓨터 공학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온톨로지(ontology) 구축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어 온톨로지의 구축은 컴퓨터에 기반한 어휘 개념망의 확충으로서 한국어의 전산 처리와 인공지능 개발에 중요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이해와 표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학제적 연구와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어의 세계화와 브랜드 전략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다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 논의도 더욱 심화되어야 하겠으나, 한국 언어 문화가 통합된 한국어 교육과 국외 홍보 전략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브랜드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일반인들이 더욱 쉽고 흥미롭게 《새국어생활》을 읽을 수 있도록 내용과 편집에서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국어생활》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로 참고한 자료는 《새국어생활》, 《국어생활》의 아래 특집들이다. 83면에 이르는 필자별 참고 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새국어생활》, 제20권 1호, 2010년 봄, <특집: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

《새국어생활》, 제19권 3호, 2009년 가을, <특집: 국어 능력 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

《새국어생활》, 제19권 2호, 2009년 여름, <특집: 국민의 문해력>

《새국어생활》, 제18권 3호, 2008년 가을, <특집: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새국어생활》, 제15권 4호, 2005년 겨울, <특집: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새국어생활》, 제14권 3호, 2004년 가을, <특집: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제13권 1호, 2003년 봄, <특집: 표준 화법>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2002년 여름, <특집: 한국인의 국어 능력>

력>

《새국어생활》, 제10권 2호, 2000년 여름, <특집: 학교 문법>

《새국어생활》, 제9권 4호, 1999년 겨울, <특집: 한국인의 글쓰기>

《새국어생활》, 제9권 2호, 1999년 여름, <특집: 한자 문화권의 한자 교육>

《새국어생활》, 제1권 3호, 1991년 가을, <특집: 국어의 경어법>

《국어생활》, 19호, 1989년 겨울, <특집: 호칭어>

《국어생활》, 10호, 1987년 가을, <특집: 국어 생활의 예절>

《국어생활》, 12호, 1988년 봄, <특집: 바람직한 국어 교육>

《국어생활》, 창간호, 1984년 10월, <특집: 고등학교 국어 문법>



---

## 어휘 · 사전 분야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남길임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머리말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 실린 글들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사전과 어휘 분야의 논의는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국어원의 언어 정책과 언어 연구 조사 사업은 한자어, 외래어, 신어 등 ‘어휘’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어 왔고, 국가 주도의 대사전 편찬 사업 역시 지난 20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휘와 사전 분야를 특집 주제로 다룬 경우는 각각 11회, 8회로 지난 20년간의 《새국어생활》 80여 권 중 총 19권이 ‘어휘’ 또는 ‘사전’을 주요 논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논의의 범위를 각 특집의 주제적 경향성을 살펴보고 향후의 논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순서를 따라 살펴볼 때, 어휘 분야의 논의는 외래어, 한자어, 국어 순화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정보화, 전문화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논제들, 즉 어휘망, 전문 용어, 신어 등으로 논의의 폭을 확장해 왔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식 정보 사회는

정보의 핵심 영역에 있는 언어, 무엇보다 ‘어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요구하며, ‘어휘’는 더 이상 순수한 국어학의 영역에서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 실린 어휘에 대한 논의는 정보 기술 분야, 문화와 소통의 문제, 타 학문 및 산업 영역과의 학제적 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으로 변화하는 국어 어휘의 환경을 조명할 수 있다.

사전학, 사전 편찬학에 대한 논의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발간을 기점으로 다양한 특집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는데, 사전학, 사전 편찬 방법론에 대한 연구, 국가 주도형 사전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규범 사전 또는 언어 사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다. 무엇보다 「표준」의 편찬 과정을 반영하는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사전의 평가와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논의, 사전 편찬 과정과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 발간 이후 사전에 대한 평가, 최근 새로운 사전 편찬을 위한 논의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국어학계에 불어 닥친 말뭉치 구축 및 말뭉치 언어학에 대한 관심,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 등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다.

본 논의를 《새국어생활》을 넘어선 국어학 전반의 어휘·사전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제한된 지면과 필자의 능력을 고려할 때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 수록된 어휘와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만으로 한정하고 각 분야 주제의 시대별 경향성과 시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특집 주제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각 분야의 주제들이 지난 20년간의 국어학 학술적 성과와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거시적인 고찰과 미시적인 고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특집 주



제들의 주제적 다양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흐름이 거시적인 고찰이라면, 미시적인 고찰은 각 주제 내의 하위 주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집 주제들의 논의 경향을 분석하고 지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실용적인 관점에서, 《새국어생활》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각 주제들의 적합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주제들이 국어학 관련 유일한 대중잡지로서 《새국어생활》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선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관련된다. 1991년 간행사에 명시하고 있듯이, 《새국어생활》은 나라의 어문 정책에 대한 홍보, 국어 순화 및 언어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국어 관련 연구 조사 사업의 홍보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는데, 각 주제들이 이러한 주요 기능을 담당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어휘·사전 분야 논의의 성과

### 2.1. 어휘 분야 특집 주제와 논의의 성과

지난 20년 간 《새국어생활》에서 다루어진 어휘 분야의 특집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1985년 창간된 《국어생활》부터 지금까지 어휘 분야의 각 주제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다음 11개의 특집 주제들은 지난 20년간 국어 어휘 분야 연구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여준다.

---

|                          |               |
|--------------------------|---------------|
| 《국어생활》 02호, 1985년 6월,    | 특집: 국어 속의 외래어 |
| 《국어생활》 08호, 1987년 봄,     | 특집: 국어 속의 한자어 |
| 《국어생활》 19호, 1989년 겨울,    | 특집: 호칭어       |
| 《국어생활》 22호, 1990년 가을,    | 특집: 어휘        |
| 《새국어생활》 제1권 1호, 1991년 봄, | 특집: 한국인의 이름   |

|                            |                      |
|----------------------------|----------------------|
| 《새국어생활》 제3권 2호, 1993년 여름,  | 특집: 한국어의 외성어·외태어     |
| 《새국어생활》 제4권 1호, 1994년 봄,   | 특집: 한국의 지명           |
| 《새국어생활》 제4권 2호, 1994년 여름,  | 특집: 한국의 속담           |
| 《새국어생활》 제13권 3호, 2003년 가을, | 특집: 국어의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 |
| 《새국어생활》 제16권 4호, 2006년 겨울, | 특집: 신어               |
| 《새국어생활》 제17권 1호, 2007년 봄,  | 특집: 전문 용어와 국어 생활     |
| 《새국어생활》 제17권 3호, 2007년 가을, | 특집: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      |

---

<표1. 어휘 분야의 특집 주제>

지나친 이분법일 수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을 두 시기로 구분할 때, 대략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 그 경계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그 시기에 개인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이 급속도로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달라진 언어 사용 환경은 언어 사용 매체의 다양화, 어휘의 생성과 파급의 신속성, 정보로서의 언어 지식 처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어휘 연구의 경향성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양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21세기 세종계획’(1996~2007)과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1999)의 간행에 따른 말뭉치의 구축과 언어 처리 기술에 대한 논의는 어휘 관련 연구 및 언어 정책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표1>의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중후반 이전의 주제와 이후의 주제는 언어 정책과 활용의 측면에서 현저히 다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주제는 외래어, 한자어, 호칭어의 세 가지 주제로 학술적인 논의도 있었으나 어문 정책과 국어 순화와 관련한 논의가 특히 활발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작업의 진행 속에서 1987년의 ‘국어 속의 외래어’가 특집으로 논의되었고 국어 속의 차용어 전반과 외래어 유입 양상,

신어 형성에 있어서 고유어 활용의 중요성, 국어 정책에 있어서 원칙의 중요성, 대중 매체와 교육 기관의 역할의 필요성 등이 주장되었다. ‘국어 속의 한자어’의 주제 역시 한자음의 기원과 계보, 한자어의 구조와 조어력이 논의되는 한편, ‘토박이말과 한자어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어를 순화하는 데 맹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논의(이강로),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맞춤기는 데 생기는 문제’(김윤학) 등 어문 정책 및 언어 생활과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 ‘호칭어’ 특집의 경우는 특히 제도적 성격이 강한 글을 많이 포함했다.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박갑수), ‘친척의 계보와 호칭’(이웅백), ‘호칭과 칭호’(한갑수) 등에서는 1989년 당시 호칭어 사용 실태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한편, 부모의 칭호와 호칭이라든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알아야 하는 호칭 등을 표로 정리해 놓았다.

1990년대 초반의 논의는 한국인의 이름, 지명, 외성어·외태어, 속담 등을 특집 주제로 하는데, 1980년대에 비해 정책 및 순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정 어휘 부류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인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1994년의 ‘한국의 지명’의 경우,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지명의 전래와 그 유형성’, ‘지명 부여의 과정과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특집 주제 ‘한국의 속담’은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속담에 대한 국어학적 재인식 시도’, ‘속담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신조 속담’ 등 총 8편의 글과 ‘한국 속담 관련 논저 목록’까지 포함되어 자료적 가치가 풍부하다.

‘국어의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 ‘신어’, ‘전문용어와 국어 생활’,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특집 주제들로, 이들 주제의 선정 경향은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말뭉치 구축 및 사전 편찬에 대한 관심 등 학계의 변화와 1990년대 후반 이후 어휘론 분야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반영한다. 언어 처리 기술이 진일보하고 대량의 말뭉치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초 어휘, 기본 어휘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소러스, 빈도, 계량화의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등장하

였다. ‘신어’, ‘전문 용어’, ‘어휘 의미망’의 특집 주제 역시 정보로서의 언어 지식 처리에 대한 중요성, 인터넷 언어를 포함한 각종 신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전문어 정책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으로 인해 새로이 논의된 주제들이다. 이들 세 주제 모두 해당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조사 사업, 즉 신어 조사 사업, 전문 용어 정비 사업, 세종 전자사전 및 어휘 의미 체계 관련 사업 등을 전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책의 방향을 알린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어휘 분야의 특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논의를 이루어 왔음에 틀림없으나,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서 《새국어생활》의 특성과 국어학계의 어휘론 연구 동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 2.2. 사전 분야 특집 주제와 논의의 성과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는 총 8회로 그 중 7회가 국립국어원의 『표준』 편찬 사업의 준비, 진행, 평가의 단계에서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특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                         |
|--------------------------|-------------------------|
| 《국어생활》 7호, 1986년 겨울      | 특집: 국어사전과 그 편찬          |
| 《새국어생활》 제2권 1호, 1992년 봄  | 특집: 국어사전의 뜻풀이           |
| 《새국어생활》 제2권 4호, 1992년 겨울 | 특집: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 |
| 《새국어생활》 제3권 4호, 1993년 겨울 | 특집: 북한의 국어사전            |
| 《새국어생활》 제5권 1호, 1995년 봄  | 특집: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
| 《새국어생활》 제8권 1호, 1998년 봄  | 특집: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

《새국어생활》 제10 권 1 호, 2000년 봄 특집: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새국어생활》 제19 권 4 호, 2009년 겨울 특집: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

---

### <표준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를 살펴보면 『표준』사전 편찬의 시기별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데, 특집 주제들 각각은 지난 20년간 국어학계에 사전학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지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전사의 개화기 내지는 도약기’(홍재성, 2009)라는 평가가 말하듯, 실제로 이 시기에 사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사전 편찬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 다양한 유형의 사전 편찬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표준』의 편찬 사업의 계획과 시작의 시기에 ‘국어사전과 그 편찬’(1986, 봄호), ‘국어사전의 뜻풀이’(1992, 봄호),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1992, 겨울호), ‘북한의 국어사전’(1993, 겨울호)의 네 가지 특집 주제가 논의되었는데, 이들 특집 주제는 실제 사전 편찬 계획을 앞두고, 사전학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어사전과 그 편찬’에서는 국어사전의 역사와 바람직한 사전 편찬을 위한 방향, 사전학 정립의 필요성 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당연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사전에 대한 당시의 요구는 언어 규범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규범적인 사전(김민수)과 언어 현상의 충실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술적인 언어 사전(홍재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규범 사전’과 ‘기술 사전’의 무게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으나 『표준』이 『표준』, 즉 ‘규범’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기술 사전에 대한 숙제는 아직도 미완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는 사전 편찬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인 뜻풀이를 중심으로 기존 사전에 대한 반성과 축적된 국어학적 성과를 사전 기술에 적용하는 문제가 품사별로 논의되었고, 유사한 시기의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 ‘북한의 국어사전’의 두 주제는 모두 관련 국제 학술 회의와 토론회의 발표와 논의를 담은 특징으로 초기 종합 사전 편찬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들과 실제 사전 편찬에 있어서의 쟁점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

『표준』 편찬의 중반기와 마무리 단계의 특징들은 대사전 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거나 점검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룬 ‘종합국어대사전 편찬’(1995, 봄호),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1998, 봄호)과 99년 『표준』 발간 이후 평가와 의의를 담은 ‘표준국어대사전 발간’(2000, 봄호)의 세 가지 주제이다. 95년 봄호에서는 92년부터 시작된 대사전 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도록 <종합국어대사전> 집필 지침과 사전 편찬 관련 하위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98년 봄호에서 역시 『표준』 집필의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전학적 문제들을 품사와 어휘 부류별로 고찰하고 있다. 99년 『표준』 발간 이듬해인 2000년 봄호는 『표준』의 편찬 경과와 전반적 특성을 소개하는 동시에 『표준』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대한 글도 함께 실었다. 이 중 ‘표준국어대사전’과 어문 규범(안상순), ‘문제점이 많은 『표준국어대사전』’(조재수)의 글은 『표준』이 지향하는 ‘규범’, 『표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수정·보완해야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주장들은 향후 새로운 사전 편찬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과 관련한 마지막 특집호인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2009, 겨울호)는 학계와 업계 전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전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한계’(홍재성)는 10년 전의 『표준』 사전을 반성하며 단일어 언어사전으로서 한국어대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논의로 20년 가까이 학계에서 지속되어 온 주장을 대표하는 글이며, 그 외 세 편의 주제는 지식 정보

사회, 다문화 사회, 디지털 시대로 대표되는 현대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사전 편찬의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들에서 논의된 참여형 사전, 연결 지성을 추구하는 개방형 사전, 다국어 지원 학습용 웹사전 등은 ‘진정한 언어 사전’이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함께 향후 새로운 대사전이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3. 어휘·사전 분야의 평가와 지향 방향

이상에서 어휘·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들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 탓에 충분히 살필 수는 없었지만, 어휘·사전 분야 모두 달라진 언어 사용 환경과 국가 주도 대사전 편찬 사업 등의 시대와 문화의 요구에 따라 특집의 주제와 방향이 유연하게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특집 주제는 어문 정책에 대한 홍보, 언어 생활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국어 관련 연구 조사 사업 홍보라는 국어원 일반의 목표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주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지난 20년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국어생활》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더 언급할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남았다. 어휘·사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미진하여 좀더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에 대한 논의, 《새국어생활》의 성격과 지향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이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된 어휘나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들이 충분한 다양성과 시의적 효용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소외된 분야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외된 부분은 다름 아닌 ‘교육’과 ‘홍보’이다. 국어 정책 기관에서 ‘어휘’, ‘사전’의 분야는 가장 대중성이 짙은 분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두 분야는 국립국어원 사업의 홍보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교육, 일반인을 위한 사전의 구조와 활용에 대한 교육적인 분야에 대한 주제와 연구 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양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어휘 분야의 경우, 어휘 교육의 목표와 방향, 어휘 교육의 방법, 교육용 기초 어휘 선정과 활용 방안, 개정 교과서와 어휘 교육,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사전 분야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사전의 구조와 활용, 교육 현장에서의 사전의 활용, 사전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국민의 언어생활과 사전 활용의 문화적 의의 등이 흥미로운 주제로 논의될 수 있다. 어휘 교육과 사전 사용 교육에 대한 주제는 《새국어생활》이 국어 관련 유일 대중 잡지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문화 국민으로서 격조 높은 어휘의 사용에 대한 관심,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나 활용이 점차로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편찬될 개방형 대사전의 편찬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범국민적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적인 언어 사전에 대한 요구와 위키 방식의 개방형 사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지식의 총체를 기술하는 사전과 다문화 사회를 고려한 학습용 웹사전을 연동시킬 것인지, 각기 구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고견뿐만 아니라 사전 사용자의 견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계뿐만 아니라 출판업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필자가 참여하는 사전 특집, 쟁점에 대한 토론문의 수록도 의미가 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편찬되어 온 여러 유형들의 사전의 가치와 활용 의의를 점검하고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사전 편찬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울 것이다. 일반적인 사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작가나 학자, 교육자의 관점에서 분명 지금까지의 한국어 사전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학술적 관점에서는 속담, 관용어, 연어, 상투어, 문법 패턴 등 의미·기능 단위로서의 다중 어휘 단위(multi-word)에 대한 주제가 어휘 분야와 사전 분야 모두에서 흥미로울 것이다. 지난 20년간 단일 어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다중 어휘 단위의 기술과 사전 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구어에서 나타나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나 특정한 장르, 사용역에서 특정한 기능으로 쓰이는 구 단위 표현들에 대한 기술과 사전 처리는 현재의 사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새국어생활》의 성격과 대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 20년 간의 《새국어생활》의 어휘·사전 분야의 특집들은 충분히 시의적절했고 유용한 논의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특집 주제와 관련한 글들은 대중성을 표방하기보다는 전문성이 강한 논의가 많으며, 논의의 성격 또한 학술성이 짙은 경우가 많다. 《새국어생활》이 국어 관련 유일 대중 잡지로서 향후 어느 정도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지는 향후 새로운 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 새국어생활과 어문 규범 논의

이선봉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국어 어문 규범은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 어문 규범의 기능은 통일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맞춤법을 잘 지키는 것을 국어 실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국어 정책을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새국어생활》<sup>2)</sup>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새국어생활》과 그 전신인 《국어생활》에 실린 어문 규범 관련 논문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sup>3)</sup>

- 1) 이 세 가지는 이익섭(1998:88-92)에서 언급한 표준어의 기능으로서 어문 규범의 기능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통일의 기능은 국민의 언어·문자 생활을 통일해 준다는 뜻이고, 우월의 기능은 표준적인 교육을 받은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 준다는 뜻이며, 준거의 기능은 절제 있는 언어·문자 생활을 유도하여 준범 의식을 길러 준다는 뜻이다.
- 2) 국립국어원(2004)의 전신은 국립국어연구원(1991~2004)이고 그 전신은 국어연구소(1984~1991)이다. 《새국어생활》(1991~현재)의 전신은 《국어생활》(1984~1990)이다.

어문 규범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기별로 고찰할 수 있다. 국어연구소 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된 이후에 걸쳐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시행되기 이전이다. 국립국어연구원 시기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은 시행된 이후이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된 이후에 걸쳐 있다. 국립국어원 시기는 모든 현행 어문 규정이 고시된 이후이다. 특정 어문 규정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가 사뭇 다르기 마련이다. 시행되기 전에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검토가 우세하지만, 시행된 후에는 어문 규정 내용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논의가 우세하다.

그러나 시기별 고찰은 학술적으로는 의의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문 규정별로 고찰하도록 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차례대로 살핀 후,<sup>4)</sup> 《(새)국어생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표준 화법까지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2. 한글 맞춤법

(1988년 1월 19일 고시, 1989년 3월 1일 시행)

유목상(1988)은 현행 한글 맞춤법이 고시된 직후 그것을 해설한 글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한글 맞춤법으로 바꾸면서 개정한 내용을 불필요한 규정의 정리, 미비점 보완, 현실에 맞추어 고친 사항으로 유형화하여 해설하였다. 맞춤법 부분에서는 규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언급하였다. 첫째, ‘매, 폐, 헤’와 같은 한자음은 현실 발음이라고 하기 어려우니 현

3) 앞으로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새)국어생활》로 표기한다.

4) 《(새)국어생활》에는 어문 규범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실 발음에 맞춘 맞춤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듯, 간/가는/갈 듯(하다)’에서 ‘듯’은 어떤 경우에도 앞의 말과 끊어 읽지 않기 때문에 어미 혹은 어미의 일부로 보아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한자의 글자 형태에 대한 직관에 어긋난 주장이므로<sup>5)</sup>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후자는 지금도 여러 논저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가는 듯하다’는 호흡 단위 때문에 ‘가는듯 하다’와 같은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지만, 모아쓰기라는 특수한 문자 운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모아쓰기의 장단점을 분석한 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익섭(1985)은 모아쓰기의 장점을 부각한 거의 유일한 글로서 모아쓰기보다 풀어쓰기가 표의성(表意性)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 최현배(1949)가 매우 박약한 논리에 근거하였음을 언급하고 한글은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맞춤법의 표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정수(1989)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풀어쓰기가 더 쓸모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한글 풀어쓰기(가령 ‘한글’을 ‘한 글’로 적는 것)는 현행 한글 맞춤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적인 것이어서 과학적으로 그 효용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병희(1988)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글은 아니지만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설명한 글이다. 15세기 한글 창제 직후의 《훈민정음》 해례본 및 한글 표기 문헌과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 국어의 맞춤법까지 간략하지만 요령 있게 설명하였다. 국어 표기법의 역사는 《국어생활》 9호(1987년 여름호)에 특집으로도 매우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그곳에 실린 글 중 현행

5) 송기중(1992)에서는 국어 화자들이 어떤 글자를 보았을 때 그것이 한자음 표기의 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가령 ‘드 먼 칼’을 보고서 그것들이 어떤 한자를 표기한 글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는 남광우(1987)를 살펴보기로 한다. 거기에서는 현행 맞춤법이 고시되기 전의 맞춤법, 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고찰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지나치게 어법과 어원에 집착하여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즉, 표의성(表意性)보다는 표음성(表音性)을 위주로 한 맞춤법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 쓰는 이와 글 읽는 이의 수(數)를 고려할 때 쓰기 쉬운 맞춤법보다는 읽기 쉬운 맞춤법이 더 좋은 것임은 이미 이익섭(1992)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발음(소리)을 위주로 한다면 쓰기가 쉽다. 소리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꽃이, 꽃만, 꽃과’를 그 소리대로 ‘꼬치, 쏬만, 쏬파로’ 쓰면 된다. 그러나 의미(뜻)를 위주로 한다면 읽기가 쉽다. 예컨대 언제나 ‘꽃’이라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금세 그 뜻이 파악되어 읽기가 쉽다.

다만,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그만큼’과 ‘클 만큼 (컸다)’에서 ‘만큼’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앞에 붙여 쓰고 하나는 앞과 띄어 쓰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남광우(1987)의 주장은 현재에도 꽤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sup>5)</sup>

띄어쓰기는 현행 어문 규정에서 양적으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어문 규범이다. 띄어쓰기는 아무리 쉽게 만들려고 해도 일반화된 규칙을 완벽히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현행 띄어쓰기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띄어쓰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2002년 봄호)는 가치가 있다.

이익섭(2002)은 현행 단어별 띄어쓰기 규정은 허용의 폭이 좁아 지나

5) ‘대로, 뿐도’ 이와 같은 띄어쓰기 원칙이 적용된다. 가령, ‘마음대로, 가는 대로’와 같이 쓴다.

치게 많이 띄어 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주 쓰이거나 전문적 의미로 굳어진 말들에 과감하게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가령 전자의 경우에는 보조 용언 구성 ‘가 버리다’를 ‘가버리다’로 쓰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열개’를 ‘열개’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것을, 후자의 경우에는 ‘고유 명사’와 같은 말을 단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정희창(2002)은 현행 맞춤법에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를 요령 있게 정리한 것이고, 시정곤(2002)은 명사 연결체, 가령 ‘품질 관리 공정’과 같은 말의 띄어쓰기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허철구(2002)는 법률 문장의 띄어쓰기를 다루었고 여규병(2002)은 신문에서의 띄어쓰기를 다루었는데, 둘 다 과도한 붙여 쓰기가 문제가 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희창(2002), 허철구(2002)를 제외한 모든 글이 띄어쓰기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허용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이나 사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전을 언급한 이유는 띄어쓰기가 국어사전에서의 단어성 판별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띄어쓰기가 아니더라도 어문 규정과 사전 편찬은 관계가 매우 깊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어문 규정이 발효되면 그 내용에 맞추어 모든 국어사전도 일관되게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의 개정 속도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사전마다 서로 다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정(1990)은 8개의 기존 사전이 어형, 긴소리, 한자어, 구조 분석(붙임표), 표기, 외래어 표기 면에서 상이한 처리를 하고 있음을 예시하여 국어사전의 규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한글 맞춤법에서 간과되는 것 중 하나는 자모의 배열 순서이다. 자모 배열은 옛 문헌인 《훈민정음》, 《훈몽자회》에서와 현재의 사전들에서 서로 다르며 북한의 사전에서와 남한의 사전에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학문적 고찰도 필요하다 할 것인데, 전광현(1989)은 이에

대한 매우 드문 연구이다. 전광현(1989)은 문자론적 기준과 음운론적 기준, 전통적 관습성, 교육적·실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모 배열 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과 국어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고어 사전과 현대어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후, 결론적으로 현대어 맞춤법, 현대어 사전, 고어 맞춤법, 고어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문장 부호이다. 한국어의 문자 언어에서 문장 부호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적어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면 그리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규정 자체도 많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지며 예도 소략하기 짝이 없다. 규정에 대한 해설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sup>7)</sup> 그런 점에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2002년 겨울호)에서 문장 부호를 기획 특집 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익섭(2002)은 통론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영어에서 치밀하게 규정된 문장 부호 사용법과 대비하여 현행 문장 부호의 문제점을 실례를 들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이런 허술한 규정으로 이만큼 문자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라고 하면서 현실에도 맞고 범언어적 통용성도 좋은 문장 부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승재(2002)는 우리나라 옛 문헌에 쓰인 문장 부호를 고찰한 글이고 양명희(2002)는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를 교과서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핀 글이다. 임동훈(2002)은 현행 문장 부호의 미비점을 풍부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글이고 전수태(2002)는 남한과 북한의 문장 부호 규정을 비교·대조한 글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장 부호는 반드시 보완

7) 필자는 교과서의 어문 규범 심의·감수를 자주 하는 편인데, 문장 부호의 쓰임이 다채롭기 이를 데 없음을 자주 경험하였다. 그것들을 모두 현행 어문 규정에 맞추어 억지로 축소·조정하도록 할 때에는 심리적 갈등까지 겪을 정도였다. 규정의 대폭 보완이 시급하다.



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장 부호는 독립성이 강해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해치지도 않는다.

임동훈(2002)에서도 ‘어문 규정은 학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언중이 이를 따르고 있다면 바꾸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문 규정이 문자 생활의 지침이 되지 못하거나 다수의 언중들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때에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는 쪽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고 불편을 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규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3. 표준어 규정

(1988년 1월 19일 고시, 1989년 3월 1일 시행)

이용백(1988)은 현행 표준어 규정이 고시된 직후 그것을 해설한 글이다. 표준어에 대한 의식과 그 역사를 간단히 언급한 후, 표준어 규정의 전체 체계 및 세부 내용 중의 일부를 표준 발음법까지 포함하여 해설하였다. 글의 성격 때문이기는 하지만 비판적 고찰이 전혀 없음은 아무래도 아쉽다.

표준어 규정은 규정 자체보다는 사정(査定)된 어휘가 더 중요하다. 곧 표준어 규정은 개별 단어들에 대한 것이므로 규정의 일반성이 어떻게 단어에 구현되는지가 최종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표준어 규정 마련 못지않게 지속적인 표준어 심의 및 사정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김주필(1990)은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를 설명하고 ‘표준어 모음’의 전체 내용을 해설한 글이다. 한편 김희진(1990)은 표준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1’ 모음 역행 동화, ‘-장이’와 ‘-쟁이’, ‘수’와 ‘숫’, 모음 조화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맞춤법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이라면 표준어는 20세

기에 와서야 명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익섭(1988)은 국어 표준어 형성의 역사를 고찰한 글이다. 거기에서는 한글 창제 직후에도 표준어에 대한 의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36년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57년 완간된 '큰사전'을 통해 국어 표준어가 형성되어 왔음을 간략히 설명하고 현행 표준어 규정의 사전(事前) 작업이라고 할 만한 1970년 이후의 표준어 사정 작업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은 곧 현행 표준어 규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수놈'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잘못이고 '-장이/쟁이' 선택의 기준으로서 기술 보유 여부를 내세워 '점장이/점쟁이'와 같은 주관적 해석의 혼란을 야기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였다.<sup>8)</sup>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 속에 포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맞춤법, 표준어보다는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므로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1993년 봄호)에서 표준 발음을 포함한 한국어 발음 전반을 살펴본 글들은 특별히 가치 있다고 할 것이다. 표준 발음과 기타 방언의 발음을 아울러서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 장단음의 구별을 설명한 글과 표준 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 규정을 비교·대조한 글 등이 실려 있다.<sup>9)</sup> 특이한 것은 어문 규정에 없는 억양에 대한 글(임흥빈 1993)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억양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sup>10)</sup> 다음 개정

8) 지금은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되어 있으므로 거기에서 표준어로 올린 것이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점쟁이'를 표준어로 올렸는데, 그것은 기술을 수공업적인 기술로 한정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둘째 비판은 현재로서는 그 의의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9) 현행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 중 중요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해설한 글은 권인한(2000)이다.

10) 억양은 음성 언어에서의 문장 부호라고 할 수 있다. 문자 언어에서는 문장 부호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음성 언어에서는 억양이 규정의 한 줄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문장 부호만큼 억양을 가시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할 표준어 규정에서는 억양 관련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때, 임흥빈(1993)과 같은 글들이 많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완벽히 준수하며 사는 사람은 현대의 교양 있는 서울 사람 중에서도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송철의(1996)는 공감이가 가는 에세이이다. 일상 구어에서 ‘꽃을’을 [꼬슬]로, ‘땀다’를 [땨따]로, 조사 ‘도’와 어미 ‘-고’를 각각 [두], [구]로, ‘삼촌’을 [삼춘]으로, ‘네가’를 [니가]로 말하는 필자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개개인의 의식적 노력, 학교에서의 말하기 교육을 강조하고 표준어와 표준 발음도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범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4.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 고시)

일반 국민은 외래어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어떤 표현을 일부러 외래어<sup>11)</sup>로 하려고 혹은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평소 외래어를 흔히 쓰면서도 한글날 때쯤 되면 우리말을 아끼고 자주 쓰자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등 외래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새)국어생활》에서 외래어가 자주 다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집으로 다루어진 것만 해도 모두 다섯 번이고(1985년 여름, 1996년 겨울, 1998년 여름, 2004년 여름, 2008년 겨울) 작은 글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1985년 여름호, 1998년 여름호, 2004년 여름호는 어문 규정으로서의 외래어 표기법을 고찰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1996년 겨울호)에는 외래어의 개념을 살

11)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국어에 동화된 말만을 가리키지만, 국어 문맥에 쓰인 외국어 단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정의(임흥빈 1996)되기도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외래어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외래어(곧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외국어’)를 포괄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외래어’를 넓은 개념으로 썼다.

펴보고 외래어 표기의 역사를 고대 차자 표기에서부터 현행 외래어 표기법까지 면밀하게 고찰한 임흥빈(199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및 실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베풀고 있는 임동준(1996), 현행 외래어 표기법 중 일부가 자연스러운 현실 발음에 위배되는 점을 실례를 들어 지적한 김상준(1996),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국어사전, 국어 교과서를 통해 외래어 표기 용례를 비교·대조한 김희진(1996), 일본어 표기법에 대하여 규정에서의 불비한 점과 원칙과 실례의 상충을 지적한 강인선(199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만근(1996)과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김세중(1996)이 실려 있다. 김상준(1996), 유만근(1996), 신형욱(1996)에서는 공통적으로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로 쌍자음을 쓰지 않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해묵은 비판으로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2008년 겨울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미리 언급하자면 거기에 실린 김슬옹(2008)도 외래어 표기법에서의 된소리 표기를 쌍자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를 살펴보기로 한다. 엄익상(2008)은 중국어 표기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중국어 표기법이 음절 수가 짧고 표현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ㄹ, ㄷ’을 제외한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점, 활음 [ɿ]가 ‘ㅈ, ㅊ, ㅌ’과 어울릴 때 그 음을 표기하지 않는 점<sup>12)</sup>, 음소 표기에서의 비일관성 등을 비판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한자음을 중심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진단한 최경봉(2008)은 동양의 인명, 지명에 대해 원음 표기와 한국 한자음 표기를 모두 허용하고 한자를 병기(併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박창원(2008)은 보수적이다. 음성학적, 음운론적, 문자론적 고찰을 통해

12) 그에 따라 ‘Jiang(江, 姜, 蔣)’과 ‘Jhang(張, 章)’이 표기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음운적으로 변별되지 않는 한 음소는 굳이 표기로 변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표기의 범람을 막기 위해 된소리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심재기(2008)는 외래어의 개념을 고찰하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조항별로 해설하면서 통찰력 있는 비평을 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최경봉(2008)과 같이 같은 한자 문화권의 언어인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 원지음 표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년 7월 7일 고시)

우리말을 적는 데 가장 적합한 문자는 역시 한글이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이해하는 일도 간혹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존재한다. 로마자 표기의 가장 큰 효용은 역시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이다. 그러나 나라 간의 교류가 잦아진 요즘에는 한국을 소개하는 외국어에서 ‘한복(hanbok)’ 같은 일반 명사를 쓸 일도 적지 않다. 그런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 표기법이 아닌데도 영미 사람들이 읽어서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게 비판받은 한다. 로마자 표기법은 문자 체계이지 발음 기호가 아니므로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오해는 비교적 심각하여 《새국어생활》에서도 두 번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특집을 마련한 바 있다. 한 번은 2000년 개정 이전에, 한 번은 이후에 기획한 것으로서 외래어 표기법과는 달리 비교적 우호적인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1997년 여름호)는 로마자 표기법 개정을 염두에 둔 기본적 고찰이 행해져 있다. 이익섭(1997)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각 나라의 (가상적인) 외래어 표기법에 해당하는데, 그에 맞추어

수백 개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한국어의 특성을 일관되게 체계화한 표기법이면 만족스러운 것이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알리고 할 때에는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 정도는 학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의 머큐-라이샤워 표기법의 허실을 진단한 글이다. 정희원(1997)은 머큐-라이샤워 표기법(1939), 한글학회 안(1940년), 문교부 안(1948년), 예일 체계(1954년), 문교부 안(1959년), 문교부 안(1964년)을 비교·대조하면서 세 가지 쟁점, 곧 로마자 표기를 우리말의 맞춤법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발음을 따라서 할 것인가의 문제, 로마자 한 글자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우리말 모음 /ɪ/, ㅡ, ㅐ /13)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 자음 체계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익섭(1997), 정희원(1997)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만드는 데 고려하였던 이론적 사항들이 비교적 치밀하게 논의된 글이다. 그 외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김세중(1997), 중국에서의 로마자 표기 실태를 설명한 허성도(1997), 일본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과 역사를 설명한 장인선(1997)이 실려 있어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2000년 겨울호)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고시되고 나서 그에 대한 의의를 살펴본 글들이 실려 있다.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된 그해에 정부 기관에서 펴내는 잡지에 로마자 표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실는 것은 정책적인 혼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로마자 표기법 홍보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우호적인 해설 위주의 글을 실고 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김세중(2000), 새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해설한 정희원(2000), 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적·실용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의 단점

13) 엄밀히 말하면 'ɪ, ㅡ, ㅐ'도 로마자 한 글자로는 대응시키기 쉽지 않다. 주된 쟁점만을 소개하느라 일부러 누락한 듯하다.

도 지적한 유만근(2000),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철학을 논하고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의 장점을 설명한 후 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조한 권재일(2000), 김명식(2000) 등이 실려 있다. 특히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성(姓)에 대해 그 표기를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용례집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씨의 표기 시안을 마련한 허철구(2000)는 눈길을 끈다. 실제 로마자 표기가 자주 이루어지면서도 기존의 관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곳이 성씨의 표기이기 때문이다. 성씨뿐 아니라 기업 이름, 학교 이름 등의 로마자 표기에는 관례와 새 표기법 사이의 충돌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 6. 표준 화법

1992년에 심의 확정된 표준 화법은 친족의 호칭어·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의 표준적 쓰임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정식 어문 규정이라기보다는 권고안이다. 따라서 국어 기본법에서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일반인들은 표준 화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종 기관의 국어 시험을 검토해 보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마찬가지로 표준 화법을 준거로 하여 언어 예절 문제를 구성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국어학자들이 표준 화법을 거의 어문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준 화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교육적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친족의 호칭어·지칭어라든가 경어법, 인사말과 같은 언어 예절을 잘 알아서 나쁠 것은 없겠으나 일반인들은 그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적은 편이다. 일반 국민들이 어떤 규정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동기가 없다면 그 규정의 생명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2003년 봄호)에서 표준

화법을 기획 특집으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오늘날의 언어 현실과 표준 화법의 중요성’(강신향), ‘현행 표준 화법의 미비점’(김세중), ‘표준 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안’(전영우), ‘표준 화법의 요건과 보급 방안’(김희진), ‘통신 언어의 표준 화법’(이정복)은 모두 현재의 표준 화법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새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표준 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풍부한 실례를 통해서 주장한 글들이다.

## 7. 맺음말

이상으로 《(새)국어생활》에 실린 어문 규범 관련 논문들을 주마간산 격이지만 빠짐없이 언급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 것도 있지만, 지면의 제약 때문에 논의 주제만을 소개한 것도 있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에서는 어문 규범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릴 것이다. 문장 부호,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개정, 표준어 재사정(再査定) 등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전 논문들의 내용을 넘어서서 더욱 풍부하고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논문이 많이 실리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신향(2003), 오늘날의 언어 현실과 표준 화법의 중요성,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강인선(1996), 현행 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강인선(1997), 일본 로마자 표기법의 어제와 오늘,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인터넷 서비



스).

권인한(1993), '표준 발음법'과 '문화어 발음법' 규정,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권인한(2000), 표준 발음, 《새국어생활》 제1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권재일(2000), 설득, 이해, 실천의 의지,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상준(1996), 외래어와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1997),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경위,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2003), 현행 표준 화법의 미비점,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슬옹(2008),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대한 맥락 잡기,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김정수(1989), 한글 풀어쓰기 운동, 《국어생활》 제18호, 국어연구소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 제22호, 국어연구소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제20호, 국어연구소

김희진(1996),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김희진(2003), 표준 화법의 요건과 보급 방안,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남광우(1987), **현행 맞춤법의 원리와 문제점**, 《국어생활》 제9호, 국어연구소.

민현식(2001), 《**국어 정서법 연구**》(수정판), 태학사.

박창원(2008),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송기중(1992), **현대 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송철의(1996), **표준어, 표준 발음과 국어 생활의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시정곤(2002),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실상과 처리 방향**,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심재기(2008),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안병 희(1988),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양명 희(2002),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엄익 상(2008),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반성—원칙과 세칙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여규 병(2002), **신문의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유만근(1996), **외국어를 귀화시켜 국어다운 외래어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유만근(2000), **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실용상 문제점**,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유목 상(1988), **한글 맞춤법**,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선웅·정희창(2010),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제3권), 태학사.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2), 옛 문헌의 각종 부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은정(1990), 어문 규정 고시 후의 사전 표제어 검토—1989년에 발행된 사전을 대상으로—, 《국어생활》 제20호, 국어연구소.
- 이용택(1988), 표준어 규정,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85),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의 表意性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98), 표준어의 기능,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 문학사상사.
- 이익섭(2002), 문장 부호의 중요성과 우리의 현실,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복(2003), 통신 언어의 표준 화법,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동훈(2002), 현행 문장 부호의 미비점과 대안,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흥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흥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 전광현(1989), 국어 자모의 배열 순서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18호, 국어연구소
- 전수태(2002), 남북한 문장 부호 비교, 《새국어생활》 제1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전영우(2003), 표준 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제1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원(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원(2000),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창(2002),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지민제(1993),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최경봉(2008), 언어 관습을 바탕으로 한 규범 정하기—외래어 표기, 특히 한자음 표기 규정과 관련하여—,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 최현배(1949), 《글자의 혁명》, 문교부
- 허성도(1997), 중국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허웅(1988), 맞춤법·표준말과 국어 생활,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 허철구(2000), 성(姓)의 로마자 표기 방안, 《새국어생활》 제10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허철구(2002), 법률의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 새국어생활 20년 방언 연구의 성과와 반성

김덕호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머리말

국어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서 국어는 민족의 제일 문화유산이고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어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sup> 이렇게 보전의 대상인 국어가 여러 지역 방언의 총체임을 고려할 때, 방언의 조사와 연구는 국어를 보전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과업이며 살아있는 한국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헌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문화 정책에서 어문 정책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문 정책 중에서도 문화를 담고 있는 방언의 조사와 보전은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특별한 과제가 될 것이다.

---

1)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문화의 제일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84년 5월 10일 국어연구소가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국가의 국어 정책과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국어 자료를 수집, 가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방언 및 생활어 등 국어 문화유산을 모아서 보존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였다.

국어연구소가 설립되고 1984년 10월부터 1990년 겨울호까지 23호를 《국어생활》이라는 제호로 기관지를 발간하게 되고, 1991년 봄부터는 《새국어생활》이라고 제호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매년 4호씩 20권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어생활》 7년과 《새국어생활》의 20년 동안 수록되어 있는 방언 관련 여러 편의 글을 살펴보면서 지역어 보존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새국어생활》에서 방언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전망해 본다.

## 2. 《새국어생활》의 방언 관련 주요 주제

국립국어원에서 지금까지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룬 방언 관련 특집은 다음과 같다. 1984년 국어연구소 시절 《국어생활》이라는 제명의 계간지로 발간된 이래, 방언에 대한 관심은 1986년 여름호인 《국어생활》 5호에서 처음으로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라는 주제로 방언 연구의 필요성과 방언학의 일반적인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는 특집호가 나오면서 시작된다. 이후 1991년 《새국어생활》 가을호(제1권 3호)에서 ‘국어의 경어법’이라는 특집 주제로 관련 글을 수록하면서 특별히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라는 소제목으로 중부 방언, 경북 방언, 서남 방언, 제주도 방언 및 북한 방언의 경어법의 특징을 소개한 내용이 있다. 1998년 겨울호인 《새국어생활》 제8권 4호에서 ‘방언’이라는 특집 주제로 국어의 방언 구획과 각 지역의 방언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

오면서 방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2003년 겨울호인 《새국어생활》 제13권 4호에서는 ‘방언과 문화’라는 주제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방언이나 지역 문화를 담고 있는 방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특집호가 나오면서 학문으로서 방언학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발견되는 방언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다. 2010년 가을호인 《새국어생활》 제20권 3호에서는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 특집호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1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소개하면서 추진 현황과 성과 및 집적된 지역어 자료의 활용 방안과 문화적 가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어 조사와 보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집호뿐만 아니라 방언에 관련된 글들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과 ‘고향 말을 찾아서’라는 방언 관련 연재물들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으며, 단편적으로 ‘국어 산책’ 분야에서도 전문가, 비전문가의 글들이 수록되었다.

## 2.1. 국어의 지역 방언과 그 연구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는 1986년 《국어생활》 여름호(제5호)에 특집으로 실린 주제이다. 이 특집 주제로 실린 글들은 방언 연구에 있어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분야를 연구 논문 형태로 집필한 것들이다.

먼저 권두 소론으로 ‘방언 연구의 필요성(김형규)’이 있다. 필자는 방언 연구를 국어학을 이룩하는 기본적 작업이라고 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소창진평과 하야육량의 한국어 방언 연구와 해방 이후 적박한 연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루어진 방언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필자의 감회를 밝히고 있다. 또한 방언 연구의

중요성을 국어학 연구와 관련지어 언급하면서 우리말의 과거와 미래를 살필 수 있는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방언의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비전문인의 방언 연구(김완진)’에서는 방언 연구가 다른 국어학 분야와는 달리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임을 밝히면서 방언 연구의 지평이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나 향토 문화 연구에 열정적인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전통 문화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들이 지역 방언의 지킴이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방언 조사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익섭)’에서는 방언 조사를 통해 표준어라는 좁은 세계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언어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언어학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방언 조사를 위해 질문지 작성과 제보자 선정, 전사법에 대한 방법론과 방언 연구자의 소양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방언 연구사(이승재)’에서 해방 전 일본인 학자인 소창진 평과 하야유허에 의해 언어사학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던 국어의 방언 연구가 해방 이후 유형과 체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진척되면서 크게 발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방언 상호간의 비교나 방언 구획에 대한 치밀한 방법론과 방언 접촉, 방언 차용과 같은 유기적인 해석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진정한 ‘방언학’으로서의 성과는 아직 이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 국어의 방언권(전광현)’에서 방언 연구의 중요한 목표는 방언 구획과 방언권의 확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방언 구획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와 독일, 우리나라의 방언 구획 업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방언권 설정을 위해서는 방언 측정법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언의 지리 언어학적 연구와 언어 지도에 대하여’(한영균)에서는 언어 지도를 제작하는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이 국어학 내부의 논의들로만 되어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지리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방언 지도 제작이 방언학의 일부로서 소개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아가 한국 방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이것이 당시 방언학의 동향을 다루는 특집호에서 소개되었다는 점은 향후 방언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방언사전, 여담(최학근)”에서 필자는 거의 20여 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방언을 정리해서 출판한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방언에 관련된 현장 자료가 부족했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특집호를 발단으로 ‘국어의 지역 방언’이라는 주제의 연재물이 나오게 된다. 먼저 김영배의 ‘북한 방언의 연구에 대하여’(《국어생활》 제5호, 1986년 여름)를 필두로 현평호의 ‘제주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 제6호 1986년 가을), 최명옥의 ‘동남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 제7호 1986년 겨울), 이돈주의 ‘전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국어생활》 제8호 1987년 봄)와 이승재의 ‘전북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 제8호 1987년 봄), 도수희의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국어생활》 제9호 1987년 여름), 이익섭의 ‘강원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국어생활》 제10호 1987년 가을), 이병근·박경래의 ‘경기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국어생활》 제12호 1988년 봄)까지 8차례 연재되면서 전국 방언권역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후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은 방언과 지역 문화를 연관 지어 계속해서 이어진다. 2005년 가을호부터 시작된 ‘고향 말을 찾아서’라는 연재물에서 각 지역별로 방언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지역어의 멋과 맛을 소개하고 있다. 이기갑의 ‘전라남도 방언 이야기’(《새국어생활》 제15권 3호, 2005년 가을), 이상규의 ‘경상북도 방언 이야기’(《새국어생활》 제15권 4호, 2005년 겨울), 김정대의 ‘경남 방언의 멋과 맛’(《새국어생활》 제16권 1호, 2006년 봄), 강영봉의 ‘제주어 이야기’(《새국어생활》 제16권 2호, 2006년 여름), 한영목의 ‘충남의 언어 이야기’(《새국어생활》 제16권 3호, 2006년 가을), 김봉국의 ‘강원도 말을 찾아서’(《새국어생활》 제16권 4호, 2006년 겨울), 박경래의 ‘내 고향은 충북이여유’(《새국어생활》 제17권 1호, 2007년 봄), 곽충구의 ‘옛말을 많이 간직한 함경도 방언’(《새국어생활》 제17권 2호, 2007년 여름) 등이다.

이 외에도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이라는 소재의 연재물로 이익섭의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국어생활》 제7호, 1986년 겨울), 김영배의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국어생활》 제8호, 1987년 봄), 이상규의 ‘함께 쓰고 싶은 경북 방언’(《국어생활》 제10호, 1987년 가을호와 《국어생활》 제11호, 1987년 겨울호), 김영배의 ‘공통어로 쓰일 수 있는 경남 방언’(《국어생활》 제12호, 1988년 봄)이 있다. 이러한 연재물들은 방언 전문가들이 비전문 독자들을 위해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엮은 것이다. 《새국어생활》이 표방하는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연재물들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연재물 ‘고유한 우리말을 찾아서’에서 남영신의 ‘용례를 통해서 보는 아름다운 토박이말(1)(2)’(《국어생활》 제10호, 1987년 가을호와 제11호 1987년 겨울호)이 나오고, ‘국어 산책’이라는 연재물에서 오홍일의 ‘목포·무안 지방의 방언을 찾아서’(《새국어생활》 제12권 3호, 2002년 가을), 강인숙의 ‘옛말의 아름다움과 사투리’(《새국어생활》 제16권 4호, 2006년 겨울)라는 비전문가의 글들도 몇 편 나온다. 아쉬운 점은 비전문가들의 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것이다. 김완진(1986)의 지

적처럼 방언이 전문 학자들에게만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지역에서 문화 지킴이 구실을 하고 있는 비전문적인 향토 방언학자의 좋은 경험도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2.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

1991년 《새국어생활》 가을호(제1권 3호)에서 ‘국어의 경어법’이라는 특집 주제로 관련 글을 수록하면서 특별히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라는 소제목으로 각 방언권 경어법의 특징을 보여준 경우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상에 따라 활용의 모습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는 한국어의 경어법을 각 방언권 별로 소개하면서 경어법의 체계를 정리하고 있다. ‘중부 방언의 경어법(유구상)’, ‘경북 방언의 경어법(이상규)’, ‘표준어와 서남 방언(이기갑)’,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현평효)’과 ‘북한의 경어법(정재영)’이 소개되어 있다.

유구상은 중부 방언의 상대 경어법을 합니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규는 경북 방언의 경어법을 청자 대우법의 등급 체계로 구분하여 [±수상], [±수하], [±존대]라는 대립 체계로 해설하고 있다. 이기갑은 서남 방언의 상대 높임 체계를 3등분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표준어의 하계체와 이와 유사한 서남 방언의 하소체를 말하리, 들을리와 상황을 조건으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평효는 제주도 방언 존대법으로 대자 존대 어미인 ‘-우’, ‘-하-’, ‘-마썸’, ‘-예’의 쓰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정재영은 북한의 경어법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 2.3. 방언

‘방언’은 1998년 《새국어생활》 겨울호(제8권 4호)의 특집 주제이다.

이러한 특집 주제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국어 방언 구획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업적들을 소개하고, 각 방언권의 언어적 특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여 준다.

‘국어의 방언 구획(최명옥)’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국어의 방언 구획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정리 검토하면서, 방언 구획이 방언 연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방언 구획을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국어의 방언 구획을 전국 단위의 광역 방언 구획과 도 단위의 협역 방언 구획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남은 과제로 체계적인 조사 항목을 가지고 현지 조사하여 전체 등어선속을 기준으로 정밀하고 타당한 방언 구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 방언(박경래)’에서는 이 지역 방언의 성격과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있다. 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곳 방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이 부각되지 않으며 경계도 불분명하고 대상 지역이 넓어 방언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주민의 이동이 많고, 표준어의 영향이 커서 전통적인 방언 특징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지역을 균형 있게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북 방언(김영배)’에서는 대체로 광복 전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방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기 중세 국어와 연결하여 문헌의 예를 인용하면서 서북 방언의 음운, 문법, 어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동북 방언(곽충구)’에서는 국토의 동북단인 육진 지역을 포함한 함경도 지역의 방언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함경 방언과 그와는 조금 다른 육진 방언의 음운, 형태,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중세 국어의 운소 체계를 계승한 함북 방언의 성조 교체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방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특징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중세 국어와도 유사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서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차용으로 인해 이질적인 통사 구조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서남 방언(이기갑)’에서는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중부 방언 및 동남 방언과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 방언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음운과 문법 및 형태의 특징을 비교적 많은 예를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남 방언(이상규)’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성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대와 중세 국어를 재구할 수 있는 언어 특징이 많으므로 한국어의 형성 과정에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어가 한국어 모태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남 방언과 경북 방언이 구조적 차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행정 구역의 분할로 인해 동남 방언의 내적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남 방언의 특징을 음운과 문법, 어휘의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정승철)’에서는 방언 구획 상 서남 방언에 속하는 ‘추자면’의 방언을 배제하기 위해 제주도만을 ‘제주 방언’이라고 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주 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와 상대 경어법의 등급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 방언(전학석)’에서는 함경북도 이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중국 연변 지역에서 쓰이는 말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연변 방언의 경우 방언학적 측면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육진 지방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육진 방언 구역과 그외 함경북도의 이주민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연변 방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지역 방언은 함경도 방언과 육진 방언의 특징이 녹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특집호는 ‘방언’이라는 넓은 주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방언의 특징들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 특집 주제에 맞는 방언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방언 보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했다면 좀더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2.4. 방언과 문화

2003년 《새국어생활》 겨울호(제13권 4호)에서 ‘방언과 문화’라는 주제로 특집호가 나왔다. 방언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 있다. 그러므로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방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이런 문화는 다시 문학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작품 속에서 지역 방언으로 구사되기도 한다.

이 특집호는 방언 연구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의미가 있다. 문화라는 관점에서 다른 학문 분야와 통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글들이 소개되어 있어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방언 조사와 연구의 의의(최명옥)’는 소멸 위기에 처한 방언을 조사해야 하는 당위성과 이런 상황에서 방언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짚어 본 글이다. 평생 방언학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의 입장에서 방언 조사자와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방언 조사에서 언어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가 포함되도록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방언은 무형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람직한 방언 조사 방법과 활용 가치(박경래)’에서는 방언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수집된 방언 자료 역시 이에 따라 그 활용 가치가 달라지며, 방언은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방언의 활용 가

치는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데도 방언이 활용되는데, 향토성이 진한 시나 소설 속에 반영된 방언은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방언을 콘텐츠화할 경우 문화 산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 ‘지역 문화와 방언(이기갑)’에서도 필자는 지역 문화를 반영한 전라도 방언의 문화와 방언 표현을 소개하면서 말에 문화가 녹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이상규)’에서는 각 지역 방언들이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등장인물의 개성적인 성격과 향토성, 심미성, 지방성, 현장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색을 다분히 반영한 향토 문학 작품(시, 소설)에서 지역 방언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태도도 방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한 글이다.

《새국어생활》 제6권 1호, 1996년 봄호에 실린 ‘방언과 한국 문학’(김용직)은 방언 전문가가 아닌 문학 전문가 입장에서 문학과 방언의 상관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전 문학 시기부터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와 소설의 두 분야에서 방언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시의 향기’라는 연재물에서 유종호의 ‘시와 방언’(《새국어생활》 제12권 4호 2002년 겨울호와 제13권 1호 2003년 봄호) 및 ‘시와 방언 혹은 구석진 말’(《새국어생활》 제13권 2호 2003년 여름)은 우리 시에 나타난 방언 요소를 문학가의 입장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우리 소설 우리말’이라는 연재물에서는 송하춘의 ‘토속어 지방어에 대하여 -이문구의 소설 언어-(《새국어생활》 제18권 4호, 2008년 겨울)와 ‘서울말 소설 언어에 대한 단상 -『창랑정기』를 중심으로-(《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2009년 봄)라는 연속 2편의 글이 실려 있다. 필자는 지방어로 된 소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충남 보령 출신의 작가가 자신의 소설에서 지방 토속어를 살려 쓰고 있는 것이라든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서울말로 구사하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토속어와 지방어가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 흔적을 찾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삶과 우리말’이라는 연재물에서 김봉국의 ‘방언 속에 깃든 관용적 표현’(《새국어생활》 제20권 3호, 2010년 가을)이 나오는데, 필자는 방언이나 지역어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방언의 관용적 표현 속에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생활적 특성이 녹아 있다고 밝히면서 각 지역 사람들의 문화 생활적인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관용적 표현이 발견된다고 했다.

## 2.5. 지역어 조사 사업의 성과와 방향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립국어원은 지역 방언의 연구와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관심은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새국어생활》 발간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특집호로 다룬 것은 지역 방언이 그만큼 국립국어원의 중요 사업이라는 증거이다. 《새국어생활》 제20권 3호(2010년 가을)에서 특집으로 다룬 ‘지역어 조사 사업의 성과와 방향’은 그간 국립국어원에서 방언의 조사와 보존을 위해 추진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방향과 성과 및 향후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전개 현황(박민규)’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어 조사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전개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45개 지점, 북쪽 지역에서 9개 지점 그리고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 지역 6개 지점(2009년 기준)을 조사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질문 항목 수가 총 3,625개인 ‘지



역어 조사 질문지'(2006)의 발간과 고음질의 보존용 음성 자료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용 음성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음성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글 음성 전사 자료'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국외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는 현재 거주 지역의 언어에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한국의 고향 말을 익힌 10대 이후에 집단 이주하여 정착한 1세대 말인 경우는 고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어 조사·보존의 방법론(박경래)'에서 필자는 지역어 조사의 출발은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어의 하위 분화체인 지역어 조사를 위해 조사 목적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조사 목적이 정해지면 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지역어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은 국어를 잘 보존하는 일인 동시에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일임을 밝히면서 음성과 한글을 동시에 저장하고 보존하여 이후에 전사 자료의 검색과 가공,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이기갑)'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이루어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광역적 방언 조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구술 발화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 개발과 매년 조사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제작한 결과나 12시간 분량의 음성 자료와 4시간 정도 분량의 전사 자료를 확보한 일 등이 그동안의 성과로 소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용 방안도 학문적 측면과 대중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이태영)'에서는 지역어가 한국어 어휘의 보물 창고임을 밝히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와 언어의 관계 및 국어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역어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특집호에는 외국의 지역어 조사와 보전 현황에 대한 글도 수록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어 조사와 보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프랑스의 경우-(송기형)’에서는 프랑스 혁명기 시절부터 방언과 사투리 사용을 근절하고 프랑스어를 강요하는 언어 정책이 19세기부터 지방 언어와 문화 활성화 운동에 힘입어 지역어 조사와 보존을 위한 언어 정책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어를 살려 쓰는 운동은 학교 교육에서만 아니라<sup>2)</sup> 신문, 잡지, 문학서와 방송 매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어의 사전, 문법서, 언어 학습서 편찬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역어 조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2008년 하원에서 결정한 ‘지역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라는 조항을 상원에서 거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어 조사는 지지부진해졌다.

일본 도호쿠 대학 방언 연구 센터 교수인 고바야시 다카시의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전국적인 방언 조사와 기록에 대하여 조감하면서 전국 약 1,000개의 지점에서 500개 항목을 넘는 방언 분포를 확인하는 ‘사라져 가는 일본어 방언의 기록 조사’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조사가 방언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의 목표는 권역별 지역어를 조사하여

2) 1951년에 데익손법이 제정되고 학교에서 지방 언어와 방언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었고, 1969년에 대학입학자격시험(baccalaureat)과 1994년에 중학교 졸업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는데, 지역어 전문 교사를 선발하기도 하고, 1987년에는 중등 교육 교사 자격증 시험에서 지역어 과목이 채택되기도 한다. 2005년 피용법에서 모든 교육 과정에 지역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지역어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된다.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이것을 가지고 지역어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접할 수 있으므로 방언의 보전과 후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지역어 조사 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와는 대비가 된다. 일본은 지역어 조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일본어의 전국적인 분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언어 지도를 제작했다. 1966년에서 1974년 사이에 전 6권으로 된 300장의 ‘일본 언어 지도’(Linguistic Atlas of Japan, LAJ)를 제작했고, 198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전 6권으로 된 350장의 ‘방언 문법 전국 지도’(Grammar Atlas of Japanese Dialects, GAJ)를 발간했다. 또한 조사 지점도 일본은 약 3,200개 지방 자치 단체 중에 각각 2,400개와 800개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분포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과는 목표와 조사 내역에서 차이가 난다.

### 3. 반성과 전망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몇 가지 특집 주제로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국어연구소 시절에 발간된 《국어생활》 5호에 처음으로 방언 연구의 필요성과 방언학의 일반적인 연구의 과정을 소개한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가 있다. 《새국어생활》 시절에는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라는 주제로 경어법에서의 방언 차이를 소개한 내용도 나왔고, ‘방언’이라는 특집 주제로 국어의 방언 구획과 각 지역의 방언 특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는 방언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에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지만, ‘방언과 문화’라는 주제의 특집호가 나오면서 방언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기에 이른

다. 또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어의 조사와 보존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는 특집호는 10년 사업의 완료 3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집호가 아니더라도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과 ‘고향 말을 찾아서’, ‘국어 산책’ 등에서 방언 관련 연재물들이 실리면서 방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사실을 《새국어생활》의 방언 관련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반갑다.

그런데 그동안 나온 《새국어생활》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먼저 비전문가의 지역 방언에 대한 글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특집호나 연재물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필진이 학계의 전문 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방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 방언학자뿐만 아니라 향토 문화 지킴이를 자처하는 비전문가들도 많다. 이 분들은 지역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서 조사하고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유일한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 《새국어생활》이 거듭나려면 향토의 비전문가들에게도 글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아예 향토 방언 지킴이들을 소개하는 특집호를 기획하여 그 분들의 토박이말 사랑을 소개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국민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10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과 난 뒤, 수집된 각 지역 자료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전국 언어 지도를 그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것도 어려운 논문으로 된 자료가 아니라 그 분포를 한 눈으로 쉽게 조감할 수 있는 언어 지도와 같은 자료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감안하면 《새국어생활》에서 사업의 결과를 전국 언어 지도로 제작하고 그 방언형의 분포를 지역 문화나

역사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설명하는 글을 연재물로 올린다면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지역 방언학 연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고 있다. 급격한 시골 인구의 감소와 많은 지역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지역 방언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즈음에 지역 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 왔던 《새국어생활》도 사회 방언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 방언과 관련된 특집호도 마련하여 사회 방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방언과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새국어생활》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이것을 더 확장하여 지역 방언의 문화 산업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특집호로 기획하는 것은 어떨까?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이고, 지역의 문화 코드와 연관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방언의 문화 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새국어생활》 발간 20년 그리고 이어지는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국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나라 국어학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훌륭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한다.



---

##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국어학사의 현재와 미래

이상혁 ·한성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

### I. 들어가며

1984년 5월 10일 문교부 산하의 국어연구소로 출발한 국립국어원은 1990년 1월 3일 문화부로 이전한 후,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 13,163호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18588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계간으로 펴내는 《새국어생활》은 국어 관련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면서 언어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새국어생활》 창간 초기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특집의 형식으로 매년 가을호에 국어 관련 문화 인물을 선정하여 그 인물의 생애, 언어관, 그리고 학문적 업적 등을 소개하고 새롭게 조명한 코너는 국어학사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본 좋은 기획 의도라 할 만하다. 필자 역시 인물

중심의 국어학사에 대한 논의가 전문적이든 대중적이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 특징은 더욱더 반가운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1990년 이전에 국어연구소에서 발행한 《국어생활》에서는<sup>1)</sup> 다루지 않았던 주제라는<sup>2)</sup> 점에서도 기획 의도에 대한 참신성은 빛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국어생활》에서 그동안 다루어 왔던 문화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되돌아보고, 아울러 앞으로 《새국어생활》이 지향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회고와 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II.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에 대한 회고와 제언

### 1. 《새국어생활》 20년 속의 문화 인물 조명 10년

#### 1.1. 《새국어생활》에 소개된 10인의 문화 인물

《새국어생활》 20년 역사에서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은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글날이 10월 9일이기 때문에 계간지의 성격상 가을호 특집으로 문화 인물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소개된 문화 인물은 매년 한 명씩 총 10명이었다. 아래 정리한 표를 보면 문화 인물로 선정되 때마다 조명된 연구자들과 그 소개 내용을 알 수 있다.

- 
- 1) 《국어생활》은 1984년을 시작으로 1990년 23호까지 발행된 《새국어생활》의 전신 잡지이다.
  - 2) 《국어생활》 2호에서 “고 김성배 박사의 생애와 업적”(진태하)을 다룬 글이 있으나,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편집부의 의도적인 기획의 산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연도   | 문화 인물 | 소 개 내 용                                                                                           |
|------|-------|---------------------------------------------------------------------------------------------------|
| 1993 | 최현배   | 외솔 선생의 학문, '우리말본'의 소리갈 씨갈 월갈<br>'한글갈의 훈민정음, 문헌 연구, 언어정책론                                          |
| 1994 | 이희승   | 생애와 학문, 한글 맞춤법, '국어대사전' 편찬, 일석<br>문법의 두 과제, 고전 문학 연구, 절조와 정서의 문<br>법, 조선어학회 사건의 실상, 사회 활동         |
| 1995 | 김윤경   | 조선문자 급 어학사, 문법론, 김윤경 선생의 일생                                                                       |
| 1996 | 정인승   | 생애와 학문, 품사론과 문장론 연구, 조어론, '의<br>문·해설 한글 강화', 사전 편찬                                                |
| 1997 | 장지영   | 생애와 학문, 문법 연구와 우리 어문관, 이두 연구,<br>고전 문학 연구, 민족 운동, 교육 활동                                           |
| 1998 | 정태진   | 생애와 학문, 문법, 방언 연구, 옛말 연구, 조선어학<br>회 사건, 사전 편찬                                                     |
| 1999 | 최세진   | 생애와 업적, <훈몽자회>와 한글 맞춤법, 번역 활동,<br>음운 연구, 저서 해설                                                    |
| 2000 | 유희    | 학문과 생애, '언문지'에 나타난 국어 음운 연구, <물<br>명유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 <물명유고>의 생<br>물학적 연구, <태교신기>, 유희의 傳記 및 柑梨 試券 |
| 2001 | 설총    | 국어, 차자표기법, 고대 삼국의 언어 표기관, 고대의<br>'방언'과 그 유사 지칭어, 신라 유학과 설총의 학문                                    |
| 2002 | 신숙주   | 생애와 학문, 훈민정음, 운서, 문학과 사상, 집현전<br>학자들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새국어생활》의 문화 인물은 크게 고대의 설총, 중세의 신숙주와 최세진, 실학 시대의 유희를 다루었고, 나머지는 20세기에 국어학 활동을 한 연구자인 정태진, 장지영, 정인승, 김윤경, 이희승, 최현배 등의 6명이다. 근대 계몽기의 연구자들은 한 명도 다뤄지지 않았다. 대체로 현대 국어학 연구자에 집중된 국어학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이었다. 전통 국어학 시기(20세기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서양식 학문 체계로서 국어학이 확립되는 20세기 이후의 연구자들 중심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6명은 현대 국어학 1세대에 해당하는 학자들로서 모두 일제 시대에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일제에 빼앗긴 고통의 시대에 국어 운동이 곧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사명감에 자신을 희생한 분들로서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로 당연히 다뤄질 수 있었던 선각자들이었다. 아쉬운 것은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 중에서 해방 이후 북쪽에서 활동한 연구자들이 빠져 있고 주시경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 1.2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 조명의 성과와 한계

문화 인물을 조명하면서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연구자들의 생애와 업적(학문)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무릇 문화 인물에 대한 생애와 그 업적을 다루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새국어생활》에서 특집이라는 코너로 연속적으로 각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소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와 형식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로 각 연구자들의 거시적인 국어관(언어관)을 공통의 목차 내지는 형식으로 갖춰 함께 내용을 구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각 문화 인물에 대한 후손이나 후학의 추모와 에세이, 연보와 연구 목록 등도 일관된 형식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태진, 장지영, 정인승, 이희승, 최현배 등 5명에 대한 추모 및 회고의 글과 연보 및 연구 목록만이 제시돼 있고, 그 형식도 각 문화 인물별로 상이하다. 좀더 일관되었더라면 《새국어생활》을 읽는 일반인들에게도 한층 더 읽는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새국어생활》에서 문화 인물을 조명한 것이 20년 동안에 매년 가을호 특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나, 2002년 가을호 이후에는 문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 국어학 및 국어 정책 관련 다른 주제들도

특집의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편집 방향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최근 10년간의 단절이 아쉬운 대목이다. 《새국어생활》에서 국어학 관련 문화 인물을 조명하는 코너를 기획할 초창기에 특집이 아니라 상설 코너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더 의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학의 학문 발전이 계속되는 한 역대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2. 《새국어생활》 20년을 되돌아보

《국어생활》의 시대를 거쳐 《새국어생활》 20년의 성과 중에서 국어학 관련 문화 인물에 대한 소개는 시의적절한 성과와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반쪽의 성과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국어생활》이 더욱더 발전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2.1. 각 시대별 문화 인물의 조명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이 주로 현대 국어학 연구자에 편중된 양상이었다. 현대 국어학 시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 빈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훈민정음 이전 시대 및 훈민정음 시대와 실학 시대라는 전통적 국어학 시대와 전통과 현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근대 계몽기 시대의 문화 인물에 대한 발굴과 소개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고대와 중세 전기(고려 시대)에 국어학 관련 문화 인물이 극소수이긴 하나, 김대문과 최치원, 최행귀와 같은 학자들은 《새국어생활》 문화 인

물로 조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국어학이 분화되기 전의 연구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품었던 언어 의식 전반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국어학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파의 일부 인물들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 세종대왕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이미 학계에서 차고 넘친다. 그러나 《새국어생활》 일반인 독자를 위한 차원에서 세종대왕은 물론이려니와 훈민정음의 사람들로 알려진 성삼문, 최항, 정인지 등도 단순히 국어학사적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사학계의 시각도 함께 아우르는 편집 방향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이들 역시 훈민정음 시대의 소중한 문화 인물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실학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언어관으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고민을 한 문화 인물들이 꽤 보인다. 《새국어생활》에서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유희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그러나 최석정, 박두세, 박성원, 홍계희, 이사질, 신경준, 홍양호, 황윤석, 정동유, 박경가, 석범, 강위, 이의봉, 정약용 등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 운서 및 문자 음운학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이들은 현대적 의미에서 국어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겠으나, 그 연구자들의 생애, 언어관, 저서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실학 시대 국어학사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인 소개가 향후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새국어생활》에서는 근대 계몽기 연구자에 대한 국어학사적 조명이 전무하다. 근대 계몽기는 문자나 운서 중심의 전통 국어학을 넘어 학문(과학)으로서 국어학의 체계가 확립된 초창기로서 주목을 받는 시기다.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권정선, 이봉운, 지석영,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 주시경과 같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언어관과 학문적 업적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어학사적 접근 역시 향후 《새국어생활》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시경과 같이 국어학에 선구적 역할을 한 연구자를 《새국어생활》에서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의외다. 《새국어생활》이 발행되던 지난 80년대 말 이후 주시경 연구소 《주시경학보》의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있긴 하나, 그것은 엄연히 연구자 중심의 학문 잡지가 지향한 독립된 활동이었다. 연구자와 일반인이 두루 읽고 있는 《새국어생활》에서는 보다 대중적 차원에서 주시경에 대하여 전면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일제 시대 이후 현대 국어학 시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국어학계는 풍성한 학문적 업적이 많이 양산되었다. 서양의 언어학적 학문 전통과 일본의 영향 등을 통해서 문법서와 기타 개인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강매, 남궁억, 이규영, 김두봉, 안확, 박승빈, 권덕규, 이상춘, 양주동, 문세영, 유창선, 방종현, 심의린, 김선기, 이승녕, 김형규, 이인모 등의 다양한 학자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과물을 만들어 낸 이 시기에는 연구자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새국어생활》에서 다룬 이 시대의 문화 인물들은 그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 문화 인물에만 집중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된 연구자들을 모두 다룬 것은 아니다. 이중화, 이극로, 한징, 이윤재, 권승욱, 이석린과 같은 국어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어학자는 아니었지만, 김법린, 이우식, 김양수, 김도연, 이인등도 그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후자의 인물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은 국어학자들을 순차적으로 조명하는 것도 《새국어생활》의 향후 몫이다.

또한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관여한 인물들 중에서 위에서 중복되는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신명균, 이병기, 정인섭과 같은 인물들도 문화 인물로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일제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하고 해방 후에 1차 간행된 《큰사전》 편찬에 관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도 의미 있는

기획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주류는 아니었지만, 박승빈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절에서는 결국 시대별 안배를 통해서 문화 인물에 대하여 《새국어생활》의 적극적 편집 기획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미 조명된 인물들은 이미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은 분들이지만, 필자에게는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개될 필요가 있는 국어학 관련 연구자들을 시대별로 선정해 새롭게 문화 인물로 조명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2.2 주제별 문화 인물의 조명 필요성

시대별 문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소개와 별도로 특정한 문화 인물이 선정돼 소개될 때는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균질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인물에 대한 소개 형식과 내용이 질서 없이 배치되고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새국어생활》에서 문화 인물을 기획하고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항목 형식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구성했으면 한다.

1. 문화 인물의 생애와 업적 개관
2. 문화 인물의 거시적 언어관
3. 문화 인물의 학문적·이론적 업적 분야별 소개
4. 문화 인물의 실천적 활동
5. 문화 인물의 국어학사상의 위치와 학문적 계보
6. 문화 인물에 대한 후손 및 후학의 회고

《새국어생활》은 전문지이면서 대중지이다. 연구자들과 일반인 모두

에게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목표였고 향후 목표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자를 고려한 계간 잡지가 되어야 한다면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도 그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거시적 언어관, 학문적·이론적 업적에 대한 분야별 소개, 국어학사상의 위치와 학문적 계보 등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콘텐츠에 해당한다. 그 반면에 문화 인물에 대한 생애와 업적 개관, 실천적 활동, 후손 및 후학의 회고 등은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이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독자를 고려한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을 좀더 질서 있게 균질화하는 것도 향후 《새국어생활》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3. 남북과 국적을 초월한 문화 인물 조명의 필요성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실천 과제 중의 하나는 남북 언어 통합이다. 그동안 학계뿐만 아니라 국어원 역시 남북 언어 통합 연구 및 실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문화 인물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국어생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북쪽 국어학자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북 통합의 문제에서 언어 분야만큼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쪽의 국어학자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통일 국어학사를 위한 국어원의 적극적 모색을 부탁하고자 한다.

주시경의 제자 김두봉, 조선어학회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초기 국어 음성학 연구에 기여한 이극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정렬모, 시대를 앞서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유웅호, 조선학(국학)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자 《훈민정음 해례본》 최초 번역자 홍기문,

그밖에 김수경, 전용수, 류렬, 김병제 등은 일제 시대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국어학계에 기여한 소중한 문화 인물들이다.

북쪽 정권이 수립되고 남이 아닌 북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남긴 업적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소 비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더라도 그들의 언어관과 실천적 활동 역시 후학이나 일반인들에게 계몽적 측면에서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되고 학문적 교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미래를 위한 국어학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우리는 북쪽에서 국어학 연구에 매진한 그들을 버릴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어학계에 기여한 문화 인물들에 대한 배려도 적극적으로 《새국어생활》에서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근대 계몽기 이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국어학사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서양 선교사들의 초기 문법 의식과 언어관, 그리고 오쿠라 신페이 등을 중심으로 현대 국어학 초기에 영향을 준 일본인들의 학문적 업적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우리 국어학계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제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그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국어학적 견해와 그들의 실체를 균형감 있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문화 인물로서 북쪽 국어학자에 대한 소개와 외국인 국어학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은 우리 국어학계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국어학계의 논의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반인들에게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II. 마치며

《새국어생활》의 독자층을 확대하고, 국어 정책의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문화 인물을 좀더 폭넓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 학문 분야나 마찬가지로 그 분야를 선도하는 주류가 있는가 하면 주류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 비주류는 존재한다. 국어학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국어생활》에서 향후 문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대별, 주제별, 그리고 인물별 문화 인물에 대한 총체적 선정과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대한국문법대계》에서 다루어진 국어학 연구자들에 대한 접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 계몽기 이후 거의 모든 문법가들의 성과를 잘 묶어낸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국어학자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기여한 국문학자, 인문학자, 그리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 외국인, 심지어 재야 국어학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고려와 선택도 문화 인물 소개에서 과감할 필요가 있다.

문화 인물로 바라본 국어학사는 인물의 생애, 학문적 업적, 의식과 실천의 조응 등에 대한 평가 등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새국어생활》은 학문적 치우침 없이 앞으로 그러한 의식과 태도로 많은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새국어생활》이 가야할 길이다.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서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국어학사적 접근은 절반의 성공이다. 나머지 절반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에 주목하여 《새국어생활》 편집진이 채워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국어생활》의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국어학사의 지난 20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었고 노

정의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고영근(1985), 《국어학연구사》, 서울:학연사.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도서출판 길벗.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서울: 一潮閣.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 편(1996), 《역대한국문법대계 총색인》, 서울:탑출판사.

이상혁(2007), 국어학사를 다시 생각함, 《한성어문학》 26집.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 《어문논집》(고려대) 56호.

정광 외(1997), 《국어학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정광(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서울:제이앤씨.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서울:책과함께.

---

## 국어 정보화와 새국어생활

이 건식 ·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

### 1. 서언

이 글은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에서 국어 정보화 분야의 특집 주제로 다룬 내용을 게재 시기 적절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의 국어 생활에서 요구되는 국어 정보화 분야의 과제 일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 정보화의 영역은 대체적으로 국어 사용 정보 환경, 말뭉치 언어학(corpus linguistics), 전산 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 등으로 나뉜다. 컴퓨터를 국어 생활의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는 국어 사용 정보 환경의 영역에 중점을 두어 이 글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학문 연구 영역에 속하는 말뭉치 언어학과 전산 언어학의 영역은 제한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말뭉치 언어학은 언어학자의 직관보다는 언어 자료를 중시하고, 언어 단위의 출현 빈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언어 연구 방법이다(Stefan, 2009:2).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언어 연구 방법론이 심도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전산 언어학의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장치를 일상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예컨대 자연어 처리 컴퓨터 장치의 하나인 기계 번역기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문제도 컴퓨터를 국어 생활의 도구로 활용하는 국어 사용 정보 환경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2. 《새국어생활》을 통해 본 국어 정보화

### 2.1. 특집 주제의 분야와 게재 횟수

《국어생활》은 1984년 10월에 창간호가 나온 이래 1990년까지 23차례 발간되었다. 그리고 《새국어생활》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79차례 발간되었다. 창간호부터 줄곧 매 호마다 특집 주제 하나를 정하고 여러 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잠정적으로 마련한 분류안과 목록<sup>1)</sup>에 따라 특집 주제의 분야별 게재 횟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게재 횟수가 높은 순서로 분야를 제시한다. 다음에 제시한 분야별 게재 횟수는 중복 분류된 특집 주제를 포함한 것이다.<sup>2)</sup>

- 1) 이 글에서 제시한 특집 주제의 분야별 게재 횟수는 국립국어원 담당자가 제공한 분류안과 목록에 기초한 것이다.
- 2)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분류안과 목록은 부분적으로 특집 주제를 중복 분류하고 있다. 어휘/사전 분야에 분류된 '국어 속의 外來語(2)'는 국어 순화 분야, '호칭어(19)'는 국어 교육 분야, '북한의 국어 사전(3-4)'은 국어 정책 분야에도 포함되었다. 국어 교육 분야에 분류된 '어문 정책(20)'은 어문 규범 분야에도 포함되었다. 어휘/사전 분야의 '한국어의 어휘 의미당(17-3)'과 국어 정책 분야의 '21세기 세종 계획의 성과와 전망(19-1)'은 필자가 국어 정보화 분야로 중복 분류하였다. '19' 등의 괄호 속 숫자는 《국어생활》의 19호를, '19-1' 등은 《새국어생활》의 19권 1호를 나타낸다.

<표 1> 특집 주제 분야와 게재 횟수

| 분야                       | 게재 횟수 |
|--------------------------|-------|
| 어휘/사건                    | 21    |
| 국어 정책/법과 제도/남북 언어 통일     | 19    |
| 국어 교육/국어 능력/언어 예절/대우법/문법 | 17    |
| 어문 규범/문자/표기              | 15    |
| 국어학사/문화 인물               | 11    |
| 국어 순화                    | 9     |
| 관련 학문                    | 8     |
| 방언                       | 4     |
| 국어 정보화                   | 8     |
| 합계                       | 108   |

<표 1>에 제시된 9개 분야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면, 국어정보화 분야는 50% 정도만 다루어진 셈이다. 즉 12번 특집으로 다루어져야 하나 6번만 특집으로 다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9개 분야의 중요도는 모두 다를 것이다.

9개 분야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관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를 흔히 디지털 정보 혁명의 시대라 말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어 정보화 분야가 특집 주제로 적게 다루어진 것이다. 디지털 정보 혁명으로 국어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특집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집 주제로 앞으로 다루어야 할 국어 정보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 22. 국어 정보화 특집 내용의 분석과 평가

### 22.1. 《국어생활》 11호(1987년 겨울)의 ‘국어와 컴퓨터’

‘국어와 컴퓨터’를 특집 주제로 하여 6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한글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전용기, 컴퓨터 등의 국내 사용 현황을 소개하면서,

주로 한글 기계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경희의 '컴퓨터와 국어 생활'은 컴퓨터에 구현된 한글 구성 원리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컴퓨터 분야에서만 논의되었던 한글 구성 원리를 국어 분야에 소개한 것이다. 김정수의 '국어 연구와 전산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불'과 같이 모아 쓰지 않고, 자모를 풀어 쓰고 왼쪽으로 45도 기울여 'ㄱ'과 같이 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의 신속한 정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국어 형태 연구에 컴퓨터가 긴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간단하게 논의하였다. 송현의 '내가 쓰는 워드프로세서'는 문학 저작 도구로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은 작가(作家)의 작품 저작 도구로 컴퓨터가 필기 도구를 대신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컴퓨터가 사회 전 분야의 필수 도구로 확산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어 분야에서 컴퓨터 사용을 강조한 이 특집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 2.2.2. 《국어생활》 16호(1989년 봄)의 '컴퓨터와 국어 생활'

'컴퓨터와 국어 생활'을 특집 주제로 하여, 6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옛글자를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국어 연구의 장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金忠肅의 '국어 자료 처리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의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와 洪允杓의 '컴퓨터의 입문에서 활용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문서 편집기 '보석글'<sup>3)</su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옛글자 목록과 옛글자 사용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金忠肅(1989:54)은 옛글자와 구결자를 포함한 1,224자의 '한자/고어 마스터 1.0'을 제안하였다. 이 목록은 한국어전산학회가

3) 문서 편집기 '보석글'은 소위 TGEDIT라 불린 것으로 1980년대 말과 1991년까지 국어 연구계에서 사용되었다. 1992년 HWP 2.0의 출현을 계기로 국어 연구계에서는 문서 편집기로 '보석글'을 사용하지 않고 HWP를 사용했다.

마련한 것으로 국어사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鄭仁祥의 '資料 카드의 컴퓨터 活用 方法에 대하여'와 김병선의 '국어 문헌 자료의 처리 방법'은 국어 자료의 컴퓨터 정보 처리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처리 방법이 종래의 종이 카드에 의한 자료 정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金興圭의 '國文學 研究에 있어서의 컴퓨터 활용'은 문학 작품의 문체에 대한 통계적인 방법의 연구가 컴퓨터로 가능할 것임을 소개하였다.

당시 국어사 연구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관건은 옛 글자의 자유로운 입출력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이 특집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 2.2.3. 《새국어생활》 제9권 1호(1999년 봄)의 '국제 한자의 표준화'

'국제 한자의 표준화'를 특집 주제로 하여 6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당시까지 한·중·일 삼국 간에 한자의 국제 표준화의 논의에서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특집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허성도의 '국학 연구용 상용 한자 제정안', 김홍규의 '국어 생활의 한자 사용 빈도 연구', 남윤진의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등은 컴퓨터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할 한자의 필수 목록에 대한 논의이다. 이재훈의 '국제표준문자코드 제안 한자 자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유니코드 통합 한자(CJK)의 한자 자형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권인한(1999:89)의 '한국 한자음의 표준안 연구'는 유니코드 통합 한자(CJK)에 정의된 27,484자의 한자가 윈도우즈 등과 같은 범용 프로그램에 사용됨에 따라 한국이 제안한 17,184자의 한자음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준석과 이경원의 '한자 異體字典 편찬 연구'는 한국의 문헌 자료에 출현한 異體字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국제 한자의 표준화' 특집은 미래 지향적인 주제가 아니라 과거의 주

제를 다룬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한자의 국제 표준화 문제가 한·중·일 삼국 간에 논의되기 전에 우리 한자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한·중·일 삼국의 유니코드 통합 한자(CJK)는 보다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의되었을 것이다. 소위 CJK BMP로 불리는 한자 목록에는 20,902자의 한자가 정의되었는데, 유니코드 컨소시엄(2007: 411)에 따르면 이 한자 목록은 1992년까지 한·중·일 삼국 간에 합의된 것이다.

#### 2.2.4. 《새국어생활》 제11권 2호(2001년 여름) ‘한국어 자료 정리 방안’

‘한국어 자료 정리 방안’을 특집 주제로 4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런데 이 특집이 국어 정보화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은 아니다. 한국어 자료가 문화 유산임을 강조하고, 그 수집 방법과 정리 방안을 논의한 특집이다. 이호영의 ‘한국어 음성 자료의 수집과 정리’와 홍윤표의 ‘한국어 전자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활용 방안’의 2편만이 국어 정보화와 관계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홍윤표(2001:39-40)의 논의는 전자 자료가 가지는 효용 가치를 중시하여, 전자 자료의 표준화 구축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홍윤표(2001:46-61)의 논의는 전자 자료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의 구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전자 자료의 경우 표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전자 자료가 사회 전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전자 자료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구축된다. 그런데 전자 자료가 표준화된 형태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로 구축된다면, 그 전자 자료는 별도의 수정 없이 다른 분야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홍윤표(2001)의 전자 자료 표준화 제의는 우리가 해결하고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IMF로 인하여 1998년 ‘정보화 근로



사업'이 착수되어 우리 사회에서 전자 자료가 대규모적으로 전산화된 사정을 고려하면, 홍운표(2001)의 전자 자료 구축에 대한 표준화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 2.2.5. 《새국어생활》 제17권 3호(2007년 가을)의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을 특집 주제로 3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위해서 어휘 의미 관계망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특집이다.

윤애선의 '국내의 어휘 의미망의 구축과 활용'은 국내의 어휘 의미망 구축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한 글이다. 옥철영(2007:30-35)의 '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의 개념과 사전 편찬'은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개발한 '사용자 어휘 지능망(User-Word Intelligent Network)'의 구조 체계를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옥철영(2007:36-47)은 '사용자 어휘 지능망'이 사전 편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성현의 '세종 전자 사전의 어휘 의미 부류 체계'는 21세기 세종 계획으로 개발된 세종 전자 사전이 채택한 어휘 의미 부류 체계를 설명한 것이었다.

김삼묘·유기영(2004:129)에 따르면, 4가지 종류의 형식 언어(Formal Language)<sup>4)</sup>를 인식하는 4가지 종류의 컴퓨터 계산 장치(Automata)<sup>5)</sup>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형식 언어를 인식하는 계산 장치는 해당 형식 언어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연

4) 4가지 종류의 형식 언어는 구문 구조 기반 문법(Phrase Structured Grammar), 문맥 민감 문법(Context Sensitive Grammar), 문맥 자유 문법(Context Free Grammar), 정규 문법(Regular Grammar) 등이다.

5) 4가지 종류의 컴퓨터 계산 장치는 TM(Turing Machines), LBA (Linear-Bounded Automata), PDA(Pushdown Automata), FA(Finite State Automata) 등이다.

언어(Natural Language)의 경우에는 현재 그러한 계산 장치가 구현된 사례가 없다. 다만 전산 언어학 분야에서는 기계 번역기 등의 개발 연구를 통해서 형식 언어의 계산 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산 장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컴퓨터 계산 장치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추론하고, 검색하고, 분류하는 일은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점에서 이 특집은 의미 있는 논의를 소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의 독자적 개념 인식이 한국어에 반영된 것이므로 전산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국어학자도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2.6. 《새국어생활》 제19권 1호(2009년 봄)의 ‘21세기 세종 계획의 성과와 전망’

‘21세기 세종 계획의 성과와 전망’을 특집 주제로 5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21세기 세종 계획’의 사업 성과를 총괄(홍윤표:2009), 자료 구축(서상규:2009), 전자사전 개발(이성현:2009), 언어 정보화(박형익:2009) 등의 분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21세기 세종 계획’ 사업을 계승할 후속 사업의 방향(홍종선·남경완:2009)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0년 동안 국어 정보화의 경험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의 국어 정보화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이 특집은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계획되어 착수될 국어 정보화 사업은 이 특집에 기초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표(2007)에 따르면, 10년 동안 추진된 ‘21세기 세종 계획’으로 6억 5천 4백만 어절의 말뭉치 자료가 구축되었고, 205만 단어를 포함한 전자사전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성과물은 국어에 대한 학문 연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여할 것이다. ‘21세기 세종 계획’으로 구축된 말뭉치 자료가 국

어 연구계에 배포되어 활용됨으로써 국어 연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 3. 《새국어생활》을 위한 국어 정보화의 과제

#### 3.1. 국어 사용 정보 환경의 표준화

컴퓨터가 국어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하던 초창기인 1980년대에는 옛 글자, 한자 등의 자유로운 입출력이 컴퓨터 사용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1989년 HWP가 출시되고, 1991년의 HWP 2.0과 1999년의 윈도우즈 2000이 출시되어 유니코드가 일상화되면서, 컴퓨터에서 옛 글자, 한자 등을 자유롭게 입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문자를 종합한 유니코드의 특성이 전산화의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니코드는 세계 각국의 문자 집합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한 문장 부호를 전산 입력할 때 발생한다. 한글맞춤법에서는 문장 부호의 형태와 사용 방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문장 부호에 대응하는 유니코드 값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 가운데뎡점 ‘,’, 여는 소괄호 ‘(’, 닫는 소괄호 ‘)’, 여는 중괄호 ‘{’, 닫는 중괄호 ‘}’, 여는 대괄호 ‘[’, 닫는 대괄호 ‘]’, 빠짐표 ‘□’, 빠짐표 ‘×’ 등의 문장 부호는 상이한 유니코드로 입력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문장에서 흔히 쓰는 가운데뎡점은 라틴 문자 집합의 ‘U+B7(·)’ 코드나 일반 구두점 집합의 ‘U+2024(·)’로 상이하게 입력될 가능성이 있다. 가운데뎡점은 심지어 호환용 한글 자모인 ‘U+318D(·)’로 입력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운데뎡점은 가독성 때문에 ‘U+318D’로 흔히 입력된다. 전산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서 문장 부호의 유니코드 값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니코드 한·중·일 통합 한자 27,484자 중 17,184자

만 한국이 제출한 점이다. 권인한(1999:89)은 17,184자만 한자음을 정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제안한 한자에 대해서 한자음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HWP 2007은 4만여 자의 EXT\_B 한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한자의 대부분은 한자음이 없어 HWP 2007에서는 코드 값으로만 입력할 수 있다. 유니코드 한·중·일 통합 한자 8만여 자 모두에 한자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3.2. 국어 사용 정보 환경의 개선

완성형 옛 글자, 조합형 옛 글자, 구결자 등은 현재 HWP와 MS 워드에서 입력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형 옛 글자와 구결자는 ISO나 유니코드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MS 워드 2000을 출시할 때, 잠정적으로 그러한 문자 집합을 유니코드에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완성형 옛 글자, 조합형 옛 글자, 구결자 등의 문자 집합을 ISO나 유니코드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MS 워드 2000에서 잠정적으로 채택한 완성형 옛 글자, 조합형 옛 글자, 구결자 등의 구성 방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완성형 옛 글자와 구결자는 2바이트로 구성되었고, 조합형 옛 글자는 6바이트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프로그래머들이 완성형 옛 글자, 조합형 옛 글자, 구결자 등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ㄱ, ㄴ, ㄷ, ㄹ, ㅁ’ 등과 같은 훈독 지시 부호를 유니코드에 등록하였고, 중국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등과 같은 산가지[算木] 부호를 유니코드에 등록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각필 구결자료에 나타난 부호 구결자를 유니코드에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부호 구결자에는 역독선 지시선, 단점(·), 선, 쌍점, 눈썹, 느낌

표 등이 있음이 알려졌다. 다음은 장경준(2008:77)에서 가져온 선, 쌍점, 눈썹, 느낌표 등의 형태이다.

<표 > 부호 구결자의 형태

| 선 | 쌍점 | 눈썹 |  | 느낌표 |  |
|---|----|----|--|-----|--|
|   |    |    |  |     |  |

<표 >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부호 구결자를 유니코드에 등록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글 폰트의 형태적 변별성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장실’과 ‘화장실’의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대학의 건물 내에서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장실’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sup>6)</sup>는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부 바탕체’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나 한글 폰트의 형태적 변별성을 담보하는 논의를 심도 있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3. 말뭉치 자료(corpus)의 표준화와 공동 이용

국어 말뭉치 자료(corpus)는 국어 연구의 출발점이다. 말뭉치 자료를 다루는 방법은 각 분야마다 다르지만 전통적 방식의 국어 연구자, 말뭉치 언어학자, 전산 언어학자 모두에게 말뭉치 자료는 학문 연구에 중요한 재

6) 이 사례는 홍윤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료가 된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인 요즘에는 말뭉치 자료가 흔히 전자 자료로 구축되거나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는 말뭉치 전자 자료 구축 방법의 표준화 방안과 구축된 전자 자료의 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자 자료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을 위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구축한 전자 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축된 전자 자료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입력되어 있을 경우, 전자 자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윤표(2001) 이외에는 전자 자료 구축의 표준화 방안을 제기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홍윤표(2001:47-49)가 ‘헤더’로 부르는 메타데이터와 ‘본문 입력 양식’으로 부르는 데이터 구축 방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메타데이터와 데이터의 표준화된 양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구분되어 구축되었다면, 그 형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을 가지지 못하면, 대개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의미론적으로 분별할 수 없도록 구축하여 자료 형식의 변환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국어 연구 말뭉치 자료 구축을 오랫동안 수행한 국내의 경험을 집적하여, 전자 자료 구축의 표준화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윤표(2010:16-24)를 보면, 세종 말뭉치 자료, 국내 연구 기관의 말뭉치 자료, 북한과 중국 연변 지역에서 구축한 말뭉치 자료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세종 말뭉치 자료는 현재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후자의 2개 말뭉치 자료는 그렇지 못하다. 국내 연구 기관 말뭉치 자료의 경우, 우선은 말뭉치 자료를 구성한 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말뭉치 자료를 전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3.4. 자연 언어 처리 연구 성과의 대국민적 소개

자연 언어 처리 연구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 계산 장치로 이해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현재 자연 언어 처리 연구는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계산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연 언어 처리 연구의 성과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준다.

문서 작성기에 탑재된 맞춤법 검사기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서 작성 시 맞춤법 적용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 없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현재에는 그 기계 번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때, 음성으로 검색 문자열을 입력한 결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입력된 문서를 음성 발화로 변환시켜 주는 음성-텍스트 변환기의 변환 결과가 비록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성-텍스트 변환기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맞춤법 검사기, 기계 번역기, 음성 인식기, 음성-텍스트 변환기 등이 상업 제품으로 출시되어, 공공 기관에서 각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의 국어 생활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유용한 자연 언어 처리 도구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결언

《새국어생활》의 기존 국어 정보화 특집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이 글은 국어 사용 정보 환경의 관점에 국한하여 《새국어생활》의

국어 정보화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 집합이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표현되고, 컴퓨터로 생산되는 문서와 데이터가 사회 구성원 간에 무리 없이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컴퓨터로 기록된 우리 언어를 컴퓨터 장치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새 국어 생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어 사용 정보 환경을 심도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국어 정보 처리 능력도 증진시켜야 하고, 자연어 처리를 위한 제반 방법 개발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 권인한(1999), 한국 한자음의 표준안 연구, 《새국어생활》 제9권 1호, 87-100.
- 김병선(1989), 국어 문헌 자료의 처리 방법, 《국어생활》 16호, 109-125.
- 김삼묘·유기영(2005), 《계산모델:오토마타 및 형식언어》, 이한출판사.
- 김성익(1987), 인쇄와 전산 사식, 《국어생활》 11호, 45-49.
- 김정수(1987), 국어 연구와 전산기, 《국어생활》 11호, 38-44.
- 金貞欽(1987), 우리말 機械化의 어제·오늘·來日 《국어생활》 11호, 8-18.
- 金忠肅(1989), 국어 자료 처리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의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국어생활》 16호, 4-60.
- 金興圭(1989), 國文學 研究에 있어서의 컴퓨터 활용 《국어생활》 16호, 126-133.
- 김홍규(1999), 국어 생활의 한자 사용 빈도 연구, 《새국어생활》 제9권 1호, 17-48.
- 남기심(2001),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새국어생활》 제11권 2호, 5-10.



- 남윤진(1999), 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 《새국어생활》 제9권 1호, 49-68.
- 박동순(1987), 한글 컴퓨터화의 현실과 문제점, 《국어생활》 11호, 19-23.
- 박민규(1989), 어휘 조사의 전산 처리, 《국어생활》 16호, 134-147.
- 박형익(2009),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성과와 전망, 《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79-94.
- 서상규(2009), 국어 특수 자료 구축의 성과와 전망, 《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35-58.
- 송현(1987), 내가 쓰는 워드프로세서, 《국어생활》 11호, 50-55.
- 옥철영(2007), 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의 개념과 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제17권 3호, 27-50.
- 유경희(1987), 컴퓨터와 국어 생활, 《국어생활》 11호, 24-37.
- 윤애선(2007), 국내의 어휘 의미망의 구축과 활용, 《새국어생활》 제17권 3호, 5-26.
- 이성현(2007), 세종 전자사전의 어휘 의미 부류 체계, 《새국어생활》 제17권 3호, 51-68.
- 이성현(2009), 세종 전자사전 개발의 성과와 전망, 《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59-78.
- 이재훈(1999), 국제 표준 문자 코드 제안 한자 자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새국어생활》 제9권 1호, 69-86.
- 이준석·이경원(1999), 한자 異體字典 편찬 연구, 《새국어생활》 제9권 1호, 101-120.
- 이호영(2001), 한국어 음성 자료의 수집과 정리, 《새국어생활》 제11권 2호, 11-22.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제21집, 구결학회, 67-98.

- 鄭仁祥(1999), 資料 카드의 컴퓨터 活用 方法에 대하여, 《국어생활》 16호, 82-108.
- 崔明玉(2001),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새국어생활》 제11권 2호, 23-36.
- 허성도(1999), 국학 연구용 상용 한자 제정안, 《새국어생활》 제9권 1호, 5-16.
- 洪允杓(1999), 컴퓨터의 입문에서 활용까지, 《국어생활》 16호, 61-81.
- 홍윤표(2001), 한국어 전자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활용 방안, 《새국어생활》 제11권 2호, 37-76.
- 홍윤표(2009), 21세기 세종 계획 사업 성과 및 과제, 《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5-34.
- 홍윤표(2010), 어문 말뭉치 구축의 회고와 전망, 《차세대 어문 정보학의 전망》, 어문생활사연구소 2010년 제2차 국내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1-30.
- 홍종선·남경완(2009), 국어 정보화 사업의 미래와 전망, 《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95-117.
- Stefan Th. Gries(2009), What is Corpus Linguistic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3, Blackwell Publishing Ltd, 1-17.
- The Unicode Consortium(2007), *The Unicode 5.0 STANDARD*, Pearson Educations Inc.

## 국어 순화 논의의 성과와 한계

박용찬 ·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 시절 포함)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기관지인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에서 국어 순화 관련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국어생활》 제2호(1985. 6.)의 ‘국어 속의 외래어’,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의 ‘국어 순화’,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의 ‘국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언어적 간섭’,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의 ‘외래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의 ‘외래어와 외국어’,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의 ‘국어 순화’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립국어원의 기관지에서 국어 순화가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특집으로 다루어진 사실은 국립국어원이 국어 순화를 국어 정책 분야의 하나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국어 순화 관련 특집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 사용 실태, 국어 순화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는 주로

《국어생활》 제2호와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에서, 외래어 사용 실태는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와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에서, 국어 순화 방안은 《국어생활》 제14호와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에서 다루어졌다. 물론 이들 세 가지 세부 주제가 각각의 특집호에서 엄정하게 구분되어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어생활》 제2호는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뿐만 아니라 외래어 사용 실태를 함께 다루고 있고,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는 외래어 사용 실태뿐만 아니라 국어 순화 방안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국어생활》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국어 순화를 정리하는 이 글에서는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 사용 실태, 국어 순화 방안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에서 국어 순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 및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에 대한 정의는 무엇보다 《국어생활》 제2호(1985, 55-57쪽)에 자세히 빼놓아져 있다. 이에 따르면 외래어(또는 차용어)는 국어가 빌려 쓰고 있는 다른 언어의 단어를 말하며, 고유어와 함께 자국어(國語)를 형성함으로써 국어의 일부를 형성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결국 외래어는 음운, 문법, 의미 등에 걸쳐 국어라는 언어 체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형·국어화된 것을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지극히 원론적인 개념 정의이다.

그러나 실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해 내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전문 분야 종사자들은 외래어 사용 폭이 아주 커서 그 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데 반해, 일반인들은 그것을 외국어로 판단하여 거부감을 크게 느낀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은 국어 사용자의 국어 의식

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세상에 외래어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다. 국어도 마찬가지이다. 국어 속의 외래어는 도입 시기에 따라 ‘근대화 이전의 외래어’와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로 나뉜다. 근대화 이전에는 대개 중국어, 만주어, 몽고어, 범어 등의 외래어가, 근대화 이후에는 서구 제어(특히 영어) 및 일본어의 외래어가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국어 속으로 들어왔다. 이들 가운데 전자는 이미 외국어 의식이 사라져 대부분이 귀화 단계에 있고, 후자는 아직 귀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외국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들 외래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며 동음이의어를 증가시키며 국어에 없는 발음을 가능하게 해 주는 등 국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 고유어를 크게 위축시키며 외래어식 조어법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도 한다. 특히, 국어의 경우 한자어가 그 현상을 현저하게 나타내며, 서구 외래어도 그 수가 급증하여 이미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국어생활》 제2호(1985. 6.)는 처음으로 ‘국어 속의 외래어’를 특집 주제로 다루었다. 먼저 외래어 유입 과정에 대한 논의로서, 남풍현(1985)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받아들인 단어를 차용어 또는 외래어라 규정하고, 고대 국어부터 근대 국어까지 국어 속에 차용된 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차용어는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만주어 등으로부터 차용한 직접 차용어와 한문을 통한 간접 차용어(한자어)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차용어는 대부분 국어에 동화되어 고유어와 다름없이 쓰이고 있고 간접 차용어인 한자어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강신항(1985)은 서구 외래어의 수용 과정을 개화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로 나누어 살핀 후, 우리 국어 안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

는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분야별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외래어에 대하여 고유어와의 조화로운 사용을 강조했는데, 외래어의 남용 원인이 외래어 신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유어를 바탕으로 한 신어의 형성과 사용을 구체적인 외래어 남용 예방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외래어 유입이나 수용 과정이 아닌 외래어 사용상의 문제로서, 박갑천(1985)은 우리가 지나치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 그 표기를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 사실을 외래어 사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어 순화 전담 기구의 설립·상설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유만근(1985)은 외래어는 자국의 언어 체계에 맞게 변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을 통해 살펴보았고, 김종서(1985)는 외래어가 ‘음차’되어 수용되는 경우 외국어와 국어의 음운 및 음운 체계의 차이로 인해 표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1984년 국어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잡지 16종에 대한 동음 이표기의 자료 일부를 제시하였다.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특집 주제로 삼아, 외래어의 개념 및 올바른 수용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다루어 논의를 진전시켰다.

먼저 정희원(2004)은 외래어 개념과 관련된 논의로서, 지금까지 ‘외국어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정의되어 온 ‘외래어’를, 관련 용어인 ‘외국어’ 및 ‘차용어’, ‘귀화어’ 등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외래어’ 개념을 수정하여 재정의하였다. 임홍빈(1997)이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제시한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sup>1)</sup> 확장하여,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기는 하나 동화의 과정을

1) ‘쓰임의 조건’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화의 조건’은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완전히 거치지 못한 것들까지도 ‘외래어’로 보았다. 그리하여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 등은 모두 다 외국어에서 와서 국어 속에 널리 사용되는 말들이고, 이 가운데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이 없이 고유어와 똑같이 취급되는 말은 귀화어로, 일반 언중이 외래어 취급을 인식하는 나머지 말은 모두 외래어로, 외래어 가운데 동화 과정이 완료되어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말은 차용어라 하여 따로 구분하였다. 덧붙여 국어 순화의 대상은 ‘차용어’를 제외한 외래어가 되어야 함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강신항(2004)은 외래어 사용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가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서사(書寫) 어휘의 4/5 이상]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데서 생긴 현상으로 봐서 외래어의 남용은 국어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 밖에도 박창원·김수현(2004)은 외국어가 국어에 수용되어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표기 양상의 변화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이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들온말 적는 법’(1948),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외래어 표기법’(1986) 등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유재원(2004)은 어느 언어고 간에 외래어 차용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므로 외래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특정한 외국 언어[중국어(한자어)→일본어→영어]만을 외래어의 주된 원천으로 삼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외래어를 받아들임에 있어 원천 언어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덧붙여 이렇듯 원천 언어에 대해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올바른 외래어 수용 태도가 아

---

갖춘 부류만이 ‘외래어’로 인정되고 그 밖의 것들은 ‘외국어’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았다.

념을 지적하였다. 전자는 외래어 표기의 문제를, 후자는 외래어 인식 및 태도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 3. 외래어 사용 실태

지금까지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주로 지목된 것은 한자어, 일본어, 서구 외래어 등이다. 이 가운데 일제 강점기를 겪은 우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광복 이후부터 줄곧 일본어가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심각한 남용 현상으로 인해 서구 외래어(특히, 영어계)가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는 국어 순화 대상 가운데 광복 이후부터 줄곧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던 일본어의 사용 실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먼저 김광혜(1995)는 국어 속의 일본어로 고유 일본어, 혼독 한자어, 조사 ‘의’·접미사 ‘-적(的)’, 일제 속어, 일본식 서구 외래어 등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 학술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문명(新文明) 한자어 대부분도 일제 한자어임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국어 속의 일본어는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봤지만 일제 한자어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 청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정수·우인혜(1995)도 국어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서구 외래어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식으로 굴절되고 변조된 것으로 보았다. 정광(1995)도 ‘-고 있다’, ‘-있을 수 있다’, 피동형 표현, 비인칭 대명사나 무정 명사가 주어로 쓰인 표현 등이 모두 일본어 구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관용적 표현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어의 영향(이들 가운데는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매우 많았음)을 적지 않게 받았다고 보았다. 강신항(1995) 또한 우리말에서 쓰



이고 있는 한자어 가운데 일제 한자어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받아들여졌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신각철(1995), 박계양(1995), 허철구(1995), 정 제도(1995) 등은 각각 법률, 신문·방송, 건설·미술 등의 전문 분야 및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일본어의 사용 실태 및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는 최근 들어 심각한 남용 현상으로 인해 국어 순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서구 외래어의 사용 실태와 서구 외래어의 순화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김세중(1998)은 서구 외래어가 20세기 이후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영어 단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송철의(1998)는 서구 외래어(특히, 영어계)가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심지어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외래어를 적절하게 선별(동화 정도 및 사용 빈도 고려)하여 언중들의 언어 감각에 맞는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은경(1998), 이정복(1998), 고성환(1998), 이선영(1998) 등은 각각 방송, 컴퓨터 통신, 신문·잡지, 상호·상표 분야에서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이 외래어의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외래어의 오용과 남용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외래어를 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와 언어’를 특집으로 다룬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에서 김세중(1992), 신인섭(1992), 이주행(1992), 박갑수(1992) 등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광고에서의 외래어 남용 및 표기·발음 혼란 문제를 지적하였고, ‘신문·방송 언어’를 특집으로 다룬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에서 이주행(1995), 박갑수(1995) 등도 부분적으

로 신문 또는 방송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규일(1995)은 신문과 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들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 국어 순화 방안

구체적인 순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어생활》 제14호(1998, 가을)는 ‘국어 순화’를 특집 주제로 다루었다. 특히, 《국어생활》 제14호는 ‘국어 순화의 바른 길’(59-79쪽)이라는 제목 하에 국어연구소 연구원들의 좌담 결과를 실어, 국어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향후 추진할 국어 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좌담에서는 먼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찾았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는 차츰 쉬운 고유어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한자어는 순화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새말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고유어나 방언에서 살려 쓸 수 있는 말들을 발굴해 내야 하고, 학술 용어의 번역을 한자어로만 하려 하지 말고 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순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국어 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어 순화 운동을 총괄할 상설 기관의 설립과, 연구 기관과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고 보았다.

《국어생활》 제14호에 실린 각 논문들도 한자어, 일본어, 서구 외래어를 어떻게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순화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그 가운데 김민수(1998)는 한자어는 귀화한 지 너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쓰여서 순화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일본어는 원칙적으로 일제 잔재의 일소(一掃)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화해야 할 대상이고, 서구 외래어는 우리나라처럼 언어 순화 정책을 표방한

나라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 추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덧붙여 서구 외래어의 경우, 어쭙잖게 외국어 발음을 흉내 내려는 원음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항(1988)은 순화 대상어로서의 한자어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는 일상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 및 전문 분야에서 한자어가 널리 쓰이는 있는 실정을 밝히고, 이들 한자어를 모두 다 고유어로 바꾸기 힘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순수한 우리말을 갖고 닦아서 이름답게 발전시키려면 어색하고 인위적인 새말을 만들어 대중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어, 외래어 대체 순화어, 행정 용어 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써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어에 대해서는 송민(1988)이 일본어의 유입을 조선 시대(1876년 이전), 개화 시대(1876년~1910년), 식민지 시대(1910년~1945년), 광복 시대(1945년 이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그 간섭이 형태·통사 층위로부터 언어 의식에 이르기까지 국어의 모든 층위에 걸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어 속의 일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구어나 비어 또는 전문어 속에 나타나는 고유 일본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어에 나타나는 일본식 한자어와 관용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구 외래어에 대해서는 서정수(1988)가 서구 외래어의 사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날 상호나 상품 등에서의 외국말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이러한 외국말의 범람 자체가 우리말의 발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것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만을 숭상하고 받드는 사교 방식을 체질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황찬호(1988)도 외국어가 국어 구문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어 본래의 구문이 크게 손상을 입고 있음을 밝혔다. ‘…에 의해+피동’ 표현, ‘…

것'·'……합' 등의 명사화, 과거 완료 시제의 '-었었-', 인칭 대명사 '그녀', '……에로의'·'……에의' 등의 상용 표현 등이 모두 다 외래 구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찬호(1995)는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의 '영한 사전의 번역어 문제'를 통해서도 영한(英韓) 사전 대부분이 영일(英日) 사전을 중역(重譯)한 것이고, 이로 인해 영한 사전의 번역어 및 번역 표현의 상당수가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고 외래 구문(일본어 및 영어)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국어생활》 제14호(1998 가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순화 운동'이라는 소제목 아래 유만근(1998), 홍승오(1998), 이병찬(1998), 서재만(1998), 강인선(1998) 등을 통해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일본 등의 언어 순화 정책 및 운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국어 순화'라는 소제목 아래 유종호(1998), 정연찬(1998), 김계곤(1998), 정운중(1998), 이강로(1998) 등 국어 순화에 대한 어문학 관련 종사자 6명의 견해도 실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다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어생활》 제14호(1998 가을)와 마찬가지로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도 '국어 순화'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 《국어생활》 제14호가 순화의 대상 및 방법을 다루는 내용의 글들을 실은 데 반해,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는 기존의 국어 순화 방식과 논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내용의 글들을 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유재원(2005)은 잡스러운 것을 몰아내고 순수성을 가진 고운 말, 바른말, 쉬운 말을 쓰도록 하는 것이 국어 순화라고 보는 기존의 국어 순화 정의가 다분히 계몽주의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국어 순화는 정확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낱말, 표현, 어법 등을 정리하고 좋은 본보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말이 풍부한 표현력과 상상력으로 깊은 사고를 담

을 수 있도록 우리말을 다듬는 일이 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국어 순화는 단순히 낱말 다듬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과 세련된 느낌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의 도구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희수(2005)는 기존의 논의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국어 순화의 정당성, 합목적성,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국어 순화를 ‘언어 순결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언어 순화가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어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에서 국어 순화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우리의 국어 순화가 그 정당성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제시할 뿐 객관적인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화 전략이 지극히 영성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성(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재인식함으로써 순화 전략의 영성함을 극복하고 미진한 근대화와의 완성·불완전한 공통성의 성취·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의 구현 등에서 국어 순화의 합목적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용찬(2005)도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의 개념,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정책이 ‘순수 우리말 쓰기’ 그것도 주로 어휘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음을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의 국어 순화는 ‘순수 우리말 쓰기’ 차원이 아닌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2004년 7월 5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킨 가운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net](http://www.malteon.net))’를 통하여 다듬은 말을 소개하고, 국어 순화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 참여(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남호(2005)는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가 비속어 쓰지 않기와 순수 우리말 즐겨 쓰기에 치중해 왔으며, 국어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어 순화

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단순히 단어 차원에서 어떤 단어 나 표현을 쓰지 말자고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장과 글을 바르게 쓰는 것이 국어 발전을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임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 말의 풍요(광범위하고 섬세한 국어의 표현력)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자 어근 일본어근 외래어·외국어근 그것을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에서는 우리의 국어 순화 방식과 논의에 얼마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과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도 소개했다. 먼저 김석향(2005)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은 단순히 외래어와 한자어를 우리말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발음을 바꾸거나 억양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중의 가치관 정립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과정과 그것에 대한 세터민의 평가도 살펴보았는데 세터민들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즉, 세터민들은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단순히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의 범위를 넘어 정서적, 감성적 반응까지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송기형(2005)은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 가운데, 특히 1960년대부터 영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언어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프랑스가 1970년대 초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전문 용어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전문 용어 위원회)를 소개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 전문 용어 위원회를 통해 개발된 전문 용어나 신어가 통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현재 프랑스의 전문 용어 개발 장치가 영어에 대한 프랑스어의 열세를 만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는 이전의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처럼 ‘국어 순화에 대하여’(102-120쪽)라는 제목 하에 어문학 관련 종사자 10명의 좌담 결과를 실었는데, 기존의 국어 순화 정책의 문제점과 종합적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국립국어원에서 전개할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좌담에서는 국어 순화가 국민의 호응을 더 널리 받기 위해서는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국어 순화의 목적과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은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통하여 꾸준히 국어 순화를 특집 주제로 다루어 왔다. 이는 그만큼 국어 순화를 주요한 국어 정책 분야의 하나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 외래어 사용 실태, 국어 순화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국어연구소 시절 이래로 꾸준히 다루어진 주제임에도 논의의 한계가 얼마간 드러난다. 그렇다면 필자가 생각하는 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외래어 개념 및 외래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외래어와 외국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원론적인 외래어 개념 정의 및 재정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무의미하거나 무익하다. 적어도 국어 순화 대상어로서의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올바른 국어 순화를 위해서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외래어 사정과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외래어 개념’에 대한 논의는 ‘외래어 사정 원칙’과 ‘외래어 사정의 세부 기준’을 담은 ‘외래어 규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유재원(2004)과 같은 외래어 수용 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거의 없었다. 미래 지향적인 외래어 수용 태도란 어떤 것인지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어 순화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언어 의식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거나 현 시점에서 고유어 또는 외래어에 대한 언어 의식 정도를 철저히 조사·분석하는 연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외래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외래어의 남용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외래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지나칠 정도로 경도돼 있다. 그렇다 보니 외래어 사용 실태에 대한 논의가 여럿 있었으나 결론은 모두 다 판에 박은 듯이 똑같았다. 그러나 외래어 사용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남호(200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말의 풍요(광범위하고 섬세한 국어의 표현력)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외래어의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외래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 그것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외래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래어의 올바른 사용이란 올바른 표기와 발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에 이르러서야 국어 순화 목적과 방식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함목적성과 전략 수립)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국어 순화를 너무나 당연시해 왔으나, 올바른 국어 순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나 국어 순화를 국어 정책학의 한 분야로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국어 순화의 목적이나 필요성과 방식이나 전략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순화 대상어의 선정과 순화어 생성 및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국어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를 국어학적으로 분석·연구한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국어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의 분석도 필요하거나와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의 논의는 향후 어떻게 적절하게 국어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거나 순화어를 생성·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85),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제2호 (1985. 6.), 23-36.
- 강신항(1988), 한자어 사용의 현실과 처리 문제,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4-24.
- 강신항(1995),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27-60.
- 강신항(2004),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2004. 여름), 23-57.
- 강인선(1988), 일본의 국어 순화 정책,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08-114.
- 고성 환(1998), 신문·잡지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81-101.
- 김계곤(1988), 국어 순화의 방향 잡기,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19-120.
- 김광해(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3-26.
-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 현실과 전망,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4-13.
- 김석향(2005),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59-74.
- 김세중(1992), 신문 광고와 외래어,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 여름), 50-64.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1998, 여름), 5-19.
- 김중서(1985), 외래어 동어 이표기: 자료(영어), 《국어생활》 제2호 (1985, 6.), 58-64.
- 김하수(2005), 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19-35.
- 남종현(1985), 국어 속의 차용어—고대 국어에서 근대 국어까지—, 《국어생활》 제2호(1985, 6.), 6-22.
- 박갑수(1992), 방송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97-114.
- 박갑수(1995), 언어 규범으로서의 방송 어휘,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 89-115.
- 박갑천(1985),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수용 태도, 《국어생활》 제2호(1985, 6.), 37-42.
- 박용찬(2005),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37-57.
- 박재양(1995), 신문·방송 분야에 쓰인 일본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26-147.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59-102.
- 서재만(1988), 터키의 문자 개혁과 언어 순화,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02-107.
- 서정수(1988), 서구 외래말의 문제,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35-44.
- 서정수·우인혜(1995),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 어휘,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61-86.

- 송기형(2005), 프랑스의 자국어 순화—전문 용어 개발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75-88.
- 송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25-34.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21-40.
- 신각철(1995),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08-125.
- 신인섭(1992), 우리나라 광고 언어의 변천사,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2-19.
- 유만근(1985), 다른 나라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 《국어생활》 제2호(1985 6), 44-54.
- 유만근(1988), 외래어의 영어화와 방송의 표준 발음 수범,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80-86.
- 유재원(2004),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 태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103-116.
- 유재원(2005),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7-17.
- 유종호(1988), 거래말 되찾기와 바른 말 쓰기,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15-117.
- 이강로(1988),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24-125.
- 이남호(2005), 국어 순화는 풍요가 되어야 한다,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89-101.
- 이병찬(1988), 독일의 국어 순화 운동,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94-101.
- 이선영(1988), 상호·상표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

- 2호(1998, 여름), 103-119.
- 이영택(1988), 국어 순화는 방송 매체가 앞장서야,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20-122.
- 이은경(1998), 방송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1998, 여름), 41-59.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61-79.
- 이주행(1992), 신문·잡지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81-96.
- 이주행(1995), 신문 기사의 문장,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 25-43.
- 임흥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 정 광(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87-107.
- 정연찬(1988), 국어의 개발, 그 끊임없는 노력이,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17-118.
- 정운중(1988), 국어 순화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국어생활》 제14호 (1988, 가을), 122-124.
- 정재도(1995), 생활 속에 남은 일본 말,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1995, 여름), 176-207.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2004, 여름), 5-22.
- 최규일(1995),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 116-162.
-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허철구(1995), 건설·미술 분야의 일본어와 대응 양상,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48-175.
- 홍승오(1988), 불어의 순화 운동,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87-93.
- 황찬호(1988), 외국어식 구문,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45-58.
- 황찬호(1995), 영한 사전의 번역어 문제,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1995 여름), 226-232.



---

## 국어 생활을 위한 새국어생활

홍윤표 ·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어연구소의 《국어생활》 6년(1985년-1990년, 모두 23호), 국립국어연구원과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 20년(1991년-2010년, 모두 80호)의 역사를 가진 간행물이 쉽없이 발간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립국어원으로서 크게 축하를 받을 만하다. 진실로 축하를 드린다.

《새국어생활》이 간행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국어생활에 바란다’는 내용을 특집으로 꾸민다고 한다. 《새국어생활》 간행 이후 20년 동안 처음으로 독자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새국어생활》에 바라는 것은 이처럼 독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세를 계속 가져 달라는 것이다. 독자나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간행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기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다양한 국어 관심자들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새국어생활》의 편집진들은 이 책의 성격 규정에 꽤나 고민할 것이다. 학회지와 같은 전문 학술지를 지향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양지’를 지향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쉽표 마침표’와 같은 온라인 소식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어학 연구자들이나 언론 종사자 등 국어에 관심이 있는 몇몇 전문가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여 편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 중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학계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종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도외시당하고, 일반인들에게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는 어렵고 흥미가 없어서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래서 그 성격이나 방향이 어정쩡한 간행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연구 기관의 성격과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립국어원의 성격을 동시에 합쳐 놓은 탓일 것이다. 이제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새국어생활》에 요구하고 싶다.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국어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은 이제 전문 학술지로 넘겨 버리든가 아니면 가칭 ‘국어 연구’라는 연구지를 간행하고, 책 제목처럼 ‘국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국어의 경어법’ 등의 특집은 전문 학술지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든 국어 생활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국어 생활에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국어 생활은 국민들의 국어 생활이기 때문이다.

‘국어’는 국어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어는 우리 모든 생활과 문화에 연관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국어에 대해 일가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장 정확한 지식인 양 주장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한다. 국어학자들이 경청해야 할 내용도 무척 많지만, 어떤 때에는 국어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보일 때가 더 많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말과 글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해서 알리지 못한 국어학자들의 책임인 것을 국어학자들은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국어생활》 편집진들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는 국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만약에 마땅한 필자를 찾지 못하겠으면, 국어학자들에게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어학자가 본 한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지금까지 한글 디자인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한글 디자인 연구자들의 왜곡이나 오류(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등)들을 바로 잡아 주고 올바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국어학자가 본 한글 서예와 한글 서예가가 본 한글 서예’란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한글 서예를 발전시켜 국어 생활을 윤곽하게 하고, 또한 국어학자들의 한글 서예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데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만담가들이 보는 국어 발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만담가와와의 접촉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국어학자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어나 방언을 인식하는 만담가들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 입력 방식의 표준화’ 문제를 보는 이공계 전문가들의 인식은 그들과 30분만 앉아서 대화를 해 보아도 국어학자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상품을 선전하는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왜 한결같이 동일하며(그들이 어쩌면 ‘음성 성형 수술’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너무 심한 비유일까?), 또 각 서비스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국어 생활이 어떠한 현상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어 생활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이 《새국어생활》에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새국어생활》에 바라는 중요한 희망이다.

《새국어생활》에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으나 한정된 지면 때문에

여기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국어 생활은 국어 교육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 생활에 대한 국어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이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에 국어 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면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의 국어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된 업무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국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더 나아가서 국립국어원의 책임이다.

## 이론적 연구의 응용화에 노력해야

고형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어학전문 국제학술지 「형태론」 편집 고문)

《새국어생활》이 창간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에 출간된 《새국어생활》을 보면 우리말의 발전은 물론, 우리말의 연구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새국어생활》과 비슷한 성격의 어문 관련 정기 간행물이 몇 종류 있다. 한글학회에서 내는 《한글새소식》과 한국어문회에서 내는 《語文生活》이 그것이다. 둘 다 모두 월간이다. 전자는 한글 전용에다 주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발전에 관련된 소품 형식의 글을 실는 것이 보통이고 후자는 한글과 한자가 국어의 두 날개라는 관점에서 국한문 혼용의 편집 방향을 취하고 있다. 두 단체가 지금까지와 같이 서로 견제하며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의 정책을 밀고 나가면 우리말의 발전을 다그칠 수 있는 두 축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는 《새국어생활》은 계간이다. 이 책은 원래 1984년에 발족한 학술원의 임의 기구였던 국어연구소의 기관지 《국어생활》의 뒤를 이어 나왔다. 《새국어생활》과 비슷한 성격의 계간지로 북한에서 나오는 《문화어학습》이 있다. 이 책은 북한이 문화어 운동을 일으키던 1968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이 책은 1950년대 후

반에 간행된 대중 상대의 어문 생활 월간지 《말과 글》을 복간한 셈이다. 사실 이 책의 간행으로 북한의 언어 생활이 개선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한자어 기원의 어려운 말을 순화하고 외래어를 순화한 이면에는 앞의 두 책이 크게 기여해 왔다.

위의 몇 가지 월간 및 계간 어문 정기 간행물을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새국어생활》의 편집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말과 우리글의 발전에 관련된 글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는 수 년 전에 북한의 《문법화학습》을 분석하여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지식의 응용화》(한국문화사, 2008)란 책자를 낸 일이 있다.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우리말을 연구하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언어·문자 생활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말 문법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이 발표되면 그 필자가 직접 《문화어학습》에 기고하여 언어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의 응용적 측면을 탐색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년에 우리말에 대한 연구가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국어생활》 편집자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개선과 우리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적을 가려 내어 당사자에게 응용적 측면을 드러내는 방향의 기고를 요청할 수 있다. 21세기는 매체의 통합이 확산되고 이론과 응용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 새국어생활의 20주년을 축하하며

박준언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이중언어학회 회장

국립국어원이 계간으로 발행하는 《새국어생활》이 올해로 발간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산이 두 번 변하는 오랜 세월 동안 《새국어생활》에 게재된 수많은 글들이 우리말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데 초석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어 사용 환경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영어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국어만 사용하는 단일 언어 사용 국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국어생활》은 이러한 국어 사용 환경의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말을 더욱더 다듬고 보존하는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머지않은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 이질감 해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외적으로는 700만 제외동포들의 한글 교육뿐 아니라,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늘날 영어가 누리는 지구촌 언어로서의 위상을 우리 한국어가 이어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덧 청년의 나이를 맞이한 《새국어생활》의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세계사의 중심으로 응비하는 한민족 언어 생활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 우리말 속의 일본말, 모두 청산할 수 있을까?

이한섭 ·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해방 이후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말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각종 단체들의 한글 운동,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찾기’(1948),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생긴 뒤에는 국어 순화 운동 등 각계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교육계, 언론계, 학계 등도 이에 동참한 것은 물론이다. 1948년 1월 문교부에서 발행한 ‘우리말 도로찾기’의 머리말을 보면 지금 읽어도 비장감을 느끼게 한다.

중략—— 우리말이 있는데도 구태여 일본말을 쓰는 일이 많았고, 또 우리에게 없던 말을 일어로 쓸에도, 한자로 쓴 말은 잡다운 한자어가 아니요, 왜식의 한자어로서 그 말의 가진 바 뜻이 한자의 본뜻과는 아주 달라진 것이 많다. 이제 우리는 왜정에 더럽힌 자취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우리 겨레의 특색을 다시 살리어 천만 년에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려 하는 이때에 우선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우리말에서부터 씻어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말 도로찾기'에서 쓰지 말자고 했던 '아이즈(合図)'나 '아타루(省たる)', '아이테(相手)', '앗싸리' 등을 지금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말에서 일본말이 거의 사라졌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일까?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아니올시다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방 후 60년 이상 노력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일본말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주로 일본어 발음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하여 한자 표기어(지금은 물론 한글로 쓰지만)는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든다. '우리말 도로찾기'에서 그렇게 쓰지 말자고 했던 건물(建物), 내역(内譯), 입구(入口), 할인(割引) 등 순수 일본말은 아직도 요지부동하고 비용(費用)이나 신고(申告), 신청(申請), 출하(出荷) 등은 쓰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불편할 정도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한다. 일본어에서 온 말을 내보내려 해도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쓴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이들 일본어 어휘가 익숙해 있어서 버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이미 우리말 어휘 체계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개화기 이후 한국어에 들어온 일본어 어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어휘는 물론 철학, 물리학, 공학, 의학 등 전문 용어까지 생각하면 그 수가 수만 단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일본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묻고 싶다. 우리말에 들어온 중국어 어휘와 서양어는 어찌할 것이냐고, 외국에서 온 말을 모두 추방하고 우리말만으로 이 복잡 다양한 오늘날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대통령, 국회, 의회, 입법, 사법, 행정, 경찰이라는 단어는 물론 각종 법률 용어와 주요 개념들이 일본어에서 온 것이 많은데 이들을 다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보아도 뻔하다. 아마도 이들을 대체할 어휘를 새로 만들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다.

차제에 제안 드리고 싶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정비할 것은 계속 정비해 나가되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것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왔던 이제는 우리말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외국말을 내쫓고 새로운 말을 만드는 노력 대신 현재 쓰고 있는 말을 더 잘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박현우 · KBS한국어진흥원장

얼마 전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 PD선배와 우리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 선배의 외동딸은 중학생 때 혼자 유학을 떠나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 방학 때, 오랜 만에 만난 부녀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됐네.’라는 아빠의 표현에

‘아빠,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야?’라며 딸이 반문을 했다고 한다.

(주소? 경상도 낙동강 오리알? 뭐야!) 그 선배는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웬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위해 본인의 월급을 고스란히 쏟아 부으며 올인(?)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짧은 회한이었을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 언어 사용과 관련해 우려가 많다. 물론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른들의 문제가 크긴 하겠지만 말이다. 필수 어휘력의 부족,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 존댓말의 실종, 무감각한 욕설의 사용, 심한 축약어의 생산 등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유행일 뿐이라며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언어의 다양성과 풍부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국어 문화

이다. 국어 문화는 한국 사람이면 알아야 될 국어와 관련된 교양 상식에 대한 이해이다. ‘낙동강 오리알은 어느 지역인가’와 같은 세대간, 계층간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언어 간극,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제는 대학생과 중고생, 또한 그들과 초등생들 사이에서도 특유 언어문화가 생기면서 서로 틈새를 느낀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언어는 미래 한국어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알게끔 지속적인 전달이 있어야 한다. 어휘는 변화할 수 있어도 말에 담긴 기본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어디에서 또는 그 자리에서 국어 문화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일은 언어 문화에 대한 근간을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정보와 정신이 청소년들에게 항상 산소같이 공급돼야 할 것이다. 오래 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찾아봐서 보충해 주고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한다.

20년의 경험이 쌓인 《새국어생활》은 한국어의 기본부터 꼼꼼하게 살펴, 다양한 미래 국어 환경을 예측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건강한 국어가 살아 숨 쉬게 하는 주치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 국어 생활의 든든한 길라잡이

이경우 · 한국어문기자협회장 · 서울신문 기자

어렵다. 흔히 이런 말을 듣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를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는 편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싶은 속내도 있다.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저항도 들어 있다. 그래서 《새국어생활》은 대중화를 내세웠다. 지난 20년 동안 국어 관련 지식을 대중화해 국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사회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어와 관련한 언론 매체의 기사,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먼 듯하다. 최근 한 조사에서 대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우리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맞춤법’이 가장 어렵다고 했고, ‘적절한 어휘’, ‘어법 및 문법’, ‘정확한 발음’, ‘높임말’ 순으로 응답했다.

대중화의 핵심은 소통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언론 매체나 시중에 나온 책들이 잘못 전달하는 정보도 짚어 줬으면 좋겠다. 그릇된 정보는 국어를 혼란스럽게 한다.

사전은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작 사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전을 중요한 참고 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면 경직된 국어를  
놓게 된다. 사전이 제대로 이해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한다.

《새국어생활》은 그동안 국어에 관해 가장 신뢰 있고 앞서가는 정보  
를 제공해 왔다. 전문가와 일반의 다리 구실을 했다. 국어를 통해 삶을 이  
야기했고, 우리 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창간 20  
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부에 와 닿고 깊  
이 있는 특집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정보가 많아서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에 진실을 보는 지혜를 주는 책으로 거듭나길

안용순 ·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 서울 배명중학교 국어 교사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일종의 습관이 되었다. 거기에다 인터넷 전용선이 빨라져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오늘 터진 일도 서너 시간만 지나면 그것과 관련된 글을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한 세상이 아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 소식을 아는데 품이 많이 들어서 무심했다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알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각이 무디어져서 심드렁하기 쉽다. 한 가지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려 하다가도 곧바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않으면 떠밀려 오는 정보에 휩쓸려 떠밀려 가기 십상이다.

정보가 많아서 현실을 파악하는 데 헛갈리는 시대가 되어 정보를 가려 보는 밝은 눈이 필요한 때이다. 학생들이 밝은 눈을 뜨게 하는 데 교육이 맡은 역할이 무척 크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능력을 기르는 언어 교육이 한자리를 분명히 차지한다. 우리는 언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꿰뚫고 본질을 읽어내는 인식 능력

을 얻기를 바란다. 그러나 뜻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알아서 바뀌지는 않는 법이다.

《새국어생활》은 우리 주변의 언어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고 짚어주는 친절함이 부족하다. 학생의 경우 기초부터 탄탄히 어휘 교육을 받아야 올바른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올바른 개념을 정리해야 정확한 논리로 세상의 이치를 보는 밝은 눈도 갖게 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토박이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기 예보를 보아도 비의 종류는 강한 비와 약한 비로 한정된다. 원래 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많다.<sup>1)</sup>

안개비 -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비, 이슬비 - 안개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보슬비 - 알갱이가 보슬보슬 끊어지며 내리는 비, 부슬비 - 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가루비 - 가루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잔비 - 가늘고 잘게 내리는 비, 실비 - 실처럼 가늘게, 길게 금을 그으며 내리는 비, 가랑비 - 보슬비와 이슬비, 싹락비 - 싹래기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날비 - 돛날(돛자리를 칠 때 날실로 쓰는 노끈)처럼 가늘게 비끼며 내리는 비, 밧비 - 빗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비, 작달비 - 굵고 세차게 퍼붓는 비, 장대비 - 장대처럼 굵은 빗줄기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 주룩비 - 주룩주룩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 달구비 - 달구(땅을 다지는 데 쓰이는 쇧덩이나 둥근 나무 토막)로 깃누르듯 거세게 내리는 비, 채찍비 - 굵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 여우비 -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 소나기 -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먼지쟁 - 먼지나 잠재물 정도로 아주 조금 내리는 비, 개부심 - 장마로 홍수가 진 후에 한동안 멎었다가 다시 내려, 진흙을 씻어 내는 비, 바람비 -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비, 도둑비 - 예기치 않게 밤에 몰래 살짝 내린 비, 누리

1) 김수업 선생님이 쓰신 「우리말은 서럽다」(나라말)를 보고 비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에 대한 명칭을 좀더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고 비에 대한 우리말을 정리해 보았다.

- 우박 낫은비 - 오래 오래 오는 비, 관비 - 차가운 비, 밤비 - 밤에 내리는 비, 억수 -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학창 시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바로 구름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다. '구름은 높이에 따라 크게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으로 나뉘는데 상층운은 권운, 권층운, 권적운으로 세분화됩니다.' 구름의 이름을 익히는 데도 탄식이 절로 나온다. '구름은 높이에 따라 크게 윗구름, 중간구름, 아랫구름으로 나뉘는데 윗구름은 새털구름, 털층구름, 비늘구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생각도 잘 난다.

새로운 시대의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다양한 감성, 문화적 소양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고 많은 정보 중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많아지는 시대에 진정한 정보를 찾아 낼 수 있게 해주는 쉬운 설명 또한 필요한 시기이다. 학생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길러주고 배울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것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러줌으로써 평생을 주체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새국어생활》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자기화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창 시절에 하는 공부는 많지만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말 공부(언어 교육, 어휘 교육)'이다. 말 공부를 잘하면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생각하는 힘이 커지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중을 두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파악하며, 통찰력 있는 눈으로 갈피를 잡아주는 지혜를 주고, 우리말이 나아가야 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알찬 통로가 될 것이다.



---

## 새국어생활 커뮤니티를 만들자

엄진섭 · 커뮤니케이션북스 사업부장

---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새국어생활》을 비롯하여 유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국립국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어엿한 성인이고, 본격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때이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지금 사회 변화 속도는 엄청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대중화로 공유와 반응이 실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색어 1위가 되고 리트윗 몇 번이면 거의 전 국민이 아는 데 1시간이나 걸릴까요.

국어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담보할 수 있는 영역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 인터넷은 프로 같은 아마추어를 엄청나게 양산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말을 사용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국어 생활이나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새국어생활》에 ‘현장의 소리’가 좀더 반영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전문가 독자의 투고를 활성화하고, 준전문가들의 참여와 교류를 확대시

켰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은 ‘생활’ 현장과 ‘교육’ 현장, ‘미디어’ 현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 파워 블로거, 논술 학원 교사, 방송 작가, 집필가, PD, 편집자, 다양한 매체의 기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국어생활》에 준전문가들의 생생하고 치열한 이야기를 담아 주신다면? 그 준전문가들의 국어 생활 커뮤니티가 국어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커뮤니티의 활동 결과물이 《새국어생활》에 소개된다면?

국어 활용과 생활에 대한 비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참여와 교류가 《새국어생활》을 중심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국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훨씬 더 많이 국어원을 언급하고 추천하며, 훨씬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편집 디자인이 중요하다

김철호 ·유토피아 대표

발간 20주년을 맞아 여러 사람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듣자는 것이 원고 청탁의 취지일 테고, 그 의견들 중에는 당연히 ‘쓴소리’도 있어야 할 듯하여, 그 동안 필자가 품고 있었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려 한다.

고백하건대, 필자는 《새국어생활》의 ‘열혈 독자’는 아니다. 또 고백하건대, 필자는 철마다 한 권씩 나를 찾아오는 이 간행물을 들춰 본 기억이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살기에 바빴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필자는 이 간행물의 표지를 처음 보는 순간 안쪽을 들춰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다. 우선 《새국어생활》이라는 표제의 글씨부터가 전혀 새롭지 않았다. 이런 제목에 이런 내용을 간직한 간행물은 우리나라에(나아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다. 그러한 내용상의 고유성은 글자의 꼴, 이른바 ‘타이포그래피’라는 형식상의 고유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제목 글씨에서부터 표지의 ‘차례’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태의연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본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본문, 표 제목, 사진 설명 등 각기 자격이 다른 요소들에 할당한 글자꼴들 사이에 뚜렷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글자의 좌우 폭을 줄이는 타

이포그래피 정책도 필연성을 찾지 못하겠다. 각 쪽 하단의 페이지 숫자 옆에 들어가는 면주(面注)는 꼭지의 첫 페이지에는 넣지 않는 것이 편집의 상식임에도(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새국어생활》이 안고 있는 편집 디자인상의 결함은 일일이 꼬집기 힘들 정도다.

어렵게 얻어낸 귀한 필자들의 옥고들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담아낸다면 내용과 형식이 상응하는 아름다운 잡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부디 《새국어생활》에 편집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 바란다.

(이야기 중에 거칠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더라도 헤라해 주시기 바란다. 짧은 지면을 통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려니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 두 가지 접근성에 대하여

곽숙영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 독자 접근성

일반인 중에 《새국어생활》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국어학 전공자 중에도 이 잡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꽤 있다. 《새국어생활》이 학술 잡지라면 독자 접근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필요한 논문을 찾아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국어생활》은 국민, 적어도 국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이다. 따라서 《새국어생활》은 독자를 기다리는 잡지가 아니라 독자를 찾아가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새국어생활》의 전문을 공개하고, 새로운 호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기는 하지만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새국어생활》은 현재의 독자에만 만족할 것인가, 새로운 독자를 늘리기를 원하는가. 후자라면 조금 더 독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필자 접근성

지금까지 《새국어생활》에 실린 글을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다. 《새국어생활》은 국어 전문가가 전문적인 내용을 되도록 쉽게 쓴 글을 담는 잡지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는 필자가 전적으

로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새국어생활》의 필자 접근성은 독자 접근성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이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반인에게 더 친숙한 잡지가 되고자 한다면 필자의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는 것은 어떨까. 일 년에 네 번 발간되는 《새국어생활》에는 각 호마다 특집 주제가 있다. 주제가 정해지면 학력,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글을 모집하여 실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 주는 새국어생활이 되어야

김수경 ·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학문적 목적으로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어’는 한국인 모두에게 공기와 같이 일상적인 존재이다. 일반인의 언어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인 《새국어생활》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새국어생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문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기 쉽지 않을까?

《새국어생활》은 ‘특집’을 통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글을 싣고, 고정란에서는 ‘어원 탐구’, ‘우리 소설, 우리말’, ‘국어 산책’ 등 일반인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싣고 있어 평소 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부담 없이 즐겨 본다. 그런데 가끔 너무 전문적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는 《새국어생활》의 실제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다.

《새국어생활》은 생활 언어와 관련된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알려서 국민의 언어 생활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어원의 기관지이다. 그런데 국어학 학술지의 성격이 강해 국어학을 전공했거나 국어원 누리집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새국어생활》을 알고 있다면 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인 중 《새국어생활》을 부담 없이 읽고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지금까지 《새국어생활》은 알찬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새국어생활》을 통해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국어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며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즐겁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새국어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 김 희 진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국어 생활의 길잡이로서 자리매김한 《새국어생활》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20년 전 《새국어생활》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당시 초대 편집장을 맡아 《새국어생활》의 초창기를 지켰던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은 이런 질문에 가장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난 2007년 국어진흥부장을 끝으로 20년 넘게 근무했던 국립국어원을 정년퇴직했던 김희진 이사장은 퇴직 이후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약칭 '국생연')을 설립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진흥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희진 이사장을 만나 20년 전 태어난 《새국어생활》과 초창기 국립국어원(당시는 국립국어연구원)의 모습,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국어 사랑에 대해 들어 본다.

답변자: 김희진(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질문자: 정승욱(작가)

때: 2010년 11월 18일

곳: 국어생활연구원(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정승욱: 지난 한글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김희진:** 고맙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상을 받으니 기뻐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이 특히 더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공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보잘 것 없는 일을 좋게 평가해 주신 일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상을, 퇴임한 후 뒷방 늙은이로 지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복돋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장승옥:** 근황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김희진:** 정년 퇴임을 하던 2007년에 ‘국어생활연구원’을 만들었고,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6월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으로 세종문화회관 지하 공간(세종 이야기)에서 '생활 속 점자와 수화'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교사, 문장사,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어 강의도 했고, 교과서를 개발하고 감수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각종 출제지나 공모작을 검토하거나 심사하기도 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승욱:** '국어생활연구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김학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생연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 '국민'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보급 관련 취업 프로그램 개발, 국어 표현·표기 등의 감수, (한)국어 진흥 정책과 제도 연구,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연구, 남북한 언어의 통합을 위한 연구와 교류 촉진, 국가와 지방 정부 및 어문 관련 단체의 위탁 사업 수행 등을 하려고 합니다.

**정승욱:** 10여 년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1996년에 국어연구소에 들어가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김학진:**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로 14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건국대 공과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미국에 1년간 교환 교수로 가게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떠나면서 저도 교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간 것이 제가 국어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미국에서

들어왔고, 그다음 해에 숙명여대 국문과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미론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신 이을환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운 좋게도 국어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해가 1986년입니다. 당시 소장이셨던 김형규 선생님은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방언론을 강의하셨던 분입니다.

**장승욱:** 초창기 국어연구소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지금의 국립국어원과 비교하면 ‘금석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김혁진:** 국어연구소의 전 직원이 한가족 같았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소장 한 명, 연구원 일곱 명, 조사원 여섯 명, 서무과장 한 명, 사무원 두 명, 모두 열일곱 명입니다. 사무실 공간도 국어원의 기획관리과의 방 정도나 될까요? 당시 수행한 사업은 총 아홉 가지였습니다. ‘교육용 기초 어휘 선정’, ‘한자 및 한자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북한 언어 연구’, 《국어생활》 발간, ‘표준어 개정안 연구 검토’, ‘맞춤법 개정안 연구 검토’, ‘외래어 표기법 용례집 검토’, ‘연구 논문집 발간’입니다. 빈도나 순위를 낼 때에도 수작업으로 작성한 카드를 일일이 헤아리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지금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이었지요.

**장승욱:**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립국어원이 되기까지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일을 맡아서 하셨는지요?

**김혁진:** 국어연구소나 국립국어원의 설립 목적이 국어 생활의 향상과 국어 정책 개발의 토대 마련이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맡았지

요, 제가 한 일을 어문 연구 활동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실태 연구로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문 연구 활동으로는 국어연구소 시절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개정을 마무리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71년부터 시작하여 17년간 이어 오며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쳤던 사업이었습니다. 국어원 시절에는, 어문 규정을 집대성하여 보급한 일, 교과서 문장과 법률 문장을 검토하고 다듬는 일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어 실태 연구로는 국어문화학교를 세워 운영한 일, 《새국어생활》과 《새국어소식》을 발간한 일,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감수하고 공무원 선발 고시 출제와 윤문에 참여한 일, 소외 계층 언어, 특히 점자와 수화를 표준화한 일,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한자, 기본 외래어, 남북한 외래어, 약어, 연설문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훈민정음 서문가’를 공모하여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는 위 사업 외에 한국어 교육, 순화 등의 연구 사업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도 하였습니다.

**정승욱:**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김학진:** 국어문화학교 운영입니다. 1991년 첫째는 사전 연구를 했고 이듬해인 1992년 5월에 문을 열었는데 홍보 전단지도 제가 직접 만들어 외관원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나눠 주었습니다. 여기 제1기 전단지가 있군요.

... 이번 봄에 국립국어연구원 문화학교를 엽니다. 바른 국어 생활을 원하시면 ‘국어반’에, 번역에 관해 알고 싶으시면 ‘번역반’에 오십시오. 작으나마 오붓한 배움터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국어반 말고도 번역반, 청소년반도 있었음.-편집자 주]

정성을 기울인 만큼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할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1999년 12월 1일 자 ○○ 신문 자료)

‘바른 우리말 강좌 공무원에 호평-국립국어연구원 문화학교 수강 신청 26 대 1 경쟁 기록’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38기 40명 모집에 1,045명이 지원했지요. 마감 후, 수료증은 안 주어도 좋으니 청강생으로라도 듣게 해 달라며 간청한 수십 명도 닷새간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학구열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였습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국어문화학교 운영’ 1년 사업비가 500만원 남짓했습니다. 수강생이 늘어나면 소요 경비도 늘어나는데 아무리 한 푼 한 푼을 아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충을 기획예산처 담당자에게 호소하며, 외진 곳이든 외딴 섬이든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열겠으니 운영비를 중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000퍼센트가 넘는 6,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중액이었습니다. 국어문화학교는 이 같은 기획예산처의 아낌없는 지원과 후임 사업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여, 제237기를 이번 주에 마치는 현재, 공무원과 교사의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의 첫 손가락에 꼽힌다고 합니다. 생면부지의 저를 믿고 거액의 나랏돈을 선뜻 지원해주신 성일홍 님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정승욱:** 《새국어생활》이 창간 20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새국어생활》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김학진:** 1991년 1월 국립국어연구원 간판을 달고 나서 업무를 나눌 때 제게 온 일입니다. ‘한자 사용 실태 조사’와 ‘국어문화학교 운영’도 동시에 맡았습니다. 국어연구소 시절엔 당시 기관지인 《국어생활》에 어문 규정과 관련한 원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 발간의 주목적은 학계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풀어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정승욱:** 그러니까 초대 편집장이셨던 건가요?

**김학전:** 편집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특집을 비롯한 내용과 필자를 정하면 그에 따라 집필을 의뢰하여 원고를 받고 이를 정리합니다. 인쇄에 넘겨 서너 차례에 걸쳐 교정·교열을 하고 편집도 합니다. 책이 나온 후에도 발송하는 일까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또 집필을 의뢰한다고 원고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필자에게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결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전자 우편을 활용하는 때가 아니어서 직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이용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200자 원고지에 직접 쓴 원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쇄도 활판 식자(植字)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번거로움도 많았습니다.

**정승욱:** 고생하신 만큼 재미있는 일화나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학전:** 재미있는 일도 많았죠. 《새국어생활》 창간호 특집이 ‘한국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재미있고 읽을 맛이 나야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편집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명학 하는 분에게 원고를 청탁해서 특집에 실었습니다. 김백만 님의 ‘성명학에 대한 인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죽거나 실패했고, 또 저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살거나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책이 배포된 후 필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쇄도해서 한동안 진땀을 뻘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 없었지만, 그분은 아주 신 났을 겁니다.

제가 칭찬받은 일도 생각합니다. 1991년 겨울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동양 삼국의 언어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논문집을 제가 맡아서 만들었는데, 토론자로 참석하신 성백인 선생님께서 '책을 볼 때 오자(誤字)를 찾아내는 게 내 취미인데 이번 논문집에서는 오자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책이 나올 때까지 눈물이 날 만큼 고생했는데, 그 칭찬 한마디에 고생했다는 느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장승욱:** 《새국어생활》이 20년 동안 발간되면서 거둔 성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혁진:** 우선 국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깊이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국민의 언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여러 분야에 걸쳐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퇴임 1년을 앞두고 특집을 포함해 《새국어생활》의 목차를 전부 뽑아서 분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골고루 다뤘더군요. 언어 정책과 제도, (한)국어 교육과 국어 능력, 단어/사전 편찬학, 문자와 표기, 방언과 사회 언어학에 걸쳐 있습니다. 그 밖에 미디어, 언어와 문학, 국어학 인물, 한국어 교육자도 꾸준히 다루었습니다. 한글의 기계화나 자판 문제처럼 다른 데서는 다루기 어려운 것까지 다뤘다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책이 60권이 넘으니 주제별로 모아 단행본을 낼 정도가 된 분야도 여럿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제가 엮어 국립국어원 이름으로 낸 '방언 이야기'라는 책이 한 예가 됩니다.

또 하나 부수적인 성과가 있다면 기관 이름을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설립 초기에는 전화 건 사람이 '거기 국어학 연구소죠?', '거기 한글 연구소죠?' 하는 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스무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국립국어원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새국어생활》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장승옥:** 거쳐 가신 필진도 대단한 분들이셨지요?

**김혁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자 대부분이 국어학계의 태두, 중진이셨지요. 그렇지만 필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더라도 한 번 쓰신 분께는 최소 1년 동안은 다시 원고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예외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통계를 내면 어떤 분은 여러 차례 쓰고 어떤 분은 한두 번만 쓰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많은 분이 《새국어생활》에 글이 실리는 것을 영광스러워했습니다. 필자로 선정해 줘서 고맙다며 제게 인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승옥:** 저는 때번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앞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혁진:** (웃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장승옥:** 《새국어생활》이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혁진:** 《새국어생활》이 국어학의 학적 성과를 알기 쉽게 국민에게 알리는 구실을 하는 건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 후임들 덕택에 완성도가 높아지고 폭도 넓어졌습니다. ‘언어 정책과 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국어 진흥 정책과 제도’, ‘어문 규정 정책’ 등을 많이 다루었는데 최근에는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2006 봄호)’,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2008 봄호)’,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2010 여름호)’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하면서 외연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07 여름호)’같이 미래상을 다룬 특집도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점점 큰 그림을 그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승옥:** 제목이 말해 주는 것처럼 《새국어생활》이 다루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국어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어 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제대로 된 ‘국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김학전:** ‘국어 생활의 문제’하면 우선 어떤 말이 맞느냐를 두고 그 언저리에서 맴도는 예를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국어가 국어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 인간 간에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게 하는 말의 몫을 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어 생활’의 ‘생활’을 저는 ‘생기와 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가 생기와 활기를 띠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늘 싱싱하게 펄떡펄떡 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어는 인간 생활을 다사롭게 하고 창조적인 생활로 연결해 주는 다리 구실을 해야 합니다. 소통과 나눔의 도구로서의 몫을 다하면서 문화 창조와 문화 창달로 이끌 때 말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국어생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승옥:**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학전:** 제 여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법인을 허가해 준 대한민국 정부가 제게 보내 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아낌없이 도와준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지요.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어 표현·표기 등의 감

수 등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생연 지부(支部) 열다섯 곳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보폭에 맞추어 국어 사용 능력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문화 창조 역량을 키우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장승옥:** 끝으로 《새국어생활》 창간 20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혁진:** 《새국어생활》은 기관지이면서도 국어 생활의 길잡이 구실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대단했고, 지금도 역시 인기가 높아서, 각 계각층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일을 해왔고, 앞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아주 우람하고 믿음직한 거목으로 키워 주신 《새국어생활》의 관계자와 독자 여러 분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장승옥:** 선생님께는 정든 고향과 같을 텐데, 국립국어원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혁진:** 국어연구소,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은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왔고, 기관장에서부터 중간 관리자, 일반 연구원, 행정직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 뭉뚱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언어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를 12월에 연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이집트, 독일,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소개하고 '21세기의 언어, 문화와 창조의 힘', '세계의 언어정책의 성과와 기준'이라는 기조연설도 한다고 합

니다. 이렇듯 한국의 언어 정책을 세계의 언어 정책 흐름 속에서 수립하고 펼쳐 나가며 때로는 시대를 앞서 뛰어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개원 20주년, 축하합니다. 개원 200주년, 2,000주년은 우리 후손들이 맞이하겠지요.

**장승옥:**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어생활연구원과 더불어 앞으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될 일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학진:** 고맙습니다.

## 방종현 선생님의 강의에 얽힌 이야기 - 부산 피난 시절의 추억 -

이기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방종현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6·25 전쟁으로 내려갔던 피난지 부산이 떠오르는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피난살이였습니다. 그 때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때에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이 생긴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문을 아주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충심(衷心)에서 우려한 결정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이 일에 방종현 선생님께서 많은 힘을 쓰셨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대학의 부학장(副學長)이 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시연합대학을 누구보다도 반가워했습니다. 비록 천막 교실에서나마 전공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때 교양 과목과 외국어 강의를 주로 들었습니다. 국어학에 관한 것은 이희승 선생님의 「국어학 개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국어학 연구에 대한 제 호기심이 한껏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져서 제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시연합대학의 개강 날짜가 다가오자 강의 시간에 맞추

어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얻은 일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를 태우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웠던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는 윗사람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분을 제 인생의 은인(恩人)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일생을 되돌아 보면 요긴한 고비마다 이와 같은 은인들이 있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해 저는 방중현 선생님과 이승녕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강의가 다 국어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어의 역사를 외궂으로 파고든 것이 그 때에 두 강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방중현 선생님의 강의는, 「계림유사」(雞林類事) 연구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강의 제목은 「국어학 강독」이었는데 「계림유사」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저에게 역사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계림유사」의 저자와 편찬 연대, 그리고 지금 볼 수 있는 그 여러 판본(板本)들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니 「설부」(說郛)니 하는 제 귀에 선 중국 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림유사」의 올바른 해독(解讀)을 위해서는 그때(12세기)의 중국의 한자음(漢字音)을 연구해야 한다며 「광운」(廣韻), 「중원음운」(中原音韻)과 같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운서(韻書)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강의 내내 저는 어느 아득한 광야에 버려진 미아(迷兒)와 같은 느낌, 어느 신비경(神秘境)을 외로이 헤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를 수 없는 경지에 선생님이 서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강의들 중에서 제 기억에 똑똑히 남아 있는 것은 위의 「계림유사」 강의뿐입니다. 이 강의의 인상(印象)이 얼

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기억을 더욱 뚜렷하게 한 것이 학기말 리포트였습니다. 「계림유사」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때에는 제 주변에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동래에서 한참 떨어진 마을 농가의 작은 별채에 들어 있던 터라, 책상도 책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내의 한 서점에서 일본 학자 하야유허(河野六郎 Kano Rokurō)의 저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방언학 시고」(朝鮮方言學試攷 - 銜語考, 1945)였습니다. 이 책이 마침 「계림유사」의 한 항목인 剪刀匣( scissors box)을 주제로 한 연구여서 이 책에 관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후일 일본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 이 책은 1945년 4월에 서울에서 간행된 탓으로, 해방 뒤 우리나라 서점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귀중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책이 난처했던 저를 살려 준 셈입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니 그저 독후감(讀後感) 비슷한 것을 썼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그 책의 내용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리포트를 쓴 뒤, 그 일을 잊을 만했을 때 저는 선생님을 우연히 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책에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을 읽으셨고 제가 하는 공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선생님의 이 짙막한 말씀이 제 학문 연구의 지표(指標)가 되었습니다. 앞선 학자들의 연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외문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主題)에 대한 연구라도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새로이 모으고 분석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해야 참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제 관심은 자연히 '가위'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야(河野)의 연구는, 간단히 요약하면, 「계림유사」의 '割子蓋'(剪刀)와 「훈몽자회」(訓蒙字會)의 'ㄱ애'(剪)와 경상 방언의 '가시개'를 비교함으로써 이 단어의 고형(古形)을 ka-si-gai로 재구하고 '割子蓋'는 바로 이 고형을 표기한 것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훈몽자회」 이전의 문헌에 이 단어의 표기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두시언해」(杜詩諺解)의 '즈애'를 찾았습니다. 방 선생님의 「고어재료사전」(古語材料辭典)에서였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수복 이후에도 저는 중세 어라면 우선 이 책을 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전이 없었다면 '즈애'와의 만남은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즈'이라고 종성(終聲)을 쓰고 '애'를 쓴 것이 제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중세어에서 '불취'(根)의 '불'과 같이 '르'를 종성으로 쓴 것은 뒷 음절의 '취'가 자음 'ㅎ'으로 시작했기 때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즈애'의 경우 '애'의 'ㅇ'이 자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성의 'ㅇ'은 영(zero)이라는 고정 관념을 켤 필요가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즈애'의 'ㅇ'에 대한 이런 고민은 학문 연구에 있어서 사고(思考)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뒤 「월인석보」(月印釋譜)에서 동사 어간 '즈-'(剪 자르다)을 발견함으로써 '즈애'의 고형(古形)은 '즈개'였으며 동사 '즈-'에 도구를 나타내는 접미사 '개'가 붙어서 된 말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즈애'에 관한 탐구는 제 학문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방종현 선생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방종현 선생님께서는 방언학(方言學) 강의도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한 옛 문헌에 나오는 '방언'(方言)의 예들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언 수집의 실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의 부산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언제나 방언 조사를 할 만큼 안



정된 시대가 올는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국어 연구에 있어서 방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제주도 방언이 매우 특이하다는 사실도, 선생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8년 뒤에 이 섬에 제가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의 방언 연구가 매우 부족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 전,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학자가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이 일본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학자의 방언 연구는 넉넉한 연구비와 경찰의 극진한 보호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언학이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교수였던 소창진평(小倉進平 Ogura Shinpei)에 의해서 개척된 데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하야(河野)의 연구는 소창의 연구를 뒤이은 것이었습니다.

방종현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방언 연구에 뜻을 두고 이를 실행하고자 애쓴 예외적 존재였습니다. 남한의 몇 곳을 찾아 방언과 속담을 수집했고 멀리 제주도 남쪽의 가파도(加波島)에까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방언 조사를 한 것은 「조선일보(朝鮮日報)」의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문사의 문화 사업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도 마지못해 조금은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종현 선생님의 생애에서 조선일보사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응모(方應謨) 사장이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사를 맡은 뒤에 이분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방종현 선생님은 이 신문사의 문화 사업을 도맡아, 앞길에 암담한 민족 문화의 역명(餘命)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끊어지게 되었고 일제 말기에는

뜻있는 몇 분과 함께 서울 근교의 창동(倉洞)에 은거하며 국어사 연구에 몰두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어재료사전」은 이곳에서 옛 문헌을 읽으시며 작성한 어휘 카드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학년에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서거(逝去)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52년도 저물어갈 무렵(11월 18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이 조서(早逝)보다 더 비통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해방 뒤에 낸 몇 저서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임시의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술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마디 괴성을 지르셨다 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온몸의 뼈마디가 쭈셔움을 느끼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는 하잘것없는 것들이라고 했으나, 그 업적은 어느 하나 국어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어재료사전」이 그렇고 「훈민정음통사」(訓民正音通史, 1948)가 그렇고 잡지와 신문에 실린 논문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국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옛 문헌들은 그 규모가 한 학자의 장서(藏書)로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서는 일사문고(一簣文庫)로 남아 후학들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걸으신 길을 다시 걷고, 하신 일을 이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난 50년대 말에 제주도 방언 조사를 갔을 때의 제 소원의 하나는 선생님께서 국어학자로는 처음으로 가서 조사하신 가파도에 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침 태풍이 불어 그 섬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곳이 '해옥'(海獄)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속담대사전」(俗談

大辭典)을 옆에 두고, 속담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이 책에 없는 것이면 공책에 적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것이 제 「속담사전」(1962)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책입니다.

선생님의 학문을 조금이라도 뒤따르려는 생각에서 일본에 갈 때마다 우리나라 책을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 고서(古書)가 그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이 탐사의 과정에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셨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초간본(初刊本)과 개간본(改刊本)으로 추정되는 책들과 만났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선생님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創制)에 관해서 글을 몇 편 썼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다시 읽었고 새삼스럽게 선생님의 훈민정음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느끼곤 했습니다. 제 훈민정음 연구가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 명이 다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괴기(怪奇)’와 공포의 취미화

김지영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 교수

### 1.

‘괴기’라고 하면 요괴, 귀신, 유령, 괴물 등이 떠오른다. 어둡고 야수적인 본성과 마술 공포가 지배하는 세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는 잔혹하고 초자연적이며 음울하고 신비한 세계가 오늘날 ‘괴기’라는 말이 떠올리게 하는 세계이다. ‘괴기’는 또한 아직 과학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옛날 옛적 야만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의 여과를 거치지 못한 잔인하고 충동적인 본성, ‘나’와 세계 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애니미즘적인 사고, 점액·타액·오물과 같이 미끈거리고 혐오스런 액체들을 뒤집어쓴 미성숙한 존재, 사무치는 원한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초자연적 힘으로 산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요괴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계 등등, ‘괴기’가 연상시키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 너머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들과 마술적인 힘들이다.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합리하고 야만적인 세계를 연상시키는 단어로서, ‘괴기’는 신화·전설과 같은 과거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한국에서 ‘괴기’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괴기’가 근대화 이전의 시대를 연상시키고, 과학과 이성의 저편에서 잔혹하고 마술적이며 비윤리적인 세계를 지칭하는 흥미 기호가 된 것은 적어도 식민지 중반이 지나서부터였다.

## 2.

한자 ‘괴(怪)’와 ‘기(奇)’의 결합으로 구성된 ‘괴기(怪奇)’, ‘기괴(奇怪)’는 전통 사회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말이었다. ‘특이한 것(異), 행동이나 마음·모양 등이 비상함, 정상(常)에 반대되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사물’ 등을 가리키는 ‘怪’와 ‘다르다, 괴이하다, 뛰어나다, 들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奇’가 어울려 쓰인 것은 두 글자가 공통적으로 ‘常’,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것을 지시하면서도 ‘怪’와 ‘奇’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었다. ‘奇’가 정상적인 것을 이탈하면서도 뛰어난 것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과 달리, ‘怪’는 ‘미혹됨’, ‘의심스러운 것’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기괴’와 ‘괴기’는 모두 ‘드물고 특이하여 일반적이지 않다’는 서술적 의미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함께 쓰였고, 실제로 ‘괴기’보다는 순서를 뒤바꾼 ‘기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 중세의 문헌에서 ‘기괴’와 ‘괴기’는 도리에 맞지 않는 사악한 사물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지만, 더 많이 사용된 것은 서화(書畵)의 빼어남이나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일이었다.

- ① 그 글자 모양은 기괴(奇怪)하여 신인(神人)이 쓴 것 같고 사람의 필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 ② 기괴(奇怪)한 산천초목이 제각각 모양을 자랑하는구나.
- ③ 소동파의 시 가운데 괴기(怪奇)한 시구가 있는데, (….) 그것은 暗潮生渚

落月挂柳라는 기막힌 구절이었다.

- ④ 경신년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고 세상이 매우 험난하여 **기괴**한 무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앞의 세 사례들에서 ‘奇怪’, ‘怪奇’는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빠어난 서화(書畵)와 문장, 수목 산천의 아름다운 양태를 형용하는 데 동원되어 월등함, 탁월함, 훌륭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활용된다. ④의 예와 같이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지만, 중세 문헌에서 ‘기괴/괴기’가 사용된 비중은 ①, ②, ③과 같은 긍정적인 사례가 더 많다. 즉 오늘날의 쓰임새와 달리, 전통 사회에서는 ‘기괴’나 ‘괴기’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양쪽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이런 성격은 개화기에도 계승되었다. 개화기 문헌에는 ‘기괴’의 사례가 압도적인데, ‘석벽이 괴괴하다’, ‘형상이 괴괴하다’, ‘괴괴괴괴한 물건’ 등 범상치 않은 모양을 형용하거나, ‘괴괴하고 흉악한 것’, ‘음담패설 괴괴스’와 같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곤 했다.

### 3.

1920년대부터 1930년경까지 문헌에서도 ‘기괴’는 ‘괴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괴상하다, 교묘하다, 부당하다, 허황되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묘사가 불가능할 만큼 멋지다, 묘사스럽다, 미신적이다, 주술적이다 등등 실로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奇’와 ‘怪’가 가리켰던 비정상성 혹은 차이와 다름의 의미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와 같이 사물의 형상을 탁월하고 훌륭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며, 오늘날의 ‘기괴/괴기’와 같은 ‘추하다, 무섭다’라는 의미도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1920년대에 ‘奇’와 ‘怪’가 가리켰던 비정상성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던 것은 반어적인

형식의 사회 비판들이었다.

1920년대 신문, 잡지에서 ‘기괴’라는 어휘는 미신이나 잘못된 인습, 일제의 불합리한 처우와 행위를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 ① 「기괴한 악마, 허황한 미신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조선일보》, 1924.11.29),
- ② 「아프리카 토인의 기괴한 비 비는 祭 -소를 잡고 쇠뿔치를 내두르며 구름을 불러 비오기를 빈다고」(《조선일보》, 1925.4.22),
- ③ 「정신병자를 발바닥으로 치료? -성신 받았다는 여인이 기괴망측한 미신 행위」(《조선일보》, 1926.5.18)
- ④ 「農監의 기괴한 수단 - (...) 돈 받고 소작권 줌」(《조선일보》, 1923.6.30)
- ⑤ 「조선인의 승선을 거절 -불량 선인은 위험하다고, 기괴한 선장의 거절 이유」(《조선일보》, 1926.9.30)

이처럼 ‘기괴’가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계몽주의라는 시대 정신으로 인해 ‘奇’와 ‘怪’가 가리켰던 비정상성이 불합리성과 자주 연계되어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기괴’의 함축적 의미가 불합리한 인습과 태도, 현상들을 꼬집는 데 활용되면서 비판적인 문장에 자주 쓰이게 된 것이다. 비판의 시선이 미치는 영역은 대단히 넓었다. 조혼, 노예 근성, 허례허식과 같이 허위적인 전통 인습이 ‘기괴망측’한 것으로 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왜복과 계다의 유행 등 왜색 짙은 문화가 날카롭게 꼬집혔고, 음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풍속, 음풍농월하는 태도 등 생활상의 골불견들도 일일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1920년대 중반까지 ‘기괴’는 생활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몽의 수사였으며, 식민지 기관과 관료의 부당한 처사나 행위를



비관함으로써, 합리적 질서의 확립을 촉구하는 반어적 어휘였다.

#### 4

1920년대까지 ‘기괴’, ‘괴기’가 동의어로 쓰이면서도 ‘기괴’의 용례가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면, 1930년대에는 ‘괴기’라는 말의 용례가 확연하게 증가한다. 1929~1930년을 기점으로 ‘괴기’, ‘괴담’과 같이 ‘怪’를 앞세우는 어휘의 용례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1933년 사이에 상당한 유행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괴기’, ‘괴담’의 새로운 유행은 그로테스크(줄여서 ‘그로’로 주로 쓰였다)라는 외래어의 유입과 관련이 깊다.

1930년대 조선의 잡지에는 ‘에로-그로’라는 용어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는데, 이는 동시대 일본 대중문화의 유행 현상을 그대로 직수입한 것에 가깝다. 1930년대 일본의 미디어는 ‘에로-그로-넌센스’를 하나의 선전 문구로 내세웠다. 이 통속적 표어는 세계적 공황과 군국주의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시 대중들의 관심을 비정치적인 데로 이끌려 했던 일본의 국가 전략에 의해 지지되었고, 실제로 좌절감이 팽배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기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의 ‘에로-그로’ 문화는 통속적인 대중 잡지를 통해 조선 사회에서도 재빨리 유입된다. 1930년대 초반 대중 잡지에서는 ‘에로-그로’ 혹은 ‘에로-그로-넌센스’가 숙어처럼 붙어다니며, 자극을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자 하는 통속적인 문화의 침단을 선도했다. 이 때 ‘괴기’라는 용어는 ‘그로/그로테스크’의 번역어로 새롭게 부각된다.

그로 : 그로테스크(영어의 Grotesque)의 약(略)으로 괴기(怪奇)란 말이다.

본래는 황당 환기한 작품을 평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최근에 와서 일상생활에 권태를 느낀 현대 사람들이 무의미한 위안으로 괴이한 것, 이상야릇한 것을 자주 찾게 됨을 따라 엮기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가서

이방(異邦) 수토(殊土)나 고대 민족의 진풍(珍風)기속을 찾거나 혹은 세인의 이목을 놀랄 만한 기형이태(奇形異態)를 연출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괴기, 진기를 의미하는 '그로'라는 말이 성행한다. - 「신어 해설」, 《동아일보》, 1931.29

그로테스크 : 영어. **괴기하다는 뜻인데** 너무 에로틱하기 그 정도를 넘긴 것도 그로테스크하다고들 쓴다. 예를 들면 식인종의 뎀스가튼 것을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다. **略하여 「그로」가 늘 병행되는 것이 20세기** 울트라모던인의 조하하는 바이다. - 「모던語點考」, 新東亞 제15호, 1933.1. 111면.

「신어 해설」, 혹은 「모던어점고」 등의 제목으로 세간에 유행하는 새로운 어휘들을 해설하곤 했던 조선의 대중 미디어는 그로테스크를 '괴기'라는 말로 번역, 소개했다. '괴기'가 선택된 것은 일본의 영향 탓이었지만, 새로운 용어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던 '괴괴'보다는 '괴기'가 효과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녔던 '怪'의 미묘한 감각적 효과를 앞세우는 것이 그로테스크를 번역하는 데 더 적당했던 것이다. 미디어들은 서구 문예 양식의 하나에 기원을 둔 그로테스크라는 말의 어원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로테스크한 형상이나 이야기를 탐닉하는 당대인의 기호(嗜好)와 그들이 즐기는 그로테스크한 취향의 사례들이다. 식인종들이 살아가는 야만의 땅, 고대 민족의 진기한 풍속, 과도한 에로스의 표현 등 권태에 찌든 당대인들의 말초적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취미 기호의 하나로서 그로테스크는 소개되고 있었다.

이처럼 그로테스크의 번역어가 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괴기'는, 과거 '괴괴'의 의미를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그 속에 잔혹성, 섬뜩하고 마술적인 분위기 등 공포를 환기하는 정서들을 중심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진기한 자연과 사물의 형상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나아가

괴, 살인, 시체와 같은 잔혹하고 끔찍한 것들을 동반한 사건, 귀신, 유령, 괴물 등이 등장하는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1930년경부터 신문은 살인과 같은 잔인한 범죄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잔혹성을 지칭하는 어휘로 ‘괴기’라는 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표류선 중에 괴기- 동강동강난 船夫 시체」(《조선일보》, 1934.5.26), 「개성 교외의 괴기- 유기된 상자 속에 人脚」(《동아일보》, 1937.10.26) 등의 예에서와 같이 신문 기사들은 신체 절단과 같은 혐기적 행위를 동반한 살인 사건의 표제어로 ‘괴기’를 앞세우게 된다. 밀감 상자에서 아동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친족을 살상한 자가 산신으로 가장하여 엉뚱한 이에게 살인 자백서를 강요한 사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취조 받던 아버지가 급사한 사건 등등 ‘괴기’는 잔혹하면서도 교묘하고 기막힌 우연이 겹치는 살인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동원되었고, 원숭이와 혼인하는 종족, 유령이 나오는 건물, 구경꾼을 식겁하게 만든 소복 처녀 등과 같이 이색적이거나 공포스런 현상들을 보도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신문이 혐기적인 살인이나 이색적이고 공포스런 현상들을 보도하는 데 ‘괴기’라는 말을 동원함으로써 괴기와 공포, 호기심을 함께 결합시켰다면, 잡지들은 잔혹하고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흥미 기사로 실어나름으로써 ‘괴기’가 떠올리는 공포와 통속적인 흥미의 결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1930년대 초반부터 잡지들은 에로틱한 기사와 괴담, 괴기 실화, 범죄 실화 등을 게재하는 데 열을 올린다. 유아를 끓여 먹고 붙잡힌 여인,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고 30여명의 여성을 살해한 늙은 제대 군인, 토막 시체를 가방에 넣고 돌아다닌 在美 중국인 청년, 배신한 아내와 친구를 동료와 함께 난자한 탈옥수, 양성으로 태어나 28년 동안 여성으로 살다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일본인 등등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특별 독물, 괴기 실화, 범죄 실화, 특호 실화 등의 이름을 달고 보도되었고, 이를 통해 ‘괴기/그로테스크’의 취향을 부추겼다.

섬뜩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범람하고, ‘괴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대표하는 어휘가 되어가면서, ‘그로/괴기’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속성과 첨단적이고 세기말적인 퇴폐 문화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는다. 강렬한 자극에 대한 갈망, 쉽게 싫증을 느끼는 신경을 만족시킬 만한 새롭고 기이한 것에 대한 갈구가 ‘괴기’ 취향의 원인인 동시에 ‘괴기’ 자체가 실어나르는 의미의 저변을 이루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괴기’의 의미 변화는 ‘기괴’의 의미에도 변동을 불러왔다. ‘불합리하다·부당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던 1920년대 중반까지와 달리, 1930년대 ‘기괴’는 ‘끔찍하고 충격적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월등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쑈’와 ‘쑈’가 지시하는 차이와 다름이 공포의 정서를 지배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것은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 5.

‘괴기’가 공포를 일종의 취미로 변형시킨 취미 기호로 바뀐 데에는 ‘그로테스크’라는 외래어의 영향이 일차적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외래어를 성행시켰던 식민지 중반의 문화적 변동 또한 ‘기괴’, ‘괴기’라는 어휘의 의미 이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 소비적인 대중문화의 형성, 도시적 생활 감각을 지닌 새로운 소비 계층의 등장, 도시 생활의 권태에서 비롯된 변태적이고 혐기적인 취향의 발생 등등 문화적 변동 또한 ‘그로테스크’라는 외래어의 유입 이상으로 ‘괴기’가 새로운 의미 영역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괴기’가 주로 떠올리는 ‘과거’ 사회에서는 정작 ‘괴기’가 이처럼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괴담이나 괴기는 공포스럽고 야만적인 옛 과거에 기원을 둔 이야기라

는 일반적인 통념이 발생한 것은 오히려 1930년대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대중문화가 ‘괴기’라는 말을 하나의 취미 기호로 변화시키면서, 역으로 전근대 사회를 이 관념 속에 비춰 본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감각의 하나였다.

#### 참고문헌

- 김지영, 「‘괴기’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 소통》 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0.6.  
소래섭, 《예로 그로 넘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

## ‘모과’에 담긴 사랑과 윤리

유준 ·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강사, 문학 평론가

---

추위를 달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옷을 입거나, 따뜻한 바람을 쏘이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 방법의 하나로 한 권의 시집 읽기를 권하고자 한다. 추운 게 비단 몸뚱이라면 전자의 방법이 낫겠지만,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심지어 삶 자체가 으스스 떨려 온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할 시집에 대한 독서 역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손택수의 근작 시집 《나무의 수사학》(서울: 실천문학사, 2010)에는 요즘과 같은 쌀쌀한 철에 읽기 좋은 시들이 꽤 여러 편 실려 있다. 그의 시에서는 따스함이 전해져 온다. 그러나 이 따스함은 세속의 무풍지대 속에 놓인 온실 속의 그것이 아니라 춥고 바람 부는 황량한 들판을 정직하게 건너고 있는 자가 품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던 모과를 주워왔다  
울겨울엔 모과차를 마시리라,  
잠화꿀에 절여 꿀룩이는 겨울을 다스려보리라  
도마에 올려놓고 쥘 모과를 쪼개는데  
잘 익은 속살 속에서

애벌레가 꾸물거리며 기어나온다  
 모과 속살처럼 노래진 애벌레가  
 단잠을 깨고 우는 아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애벌레에게 모과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  
 눈 내리는 겨울밤  
 어미 대신 자장가를 불러줄 유모의 품과 같은 것  
 이미 쪼개버린 모과를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이 찢찰한 철에 애벌레를 업둥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부터 이깟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했던가  
 울겨울 나는 기필코 모과차를 마시리라,  
 짐짓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직도 책장 어딘가에 심장이 멎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놓쳐버린 아기의 태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모과  
 속을 드러낸 거죽에 검은 주근깨가 숭숭하다  
 수술실에서 나올 때 호느끼는 내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던 너  
 칼자국 지나간 몸 더 거칠어가는 줄 모르고  
 바깥으로만 바깥으로만 떠돌던 날들이 있었는데  
 날을 세운 불빛에 움찔거리는 애벌레처럼 허둥거리는 한때  
 빈속에 쟁인 울음이 아린 향을 타고 흘러나온다

—〈모과〉 전문

좋은 시가 대개 그렇듯 이 시 역시도 시적 상황은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하다. 화자는 어느 날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는 모과를 주워왔다. 겨울에 감기도 예방할 겸 모과차를 마시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모과를 꿀에 절이기 위해 반으로 가른 순간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다. 모과 속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이다. ‘문제의 상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리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상황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고 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①애벌레와



모과를 모두 버리고 다시 나가서 새 모과를 주워온다. ②애벌레만 죽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과는 깨끗이 씻어서 꿀에 절인다. 아마도 이 두 개의 선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설령 당신이 이 시의 화자처럼 유산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애벌레와 태아를 동일시 하며 모과 속에서 나온 애벌레 한 마리에 어쩔 줄 몰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벌레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모과를 쪼갰 순간 마주하게 된 애벌레의 꿈틀거림에 대해 화자는 ‘단잠을 깨고 우는 아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린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잠시 그 영상을 한 번 떠올려보자. ‘모과 밖으로 방출된 애벌레의 꿈틀거림=포대가 밖으로 나와 잠이 깬 아이의 두리번거림’. 이 등식은 다음의 구절 즉 ‘모과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 ‘어미 대신 자장가를 불러줄 유모의 품과 같은 것’에 이어지면서 더욱 그럴듯한 설득력을 얻는다. 시인의 관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이 실로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 시인은 왜 모과를 일종의 ‘모태(母胎)’로, 애벌레를 아기로 치환하고 있는 것일까? ‘아린 향’ 때문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듯 시인,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인의 아내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고,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책장 어딘가에 심장이 멎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내에게 잊을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며, 그것은 ‘짐짓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인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을 테고, ‘짐짓’이라는 부사어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그 기민한 관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에 놀라고, 시적 비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이 시에 대한 우리의 독해는 마무리되는 것일까? 아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독해는 비로소 시작된다. 이 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다음이다.

이미 쪼개버린 모과를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이 쨍쨍한 철에 애벌레를 업둥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부터 이깟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했던가  
 울겨울 나는 기필코 모과차를 마시리라,

이 구절은 화자가 보여주는 심리의 동선을 아주 잘 포착해낸다. 화자는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모과를 다시 붙여놓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은 애벌레를 다시 모태의 자리로, 그 편안한 삶의 처소로 돌려보내는 일이기도 하고, 화자를 유산이라는 이픈 과거의 반추로부터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애초에 모과에서 애벌레가 나오지 않았던들, 그 과거의 슬픔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 해보자면, 모과를 다시 붙여놓아 애벌레를 안온한 삶의 공간 속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은, 뱃속에서 놓쳐버린 자신의 아기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고픈 욕망에 대한 우회적인, 그러나 그야말로 애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쨍쨍한 철에 애벌레를 업둥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라는 구절은 이를 암시한다. 그런데 모과를 다시 붙여놓는 일, 즉 그렇게 함으로써 애벌레를, 그리고 아기를 다시금 삶의 ‘속살’로 돌려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자는 심란하다. ‘내가 언제부터 이깟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했던가’에서 ‘이깟’이라는 부사의 쓰임이 예사롭지 않은 울림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이깟’은 그 말의 통속적인 쓰임에서 그렇듯 분개의 표출이 아니다. 이 ‘이깟’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기필코’와 어울려 화자의, 그리고 화자 아내의 치유하고픈, 그러나 치유되기 힘든 아픔에 대한 일종의 ‘소리 없는 절규’다. 그러니까 참고 참고 또 참아왔던 슬픔을 두 부사어를 통해 절제된 형식 속에 은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아픔을 분노로 바꾸지 않고 절제된 미적 형식 속에 담아내는 가운데 동정과 연민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만일 이 아픔이 무분별한 분개로 변환되었다면 아마도 애벌레는 단칼

에 베이는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에벌레 앞에서, 그 꿈을 대는 연약한 생명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한다. 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태도야말로 어찌면 생명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외경인지도 모른다. 이 외경이 있기에 화자는 에벌레의 난처함을 읽을 수 있고, 아내의 아픔을 감지할 수 있으며, 나의 심란함 앞에 솔직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슬픔을 보듬고 그들이 다시 평온의 처소에 놓이기를 희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면 ‘빈속에 쟁인 울음’이 아린 향을 타고 흘러나오지만, 그 ‘아린 향’은 단순한 슬픔의 차원을 넘어, 혹은 그 슬픔의 교류를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감(sympathy)의 미학을 발산하게 된다. 이 시를 읽고 나면 일단은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파스해져오는 것도, 나아가 그 파스함의 태도로 추위에 떠는 모든 존재들을 환대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sup>1)</sup>

《나무의 수사학》에 실린 많은 좋은 시들의 경우 대체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특질들을 보여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깃들인 슬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과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현실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와 부딪히며 이러저러한 애처로움들을 빚어낸다.

꽃감이 떨어지면 담가 익혀 먹곤 했다

아들 둘 먼저 보낸 뒤 감나무 잎 스적이는 뒤란에 홀로

1) 이러한 이유로 이 시는 약 칠십여 년 전에 발표된 백석의 <수라(修羅)>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 <수라>에서 시인은 방바닥에 나타난 새끼 거미를 무심코 문 탁으로 쓸어버리는데, 이후 그 어미로 보이는 큰 거미와, 그 막내로 보이는 알에서 막 깨어난 듯한 아주 작은 거미가 연속해서 나타난다. 이에 시인은 애초에 새끼 거미를 무심히 쓸어버린 자신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미물들의 평화를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마지막 몇 구절만 옮겨보면 이렇다. “이것의 엄미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앉아 있는 외할머니

뿔뿔은 꽃내 단물 들어라 소금물 향아리마다 감을 담가놓고 있다

(…중략…)

배 속 아기를 잃어버린 외손주를 위해

특,

땅을 짊고 뒹구는 감을 चु는 당신

- <감 향아리> 부분

‘특’이라는 낙과 소리는 생명의 상실처럼 들리는바, 그것은 박목월이 반세기 전에 <하관(下棺)>이라는 시에서 아우를 먼저 보낸 심정을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특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고 갈무리 한 것을 떠올리게도 한다. 그런데 <감 향아리>에서의 ‘특’이라는 낙과 소리는 그것을 चु는 할머니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반전을 맞게 된다. 즉 그것은 자식을 먼저 보낸 두 존재가 느끼는 공통의 아픔의 연결이며, 그 상처의 보듬음이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온기를 자아내는 몇몇 구절들을 간략히 인용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서로 담을 쌓고-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는 이웃의 담 너머로 감나무의 가지를 뺨뺨 들이미는 화자의 마음씨를 본다. 참으로 온화하기 그지없다.

칼금을 그어놓은 책상 너머로 생일이라고

사탕을 슬그머니 얹어놓고

시름을 툇 빼고 앉아 있던 초등학교 때 내 짝 정이처럼

꼭 것처럼은,

담벼락 옆에 감나무 한 주 심어놓기로 한다

이것 좀 자시라 차마 말은 못 하고 슬며시

담 넘어간 가지에 눈치껏 익어갈 홍시를 기다려보기로 한다

—<온유> 부분

시인은 또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참하고 누추한 삶의 모습들을 파스한 마음으로 어루만지기도 한다. ‘벗나무의 괴로움을 알겠다/ 꽃 피는 벗나무의 괴로움을 나는/ 부끄러움 때문이라 생각한다// (…중략…) // 계단 계단 누운 벚꽃을 밟고 오르며 나는 인어를 생각한다/ 떨어지지 않는 철거민 생각 대신/ 벚꽃 아래 사진을 찍던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무의 수사학 3>이라는 시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동시대의 쓰라린 삶의 현장에도 무심하지 않음을, 벚꽃의 화사함 속에서도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떠올리는 화자의 곡진한 마음을 읽는다. 또 <나무의 수사학 6>이라는 시에서 공원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고 ‘형클어진 머리카락으로 하늘을 쓸고 왔나/ 씨구려 파마기에 빠져나간 울을’하며 유머러스하게 그 생의 간난신고를 묘사하는 끝에 해진 양말 밖으로 보이는 갈라 터진 뒤통치에 ‘바셀린 로션이라도 발라줘야 하는데’와 같이 능청을 떨며 말할 때, 우리는 그 능청에서조차 따뜻함을 느끼며, 이 시인에게, 또 그 시인이 그리고 있는 삶과 존재들에게 공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손택수의 시들은 따뜻하다. 그리고 그 따스함은 단순히 상투적 휴머니즘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들이 보여주는 공감의 미학은 시혜적 태도나 엘리트주의적 사고로부터 촉발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약자의 원한이나 이성적 사유의 험거움과 모종의 협약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어딘가로 번지기 위해선 색을 호텔 줄 알아야 한다’(<수채>)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투박하게 넘치는 존재’(사르트르)들인 우리들에게 그 넘침의 독선과 아집을 비우지 않고는 타자와의 윤리적 대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일러준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고 나면 애벌레를, 청소부 아주머니를 그저 무심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되고, 화사하게 내리는 꽃비 속에서도 폭우로 고통 받는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윤리다. 그리고 시란, 문학이란 이러한 사랑과 윤리의 공작 위에

타인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모두가 쿨룩거리나 아무도 감기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요즘, 따뜻한 한 잔의 모과차를 두고 손택수의  
<모과>를 읽자.

## 외국인 성(姓)의 뿌리를 찾아서

황성규 · 문화일보 논설위원

### I. 성을 찾아 나서며

늘 지면의 제약을 받는 신문 기자들에게는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즉 성(姓)을 짧고 올바르게 표기하는 일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좁은 지면에 정해진 크기의 제목을 달고 사건 사고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하는 제목을 뽑는 편집자들이 애청이라도 발견한다면 반가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기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면 제목에 무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 스페인 출신의 입체파 화가 피카소. 물론 그는 ‘피카소’로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 긴장감이 떨어지지만... 그의 풀 네임은 ‘파블로/디에고/호세/프란시스코 데 파올라/후안 네프무세노/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크리스핀/크리스피아노 데 라 산티시모 트리니다드/루이스 이 피카소’로 자그마치 9인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 생면부지의 인물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인지 난감할 듯하다. 순서대로 큰 아버지 이름, 조부·백부 이름, 아버지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 대부(代父) 이름, 대모(代母) 이름, 생일(10월 25일)의 수호성인 이름, 삼위일체의 이름에다가 부모의 성까지 차례로 연기(連記)했다. 우리나라의 ‘김 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신문에서 특정인의 성을 정확히 표기하는 일은 웬만한 내공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두어 권의 책<sup>1)</sup>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정리해 본다.

## II.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서양인의 성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유래가 있다. 지명에서 따온 성[地名姓]과 아버지 이름을 성[父稱姓]으로 삼은 경우, 집안의 직업을 성[職業姓]으로 삼은 경우, 별명을 성[別名姓]으로 쓴 경우다.

그 가운데 지명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 전부터 널리 성으로 사용하는 소재다. 그 지역 출신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본관(관향)과 비슷하다. 미국과 영국의 많은 사람이 지명을 성으로 사용한다. 선조의 발상지나 소유지, 거주지 등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 지역 출신’을 뜻하는 전치사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어 ‘폰(von-)’, 프랑스어 ‘드(de-)’, 이탈리아어 ‘다(da-)’, 네덜란드어 ‘판(va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창성법(創姓法)은 거주지의 지형을 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루스벨트,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등 많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허스트, 우드, 부시처럼 보통 명사를 그대로 성으로 삼은 케이스도 있다. 출신지나 지명·국명에서 따온 성도 많은데 슈바이처, 워싱턴, 체호프, 플레밍이나 런던, 요크, 보스턴 등을 꼽을 수 있다.

1) 이 글은 다음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썼음을 밝혀 둔다. 쓰지하라 야스오 지음, 김미선 옮김 《인명의 세계사》·도서출판 창조문화, 2008, 21세기연구회 지음, 이영주 옮김 《인명으로 보는 세계사》·(주)시공사, 2002.



### Ⅲ. 누구의 자녀인가

러시아인의 성명은 아버지 이름을 가운데 이름(middle name)으로 밝힌다. ‘본인 이름(이미야)/아버지 이름(아체스토보)/성(파밀리야)’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때 성은 선조의 이름에 ‘오프(-ov)’나 ‘예프(-ev)’, ‘인(-in)’, ‘스키(-ski)’와 같은 형용사형을 붙인다. 그리고 가운데 이름인 부칭은 소유 형용사의 접미사 ‘이치(-ich)’를 붙여 부칭을 만든다. 즉, ‘이반 가문의 이반 아들 이반’인 경우 ‘이반 이바노비치 이바노프’가 되는 것이다. 제정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 푸시킨의 전체 이름(full name)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이다. 그러니 알렉산드르는 그의 이름이고, 세르게이는 아버지 이름, 푸시킨은 성이다.

남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 전역의 인도·유럽 조어(祖語) 문화권에서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삼는 ‘패트리 니믹(patronymic)’ 문화가 있다. ‘아무개의 아들’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이 관습은 고대 오리엔트 지방에서 시작됐는데, 이를 통해 가부장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러시아인의 성처럼 ‘○○○ 아들’임을 나타내는 영어권의 성으로는 ‘맥’((Mac-, Mc-, M-)과 ‘오(O-)’가 있다. ‘오-’는 ‘○○○의 혈통을 계승한다’는 뜻의 ‘우아(ua-)’가 줄어서 된 말로서, 여성의 경우 ‘오-’가 아니라 ‘나(-ni-)’를 붙인다. 브라이언의 아들은 ‘오브라이언’이 되고, 딸은 ‘니브라이언’이 되는 것이다. 도날드(세계 통솔자)의 아들 ‘맥도날드’나 설리번의 아들 ‘오설리번’ 등이 있다.

켈트의 마지막 후손들은 ‘오’와 ‘맥’을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켈트인이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비(非)켈트인들 사이에서는 ‘아무개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선/슨(-son)’이나 ‘스(-s)’를 붙이는 창성법이 유행했다. 존의 아들 존슨, 애덤(붉은 대지)의 아들 애덤스, 딕(리처드의 애칭)의 아들 디킨스, 데이비드(친애하는 친구)의 아들 데이비스가 좋은 사례다.

#### IV. 아랍 지역의 성씨 문화

중동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본인 이름 뒤에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의 이름을 순서대로 연명(連名)해 왔다. 하지만 오늘에는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과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이름)에 씨족 이름(니스바)이나 출신지 이름만 표기하는 추세다. 아랍인들의 이름 앞에 붙은 ‘이븐(ibn)’ 또는 ‘빈(bin)’은 부칭 접속사로 ‘○○의 아들(son of)’을 뜻한다.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의 ‘빈’이 대표적이다. 그가 테러리스트의 배후로서 국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센터 폭파 테러범의 배후로 지목되면서부터다. 그의 본명은 ‘오사마 빈 모하메드 빈 어워드 빈 라덴’으로 무척 길다. 풀이를 해 보면, ‘라덴 일족 어워드의 아들 모하메드, 그 모하메드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이다. 약칭 ‘빈라덴’은, ‘라덴(신앙으로 성실하다) 일족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씨족을 가리킬 뿐 성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건설 회사의 대표인 그의 아버지는 예멘 남부 하드라마우트 출신이다. 아랍의 이슬람권도 세습제 성(家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선조의 이름을 성처럼 부르는 일이 많아 그도 처음에는 ‘라덴’이라고 했다. 이후 그의 집안 내력이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도 약칭을 ‘빈라덴’으로 고쳐 부른다.

#### V. 무엇을 하는 집안의 사람인가

태어난 지역도, 선조의 이름도 아닌 집안의 가업을 나타내는 성도 많다. 한국으로 치면 ‘방앗간 집 딸’ ‘양조장 아들’ 하는 식이다. 영어의 스미스(대장장이)는 ‘날카로운 도구로 일하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스메이(smei)’가 그 어원이다. 10세기 후반에 등장한 가장 오래된 직업명으로, 그 연륜만큼이나 널리 사용된 성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가장 흔하다.

대장장이 스미스를 독일어로 바꾸면 슈미트 또는 슈미츠가 된다. 또 프랑스어는 르페브르, 이탈리아어는 페라로, 스페인어는 헬라레, 네덜란드어는 데스멧이다. 그리고 스웨덴어 스메드, 아일랜드어 고흐, 러시아어 쿠즈네초프, 폴란드어 코왈스키, 헝가리어 코바치, 아랍어로는 하다드가 될 것이다.

제빵사 밀러, 정미소 밀러, 술 테우는 사람(기구) 멀러, 재봉사 테일러, 목수 카펜터, 통제조업자 쿼퍼(쿠퍼), 정육점 주인 부처(Butcher), 지붕 수리공 대처, 신발 가게 주인 슈베르트, 자동차 정비사 바그너, 철물점 주인 슈팽글러 등도 직업을 내세운 성이다.

그 밖에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관직을 과시하는 성도 있다. 정승택도련님, 판서택 고명팔쫂 된다. 그게 바로 성이라면 우리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자연스럽다. 군사령관 마셜, 목사 채플린, 마부 카터, 요리사 쿡, 서기 클라크, 회계사 야스퍼스, 염전 감시관 히틀러 등이 대표적이다.

## VI. 피눈물 뻔 성을 자랑스러운 성으로

옛 선조들의 한이 서린 성을 가진 민족도 있다.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돈 유대인 그들은 그 옛날 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 독일의 한 영주가 유대인들도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성에 나타나도록 식물이나 금속 이름만으로 지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는 로젠탈(장미 골짜기), 밀리엔탈(백합 골짜기)이나 골드슈타인(황금돌), 모르겐슈테른(아침 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일제 시대 한국인처럼 본래의 성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동지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다. 이들은 상인들이 빈정거리며 지어준 프린스(왕자)나 듀크(공작)처럼 왕족이나 귀족으로 보

이는 성을 사용하면서도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듣기에는 화려하고 지엽하지만 가슴에는 한이 맺히고 삶은 피눈물로 점철된 성들이다.

## VII. 한자식으로 성명을 쓰는 유럽인

유럽에서 '민족의 외판섬'으로 통하는 헝가리인(마자르족)들은 본래 한 성분의 이름만 사용해 왔다. 그러다 13세기 말부터 두 성분의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 이때 한 성분 시절의 이름이 대거 성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지명, 직업, 내적 외적 특성, 민족, 사회적 위치, 동물이나 식물 이름에서 따 온 성이 많다. 특히 지명에서 유래한 성은 전체 헝가리 인구의 30~40%나 된다.<sup>2)</sup>

그런데 헝가리인의 성은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성/개인명' 순으로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유럽인과는 정반대의 성명 구조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성명으로만 본다면 '유럽 속의 이방인'이라 할 만하다. '슈미트 팔' 대통령의 경우 슈미트가 성이고 팔이 이름이다. 성명 문화가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것이다.

그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추정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와 맞서던 유목 기마 민족 중 흉노족은 옛 터키계다. 그 흉노족이 1세기 중엽 후한에 토벌 당할 당시 일부는 서쪽 카스피 해 북동부로 쫓겨 갔고, 나중에 그들의 자손 중 훈족이 유럽 동부로 침공했을 때 마자르인 이웃에 살게 됐다. 한나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흉노족이 민족 이동 중 마자르인과 잠시 공생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창성법을 비롯한 성명 문화를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다. 헝가리란 국호도 '훈족의 땅'이란 말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보면 그럴 듯해 보인다.

2) 문신혜, '헝가리 인명(人名)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동유럽어문학과, p.11.

## VII. 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2003년 5월 30일 이래 7년 동안 군부 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돼 있다가 11월 13일 석방된 ‘아웅 산 수 치’ 역사. 그의 이름이 처음 국내 신문에 이름이 비치기 시작하던 1987년 무렵, 국내 신문은 그를 ‘아웅 산 수키’라고 표기했다.<sup>3)</sup> 그의 이름이 로마자로 ‘Aung San Suu Kyi’였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이름은 ‘아웅 산 수 지’를 거쳐 오늘의 ‘아웅 산 수 치’로 정착됐다.<sup>4)</sup> 이렇게 그의 성 표기가 바뀌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집안과 미얀마의 이름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아웅 산 수 치 역사는 1947년 6월 정적에 암살 당한 ‘아웅 산’ 장군과 ‘돈 킨 치’ 전 인도 대사 부부 사이에 1945년 6월 19일 수도 양곤(옛 랑 군)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영어식 이름으로 보자면, 가족이 대물림하는 패밀리 네임(姓)은 ‘수 치’여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다. 미얀마인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 다섯 음절 속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다. ‘아웅 산’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고, ‘수’는 할머니 이름이며, ‘치’는 어머니 이름이다. ‘승리·성공(아웅), 백만 또는 진기하다·놀랄 만하다(산), 집합(수), 깨끗한(치)’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를 지칭하자면 비록 신문 지면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웅 산’도 아니고 ‘수 키’나 ‘수 지’ ‘수 치’도 아닌 ‘아웅 산 수 치’라는 풀 네임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 ‘수 치 역사’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얀마인의 이름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자. 미얀마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계와 몽골·티베트인 및 인도 남부 드

3) 동아일보 1989년 7월21일자 기사, ‘수키女史 自宅연금’

4) 제19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회공동위원회 심의(1997. 11. 19.), 아웅산 수 지 → 아웅산 수치 (Aung San Suu Kyi)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국민민주연맹(NLD) 서기장.

라비다제와 마찬가지로 성이 없다.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는 경칭 접두사를 붙여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남성인 경우 현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 앞에 ‘우’(U·백부)를 붙인다. ‘우 탄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최상급 경칭이다. 그 다음으로 동등한 관계는 ‘코’(Ko·형), 아랫사람은 ‘마웅’(Maung·아우)을 개인명 앞에 붙인다.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대개 전통적으로 성이 없다. 그 대신 이름만 있다. 중앙아시아의 몽골인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인다. 다만 서로 상대방을 부를 때나 공식 석상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1999년 성이 없는 불편을 덜기 위해 아버지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세습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성이 같아도, 조부-부모-자손으로 이어지는 직계 세대의 성은 제각각이다.

그 밖에 아이슬란드인과 미국 원주민, 아프리카의 수단인과 니그로 등도 성이 없다.

## Ⅸ. 남의 성도 내 성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양인의 성에는 거주지나 출신지 이름, 선조의 이름 또는 집안의 직업과 관직 이름, 별명 등이 민족과 언어와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하게 투영돼 있다. 또 더러는 얼굴의 생김새나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과 색깔, 습관, 언행, 눈동자의 색깔 등에서 기원을 담거나 금기를 반영하거나 천한 사물을 지칭하는 성도 있다. 성 하나로 문화와 역사와 관습은 물론 그의 인상 등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나 중동의 이슬람인, 중앙아시아의 몽골인처럼 성이 없이 이름만 있는 민족도 많다. 하지만 남의 성명을 제대로 알고 불러주는 일은 교양 있는 지구촌 가족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 칠레의 언어 정책

민원정 · 칠레가톨릭대학교 아시아프로그래 교수

### 1. 들어가기

칠레는 국가 구성원들의 인종과 언어가 동일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공식 언어가 없다. 모든 개인과 기관에서 스페인어가 공식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이는 칠레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데에 기인한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중남미 지역의 대부분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원주민이 살고 있던 중남미 대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가 정복자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이 시작된 180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중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모두 인정하는 이중 언어 정책을 취한 나라는 파라과이뿐이다. 그러나 인디오들의 비율이 높은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다언어·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30년대 이후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1492년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

견"이라고 표기하는 나라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만남'이라고 표기하는 나라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중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한 국가들은 대부분 1492년을 '발견' 보다는 '만남'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원주민과 혼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원주민어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이들 국가의 역사 교과서에서 1492년은 신대륙 '발견'의 해다.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 원주민 마푸체(Mapuche) 인디오들의 강력한 저항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칠레에서는 1993년 인디오법을 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다언어·다문화 교육을 해오고 있다. '세계화'가 유행이 되어 버린 요즘에는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300년 스페인 식민 지배와 독립 이후 200년간 지속된 유럽 이민, 토착 원주민들 그리고 혼혈의 역사가 칠레의 언어 사용 및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칠레 언어 정책이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피고자 한다.

## 2. 스페인어, 모국어 아닌 모국어

앞서 말했던 칠레에서 공식어로 인식되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언어 정책 수립 기관은 교육부와 문화부지만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 산하의 칠레 언어 아카데미(Academia Chilena de la Lengua)가 칠레 스페인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다.

스페인 한림원은 1713년 설립되어 1714년 당시 국왕 펠리페 5세의 승인을 받았고 '카스티야어 고유의 특색과 우아함,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스페인어가 아닌 카스티야어로 표기하는 것은 스페인이 각 지역의 고유어를 인정하는 지역별 이중 언어 정책을 표방하며 이 중 카스티야 지방의 언어인 카스티야어를 1492년 이후 국가 공식어로 채택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스페인 한림원 산하의 스페인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현재 중남미 21개국과 필리핀<sup>1)</sup>에 스페인어 아카데미가 있고, 사전, 문법, 철자 등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 모두가 동등한 역할을 한다. 스페인어 아카데미 연합회는 매년 회의를 통해 상호 교류하여 모두를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스페인 한림원은 ‘이것만이 진짜 스페인어다’라고 정한 바가 없고 방언의 개념 또한 없다. 각 지역의 다양한 스페인어를 모두 인정하되, 단 각 지역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권장한다. 1916년부터는 스페인 출신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사망일인 4월 23일을 ‘언어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동일한 철자법을 사용한다.

칠레 스페인어 아카데미는 1885년 중남미에서 8번째로 설립되었다. 1976년 칠레 스페인어 사전을 처음으로 출판한 이래 2001년 칠레 스페인어 사용 사전, 그리고 독립 200주년이 되는 올 2010년에는 칠레 스페인어 사용 사전 개정판을 출판했다.

칠레는 1844년부터 1927년까지 안드레스 베요<sup>2)</sup>가 제시한 바에 기준한 고유의 철자 규칙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ㅎ/ 소리를 ‘x’와 ‘j’ 중 ‘j’로 통일하고 모든 /ㅣ/ 소리를 내는 ‘y’는 ‘i’로 표기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1927년부터 칠레 정부는 모든 철자 규칙을 스페인 한림원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Sáez, Tassara, Valencia(1996)는 칠레의 전통적인 언어 교육에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 왔다고 지적한다:

- 1)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에도 스페인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 2)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1829년 칠레로 건너온 이후 중남미 최고의 인문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원 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칠레 헌법을 작성하였으며 1842년 칠레대학교를 설립했다.

1. 문법과 학술적 사전만이 언어 교육에서 유일한 권위를 지닌다;
2. 최고의 스페인어는 스페인식 스페인어다;
3. 칠레 스페인어는 페루나 콜롬비아보다 못하다;
4. 좋은 언어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5. 스페인어는 말하는 대로 적는다;
6. 스페인어 교사는 잘 말하고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기타 과목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법과 쓰기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말하기와 어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칠레 스페인어의 특성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교육부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바른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 3. 원주민어, 부정에서 보이지 않는 배척으로

칠레가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 원주민 인디오는 국가 구성원의 개념에서 완전히 배척되었다. 원주민어도 당연히 무시되었다. 칠레는 북쪽에 아이마라 인디오, 사막 지역의 아타카마 인디오, 남쪽의 마푸체 인디오들이 존재하는 엄연한 다문화·다언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유럽을 꿈꾸는 백인 지도자들의 정책에서 원주민 인디오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마푸체 인디오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칠레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칠레 정부는 1993년 인디오법(19253조)을 제정하여 국가 내 인디오들의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원주민 인디오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마푸체어와 케추아어를 가르친다. 교육부는 원주민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정한 바 없으나, 최소한 원주민어 전파를 위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다. PETB(다문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가

그것인데, 초등 교육에서부터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종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 PEIB의 목적이다. 1996년부터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과정 중 지역 대학들의 지원을 받아 실험적으로 다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집에서만 사용하는 원주민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PEIB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PO (Programa Origenes 뿌리 프로그램)를 마련해 162개 학교에서 다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원주민 아이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원주민어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PEIB의 시행 배경이, 마푸체 인디오를 제외한 원주민들은 이미 고유의 언어를 많이 상실했고, 마푸체 인디오들도 칠레인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아이들은 칠레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이 백인이나 혼혈인 칠레 사회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 갈등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원주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다언어 교육이 단순히 이들을 칠레인화하기 위한 것인지, 여타 칠레인들에게도 다문화를 인정하도록 함께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PEIB 시행 또한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것이다.

#### 4 영어는 세계화 시대의 필수품, 중국어는 보너스

약 10여 년 전까지 칠레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따라 영어와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립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립 학교의 경우 프랑스어를 선호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교육부는 학교 재량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리고 요즘은 2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나 시간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대학 입학 시험

에서도 영어는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은 영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졸업 자격을 준다.

한편 중국 봄을 타고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09년 칠레가톨릭대학교와 산토토마스대학교가 공자학당을 설립했고 교육부도 각 초·중·고등학교에 중국어를 가르칠 것을 권장하여 현재 15개 학교, 1350명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 5. 나가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언어·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를 부정해 왔던 칠레의 딜레마는 언어 정책에도 나타난다. 헌법이 정한 공식 언어는 없지만 모두가 스페인어를 공식어로 인정하고 있고, 원주민 인디오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인디오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없다. 식민 시대를 겪었으나 스페인은 정복자가 아닌 뿌리로 인식되고 있어 언어 정책 수립은 교육부와 문화부에서 담당하지만 관리와 감독은 스페인 한림원 부속 기관인 칠레 언어 아카데미가 맡고 있다.

스페인은 지역별 이중 언어를 인정하고 있어 스페인 내에서도 스페인어인가 카스티야어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스페인어가 중남미 대륙에 건너와 진화하면서 스페인어는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국가 및 한 국가 내 지역과 사회 계층에 따라 어휘와 동사 활용, 억양 및 액센트가 다르다. 따라서 스페인 한림원은 지역에 따른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어 아카데미 연합회를 통해 스페인어 고유의 특색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칠레 스페인어에는 칠레에 오래 거주한 한 미국인이 칠레 스페인어를 ‘칠레 정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이 있다. 스페인 사람들도 칠레의 이 언어 정글에서 헤매기 일쑤다. 칠레는 스페인 한림원이

정한 철자 규칙을 지키는 동시에 칠레식 스페인어의 특색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칠레 곳곳의 여러 지명이 원주민 인디오어로 되어 있으나 인디오어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강요는 아닐지라도 PEIB를 권장함으로써 원주민 후손들이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주민어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화 붐을 타고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언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러 거부하고자 해도 이미 존재하는 언어를 부정할 수 없고, 억지로 강요하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언어 정책이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틀 안의 다문화·다언어, 그리고 국가 내의 다문화·다언어 문제는 오늘날 비단 칠레만의 당면 과제가 아닐 것이다. 모국어 아닌 모국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면 서 뿌리 아닌 뿌리 원주민 인디오를 인정하고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해 세계화를 대비하는 칠레의 언어 정책은, 비록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언어 정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제20권 2호, 117-131.

홍민표(2010), 일본의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제20권 3호, 141-148.

Saez, I., Tassara, G., Valencia A. (1996), La enseñanza del español en Chile. En actas de congreso: el pluralismo lingüístico, la educación y el desarrollo nacional. Santiago de Chile: Soc. Chilena de Lingüística.

Blog de Lengua Española de Alberto Bustos, La ortografía chilena



---

# 국립국어원 소식

---

## I.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 1.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8개국 주요 국립 언어 연구소의 언어 정책 전문가 8명을 초청하여, '세계 언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0년 12월 7일과 8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 행사는 세계 각국이 처해 있는 언어 정책의 현안을 살펴 우리 언어 정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 사 명: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주최(주관): 국립국어원(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행 사 일: 2010년 12월 7일(화)~8일(수) 09:30~16:00

장 소: 웨스틴 조선 호텔

참가 인원: 국내외 언어 정책 전문가 150여 명

□ 세계 유수의 국립 국어 연구소의 석학들 서울에 모이다

○ 이번 국제 학술 대회의 발표자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3대륙, 7개국에서 각국의 국립 언어 연구소의 언어 정책 전문가 7명을 초청하였

고,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언어 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버나드 스폴스키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국어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맡고, 국립국어원 조남호 어문연구실장이 한국의 언어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 □ 세계 언어 정책의 성과와 전망(기조 연설) - 버나드 스폴스키 교수

○ 버나드 스폴스키 교수는 기조 연설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의 생태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언어의 생태를 조절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현명한 처사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일인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언어 정책은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 담당자들에게 던짐으로써 정책 담당자들이 깊은 고민을 통해 현명한 방향을 스스로 찾아보기를 권하였다.

#### □ 어문 정책 20년, 미래를 바라보다

○ 국립국어원은 내년 1월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다. 개원 20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 대회는 우리나라 언어 정책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대조 및 분석 작업을 통해 공공언어 정책의 수립, 국어의 해외 보급,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 언어 사회의 소통 체계 고양 등 우리 언어 정책의 향후 방향 설정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 2. 국립국어원, 51개 행정 기관의 보도 자료 조사

가장 모범적인 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 등 6곳 선정 감사패 증정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6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35개(15부, 2처, 18청) 중앙 행정 기관과 16개의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등 총 51개 기관의



보도 자료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고, 가장 모범적인 국가보훈처와 광주광역시 등 6곳을 선정하여 10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에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35개 중앙 행정 기관 가운데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이, 16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가 한글 맞춤법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사용하는 등 행정 언어를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기관의 언어 사용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는바, 국립국어원은 행정 기관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51개 행정 기관에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A4 5장 분량(기관별 4~5개)의 보도 자료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564돌 한글날에 맞추어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그 밖의 행정 기관에서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명사의 과도한 나열, 번역 투의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사용 등 어휘 사용과 문장 표현에서 개선할 점이 드러났다.

### 3. 2010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소강춘)에서 정보과학회 언어

공학연구회(위원장 이근배)의 협조를 얻어 개최한 '2010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가 10월 8일 국립국어원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경진 대회는 말뭉치의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언어 처리 도구를 개발하여 한국어 정보 처리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의 정보 처리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발표>

<대상 수상>

응모작 중 예심을 거쳐 총 11개의 작품이 본선에서 승부를 겨루었는데 대상은 전주대 송유석 팀이 제출한 'KFPA: Korean Frame Pattern Analyzer'가 차지했다. 'KFPA'는 조사자가 입력하는 분석 표지(태그)의 여러 조합을 다양하게 검색하고 열람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잘못된 표지는 수정해서 무결성의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금상은 울산대 옥철영 팀의 '세종 형태 의미 말뭉치: 형태 분석 오류 수정 및 모든 동형의의어 태깅'이 차지했고, 은상은 부산대 윤태진 팀의 '한글 기반의 적응적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과 (주)미디어레 박혜웅의 '바게 한글 분석기: BageKoreanAnalyzer'가 차지하였다.

#### 4. 훈민정음 해례본 러시아어판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쉽게 풀이한 '알기 쉽게 풀어쓴

훈민정음'의 러시아어판을 발간하여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2010년 10월 22일 오후 4시에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알기 쉽게 풀어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여 영어판, 중국어판 등을 발간하였고, 올해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어판을 발간하였다.

서울대 김주원 교수와 이상익 교수가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의의와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의 서지적 특징을 자세히 풀이하고, 강신항 교수가 훈민정음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러시아어 번역은 빅토르 앳크닌, 감수는 블라디미르 베르홀랴크 교수와 한병석, 교정은 발렌틴 지민 교수가 하였다.

#### □ 출판 기념회 개요

- 행사명: '알기 쉽게 풀어쓴 훈민정음' 러시아어판 출판 기념회
- 일시: 2010. 10. 22(금) 16:00~18:00
- 장소: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강당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주관: 한글학회·삼일문화원
- 후원: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 국립국어원, 휴대용 기초 한국어 회화 소책자 발간: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6개 국어) 동시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서울 G20 정상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리고, 기초적인 한국어 표현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기초 한국어 회화 소책자' 형태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를 펴냈다.



이 책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간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되었으며, 한국을 방문할 때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과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6개 국어로 동시 발간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휴대용 소책자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인사, 교통, 쇼핑, 관광, 식당, 전화, 도움 요청(총 10과, 20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로 구분된 한국의 교통 문화와 쇼핑하기 좋은 동대문과 명동을 소개하는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담고 있어, 외국인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항, 지하철, 한국관광공사 안내소, 유명 호텔 등에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및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에 게재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국어 선생님도 국어 배워요: 교사들 어문 규정과 국어 관련 교양을 넓힐 좋은 기회

□ 국립국어원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을 위한 국어 전문 교육 과정(2010. 1. 10. ~ 1. 21. 5일씩 2기)’을 개설하였다. 올해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은 매년 신청서 접수 1주일 안에 신청자가 초과되어 접수를 마감할 정도로 전국의 교사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 국립국어원의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은 교사들에게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국어 관련 교양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기간에 국립국어원에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이다.

□ 이 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직무 연수 과정으로 지정(1999년)된 후 현재까지 11년간 총 43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을 수료한 교사는 모두 1619명(연평균 약 150명)에 이른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의 국어 전문성 향상 과정에 대한 뜨거운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0학년도 하계 교사 직무 연수(2010년 7월과 8월)부터는 1기에 40명에서 80명으로 정원을 늘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사 대상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의 핵심 과목은 어문 규정과 관련된 과목들이다. 교사들도 자주 막히는 어문 규정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글 맞춤법의 이론과 실제’,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익히게 된다. 또한 ‘우리말 다듬기’, ‘문장 바르게 쓰기’ 등의 과목을 통해서도 이해하기 쉽고 문법에 맞게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 1.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제92차, 제93차, 제94차)

#### 제92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권재일)가 2010년 9월 13일(수)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2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92차 회의에서는 G20에 참석하는 각국의 세계은행 부총재와 K-1 선수 일부 등을 포함한 외국 인명 52건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하였다. 이 날 심의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2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인명 52건, 일반 용어 1건-제심의 2건)

(2010. 9. 15.)

#### [인명]

- 아베라, 암살라 Amsale Abera 1954(?1953)~ 에티오피아 여성 기업가 디자이너. 암살라(Amsale) 그룹 대표 겸 디자인 총책임자. 유행을 좇지 않으면서 세련된 클래식 모던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유명함.
- 아벨란제, 주앙 João Havelange 1916~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1974~1998), 브라질 인.
- 그루벨, 루스 Ruth M. Grubel 1950~ 미국 교육가·선교사, 일본 간사이

(關西)학원 원장(2007. 4~).

- 매닝엄블러, 일라이자 Eliza Manningham-Buller 본명 엘리자베스 리디아 매닝엄블러 Elizabeth Lydia Manningham-Buller 1948~ 영국 공안국 전 여 수장, MI5(영국 비밀정보기관) 국장(2002~2006).
- 실드레이어스, 로돌프 (윌리엄) Rodolphe (William) Seeldrayers 1876~1955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1954~1955), 벨기에 인.
- 우스트히즌, 루이 Louis Oosthuizen 1982~ 남아프리카 공화국 골프 선수.
- 워런, 데이비드 (로널드 드 메이) David (Ronald de Mey) Warren 1925~2010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발명가. 항공기의 비행 기록 등을 보존하는 블랙박스(black box)를 발명한 항공학 연구자. 콰타스(Qantas) 항공은 2008년 그의 공적을 기려, 초대형 에어버스 A380을 '워런 박사'로 명명.
- 바라티에, 자크 Jacques Baratier 1918~2009 프랑스 영화감독·각본가.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1958), '신·개인 교수'(1973) 등.
- 롱, 러티샤 Letitia A. Long 1959~ 미국 여성 공학 전문가. 국립 지리 정보국(NGA) 국장(2010. 8~), 해군 정보국 부국장(2000~2003), 국방부 정보 담당 부차관(2003~2006), 국방정보국(DIA) 부국장(2006~2010).
- 바르달, 아네르스 Anders Bardal 1982~ 노르웨이 스키점프 선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단체 동메달 수상.

- 스비날, 악셀 룬 Aksel Lund Svindal 1962~ 노르웨이 알파인스키 선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남자 활강 은메달, 남자 슈퍼 대회전 금메달, 남자 대회전 동메달 수상.
- 야콥센, 아네르스 Anders Jacobsen 1985~ 노르웨이 스키점프 선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단체 동메달 수상.
- 쥬트, 토니 (로버트) Tony (Robert) Judt 1948~2010 영국 역사가·저술가. 미국 뉴욕대 역사학 교수(1987~2010). 대표 저서 ‘유럽 전후사(戰後史)’(2005).
- 프레슬, 모건 Morgan Pressel 1968~ 미국 여성 골프 선수.
- 고단, 프라빈 Pravin Gordhan 1949~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가. 재무장관(2009~).
- 무케르지, 프라나브 Pranab Mukherjee 1935~ 인도 재무장관(2009~).
- 미란다, 린마누엘 Lin-Manuel Miranda 1980~ 미국 작사가·작곡가. 뉴욕 출생의 푸에르토리코 계. 2008년 토니(Tony)상 작품상을 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인 더 하이츠(In the Heights)’에 주연으로 출연.
- 오즈번, 조지 (기디언 올리버) George (Gideon Oliver) Osborne 1971~ 영국 정치가. 재무장관(2010. 5.~ ). 예비 내각 재무장관(2005. 5.~2010. 5.). 전 보수당 당수 연설문 작성 담당자.
- 윌슨, 에드워드 (오즈번) Edward O(sborne) Wilson 1929~ 미국 사회



- 생물학자· 박물학자· 저술가. 개미(蟻)학의 세계적 권위로, 전설적 생물학자. 개미 등의 저서로 두 번(1979, 1991) 풀리처상 수상.
- 리펀, 애덤 Adam Rippon 1989~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 맬러리, 케이틀린 Caitlin Mallory 1987~ 미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선수.
- 무니스, 빅토리아 Victoria Muniz 1989~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
- 보멘트리, 브렌트 Brent Bonmentre 1984~ 미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선수.
- 칫우드, 크리스티나 Christina Chitwood 1990~ 미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선수.
- 커, 시네이드 Sinead Kerr 1989~ 스코틀랜드 피겨스케이팅 선수. 영국 국가대표.
- 랑도, 장피에르 Jean-Pierre Landau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2006~).
- 와이스, 조지 데이비드 George David Weiss 1921~2010 미국 작사·작곡가.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의 ‘이 멋진 세상(What a Wonderful World)’(1967)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히트곡의 공동 작사·작곡가이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도 제작.

## [인명] - 제심의

- 반롬피이, 헤르만 Herman van Rompuy 1947~ 유럽연합(EU)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벨기에 겐트 출생.

## [인명] - 세로 심의

### ·세계 중앙은행 부총재(10명)

|                    |                             |                                       |
|--------------------|-----------------------------|---------------------------------------|
| 페스세, 미겔 앙헬         | Miguel Ángel Pesce          | (1962~)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부총재.               |
| 다시우바, 루이스 아와주 페레이라 | Luiz Awazu Pereira da Silva | 브라질 중앙은행 부총재.                         |
| 매클렘, 티프            | Tiff Macklem                |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                         |
| 하미드이, 압둘라흐만        | Abdulrahman A. AL-Harnidy   |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부총재.                     |
| 론스탐시우, 비토르         | Vitor Constâncio            | (1943~) 포르투갈 경제학자·정치가. 유럽연합 중앙은행 부총재. |
| 고피나트, 시아말라         | Shyamala Gopinath           | (1949~)인도 중앙은행 부총재(2004~).            |
| 델쿠에토, 로베르토         | Roberto del Cueto           | 멕시코 중앙은행 부총재.                         |
| 룬토프스키, 게오르기        | Georgy I Luntovsky          | (1950~)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2005~).          |
| 바쉬르, 에르데姆          | Erdem Başçı                 | (1966~) 터키 중앙은행 부총재.                  |
| 론, 도널드 (루이스)       | Donald L(ewis) Kohn         | (1942~) 미국 중앙은행 부총재(2006~).           |

### ·이종격투기 선수(14명)

|              |                     |                     |
|--------------|---------------------|---------------------|
| 컬럼, 에이블      | Abel Cullum         | 1967~ 미국 이종격투기 선수.  |
| 카라예프, 알란     | Alan Karaev         | 1977~ 러시아 이종격투기 선수. |
| 피치쿠노프, 알렉산드르 | Aleksandr Pichkunov | 1979~ 러시아 이종격투기 선수. |

|                |                       |                                       |
|----------------|-----------------------|---------------------------------------|
| 오버레임, 알리스타이크   | Alistair Overeem      | 1980~ 네덜란드 이종격투기 선수.                  |
| 리마, 알비아르       | Aalviar Lima          | 1978~ 케이프베르데 이종격투기 선수.                |
| 두셰크, 안토닌       | Antonín Dušek         | 1966~ 체코 이종격투기 선수.                    |
| 아카, 베르나르트      | Bernard Ackah         | 1972~ 독일 태생의 일본 이종격투기 선수.             |
| 브레기, 비외른       | Björn Brey            | 1974~ 스위스 이종격투기 선수.                   |
| 빠라묵,<br>부아까우 폰 | Buakaw Por,<br>Framuk | 1982~ 태국 이종격투기 선수.                    |
| 모로샤누, 커털린      | Cătălin Moroşanu      | 1982~ 루마니아 킥복싱 선수.                    |
| 도슨, 대니얼        | Daniel Dawson         | 1977~ 오스트레일리아 이종격투기 선수.               |
| 알바레스, 에디       | Eddie Alvarez         | 1984~ 미국 이종격투기 선수.<br>푸에르토리코, 스페인 혈통. |
| 샤흐바리, 팔디르      | Faldir Chahbani       | 1979~ 모로코 이종격투기 선수.                   |
| 페 네티안, 예 렐     | Jerrel Venetiaan      | 1971~ 네덜란드 이종격투기 선수.                  |

## [일반 용어]

- 레이더 Radar 전파탐지기
- 정정하지 않고 ‘레이더’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

## □ 제93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인명 52건-제심의 3건)

(2010. 10. 13.)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권재일)는 2010년 10월 13일(수) 낮 12시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제93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와 부산국제영화제 작품 감독 등을 포함한 외국 인명 52건의 우리 말 표기를 심의 결정하였다. 이 날 심의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명] - 실무소위 및 지난 회의 부결

- 사르워노, 하르타디 Hartadi A. Sarwono 195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총재(2003~).
- 손더스, 조지프 Joseph Saunders 1935~ 미국 기업인 비자(VIS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 슈워츠먼, 스티븐 (앨런) Stephen (Allen) Schwarzman 1947~ 미국 기업인·투자가, 블랙스톤(Blackstone) 회장.

#### [인명] - 새로 심의

- 거스트너 (2세), 루이스 Louis V. Gerstner, Jr. 1942~ 미국 기업인 아이비엠(IBM) 전 회장, 최고경영자(CEO, 1993~2002).
- 가임, 안드레 Andre Geim 러시아 어명: 안드레이 (콘스탄티노비치) 게임 Андре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Гейм 1968~ 러시아 출신의 네덜란드 물리학자, 영국 맨체스터 대 교수, 차세대 나노 신소재 그래핀 연구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S. Novoselov)와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
- 괴렌, 세리프 Şerif Gören 1944~ 터키 영화감독, 그리스 출생.

- 귀네이, 이을마즈 Yilmaz Güney 1931~1984 터키 영화감독·배우.
- 네기시 에이이치 根岸英一(ねぎし えいいち) 1935~ 일본 화학자. 팔라듐 촉매교차결합 연구로 리처드 헵(Richard F. Heck), 스즈키 아키라(鈴木章)와 2010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수상.
- 노보셀로프, 콘스탄틴 (세르게예비치) Konstantin (Sergeevich) Novoselov 러시아 어명: КОНСТАНТИН СЕРГЕЕВИЧ НОВОСЕЛОВ 1974~ 러시아 출신의 영국 물리학자. 차세대 나노 신소재 그래핀 연구로 안드레 가임(Andre Geim)과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
- 데밍, (윌리엄) 에드워즈 W(illiam) Edwards Deming 1900~1993 미국 통계학자·컨설턴트·작가·교수.
- 델, 마이클 (솔) Michael (Saul) Dell 1965~ 미국 기업인 컴퓨터 회사인 델(Dell)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 라인하트, 빈센트 (레이먼드) Vincent (Raymond) Reinhart 1957~ 미국 금융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금융정책국장(2001~2007),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연구원(2010. 10. 현재).
- 마타니치, 달리보르 Dalibor Matanić 1975~ 크로아티아 영화감독.
- 멘델슨, 에릭 Eric Mendelsohn 1964~ 미국 영화감독.
- 모트와네, 비크라마디티아 Vikramaditya Motwane 1976~ 인도 영화감독.

- 비수, 아누라그 Anurag Basu 인도 영화감독.
- 베이로, 페데리코 Federico Veiroj 1976~ 우루과이 영화감독.
- 베저스, 제프 Jeff Bezos 본명 제프리 프레스턴 베저스 Jeffrey Preston Bezos 1964~ 미국 기업인, 아마존닷컴(Amazon.com)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 부샤렙, 라시드 Rachid Bouchareb 아랍 어명: رشيد بوشارب 1959~ 프랑스 영화감독, 알제리계.
- 부뉴엘 (포르톨레스), 루이스 Luis Buñuel (Portolés) 1900~1963 스페인 영화감독, 멕시코 시민권자.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미국 등에서 활동함.
- 브루파우 (니우보), 안토니오 Antonio Brufau (Niubó) 1948~ 스페인 기업인, 레솔(Repsol)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 샬레크, 앙젤라 Angela Schanelec 1962~ 독일 영화감독·배우.
- 샤우카트 아민 코르키 Shawkat Amin Korki 1973~ 이라크 출생의 이란 영화감독.
- 셀베리아우구스텐, 요나스 Jonas Selberg-Augustén 스웨덴 영화감독.
- 세르반, 플로린 Florin Șerban 1975~ 루마니아 영화감독.

- 슈파체크 라딤 Radim Špaček 1973~ 체코 영화감독.
- 스즈키 아키라 鈴木章(すずき あきら) 1930~ 일본 화학자. 팔라듐 촉매교차결합 연구로 리처드 헵(Richard F. Heck), 네기시 에이이치(根岸英一)와 2010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수상.
- 실레시츠키, 마치에이 Maciej Ślesicki 1966~ 폴란드 영화감독.
- 아딧야 아사랏 Aditya Assarat 타이 어명: อาดิยา อัสสะรัต 1972~ 타이 영화감독.
- 아이스너, 마이클 Michael Eisner 1942~ 미국 기업인 월트디즈니 사(The Walt Disney Company) 최고경영자(CEO, 1984~2005).
- 아이컨, 칼 Carl Icahn 1936~ 미국 자본가·기업 매수자·투자자.
- 에드워즈, 로버트 (제프리) Robert G(eoffrey) Edwards 1925~ 영국 생리학자. 케임브리지 대 명예 교수. 체외 수정(IVF) 기술을 개발해 시험관 아기 탄생을 가능케 한 공로로 2010년 노벨의학생리학상을 수상.
- 에스피노사, (요르예) 다니엘 (Jorge) Daniel Espinosa 1977~ 스웨덴 영화감독.
- 위싯 사사나띠엥 Wisit Sasanatieng 타이 어명: วิสิท สารานัติเณ 1963~ 타이 영화감독. 중국계.
- 이브기, 모세 Moshe Ivgy 1953~ 이스라엘 영화감독·배우. 모로코

태생.

- 잉거솔, 로버트 (스티븐) Robert S(tephen) Ingersoll 1914~2010 미국  
실업가·외교관, 주일 미국 대사(1972~1973), 국무부 부장관  
(1974~1976).
- 주바니치, 야스밀라 Jasmila Žbanić 197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  
화감독.
- 카플라노을루, 세미흐 Semih Kaplanoğlu 1963~ 터키 극작가·영화  
감독.
- 켈러허, 허브 Herb Kelleher 1931~ 미국 기업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Southwest Airlines) 공동창업자, 회장.
- 케지에자프스카, 도로타 Dorota Kędzierzawska 1957~ 폴란드 영화감독.
- 콜라그란테, 자다 Giada Colagrande 1975~ 이탈리아 영화감독·배우.
- 키다바브원스키, 얀 Jan Kidawa-Błoński 1953~ 폴란드 영화감독.
- 트르제슈티코바, 헬레나 Helena Třeštíková 1949~ 체코 영화감독.
- 판덴베르허, 휘스트 Gust Van den Berghe 1985~ 벨기에 영화감독.
- 페닝, 숀 Shawn Fanning 1980~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파일 공유  
프로그램 냅스터(Napster) 개발자.



- 피네이로, 마르셀로 Marcelo Piñeyro 1953~ 아르헨티나 영화감독.
- 헤이두, 서볼치 Szabolcs Hajdu 1972~ 헝가리 영화감독.
- 헤이싱크, 안톤 Anton Geesink 본명 안토니위스 요하너스 헤이싱크 Antonius Johannes Geesink 1934~2010 네덜란드 유도 선수. 세계 유도 챔피언(1961, 1964, 1965), 유도 무차별급 금메달리스트(196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역임.
- 헤, 리처드 (프레드) Richard (Fred) Heck 1931~ 미국 화학자. 팔라듐 촉매교차결합 연구로 네기시 에이이치(根岸英一), 스즈키 아키라(鈴木章)와 2010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수상.
- 호킨스, 월터 Walter Hawkins 1949~2010 미국 가스펠 가수·목사. 작곡가·프로듀서. 그래미상 수상(1980), 캘리포니아 주 오كل랜드에 러브 센터 교회를 설립(1973).
- (홀란드)와자르키에비치, 마그달레나 Magdalena (Holland-) Łazarkiewicz 1954~ 폴란드 영화감독.
- 흐르제베이크, 얀 Jan Hřebejk 1967~ 체코 영화감독.

**□ 제94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인명 40건-제심의 40건)**

(2010. 11. 24)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언론외

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권재일)는 2010년 11월 24일(수)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4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새 코치인 피터 오퍼가드를 비롯해 이중격투기 선수 등을 포함한 외국 인명 40건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하였다. 이 날 심의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명] - 실무소위 및 지난 회의 부결

- 오퍼가드, 피터 Peter Oppgard 1959~ 미국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 코치,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의 코치(2010. 10.~ ), 캘거리 (Calgary) 동계 올림픽 페어 동메달리스트(1988), 미셸 관의 형부.
- 다이아몬드, 피터 (아서) Peter A(rthur) Diamond 1940~ 미국 경제학자,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정부의 규제와 경제 정책이 실업과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지명자.
- 샤 메흐무드 쿠레시 Shah Mahmood Qureshi 1956~ 파키스탄 정치가, 외무부 장관(2008~ ),
- 피사리데스, 크리스토퍼 (안토니우) 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s 1948~ 영국 경제학자, 런던 정경대 교수, 키프로스 태생. 노동 시장의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만든 공로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함.
- 레가리, 사르다르 파루크 Sardar Farooq Leghari 1929~2010 파키스탄 정치가, 대통령(1993~1997).

- 세포, 레이 Ray Sefo 1971~ 뉴질랜드 킥복싱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 기처, 다니엘 Daniel Ghiță 1981~ 루마니아 킥복싱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 스폰, 티로너 Tyrone Spong 1985~ 수리남 출신의 네덜란드 킥복싱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별칭 반지의 제왕(King of the ring).
- 실리가, 시알라모 Siala-Mou Siliga 통칭 마이티 모(Mighty Mo) 1970~ 미국 킥복싱 선수·권투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 아츠, 피터 Peter Aerts 1970~ 네덜란드 킥복싱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 지메르만, 에롤 Errol Zimmerman 1966~ 네덜란드 킥복싱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 테이세이라, 이베르통 Ewerton Teixeira 1982~ 브라질 킥복싱 선수·이종격투기 선수.
- 제러비치, 샘 로버트 Sam Robert Gerovich 1948~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 주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2009~), 대만 주재 통상 산업 대표부 대표(1997~2001), 상하이(上海)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2002~2006).
- 보겔, 에즈라 Ezra Vogel 1930~ 미국 사회학자·저술가. 하버드대 명예 교수.

- 소린슨, 시어도어 (체이킨) Theodore (Chaikin) Sorensen 1928~2010  
미국 변호사·작가, 고 케네디 전 대통령 보좌관, 유명 연설 기초가(起草家).
- 시멘스키, 스테판 Stefan Szymanski 1960~ 영국 스포츠 경제학자, 나  
이지리아 태생, 런던 대학 캐스(Cass)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 교수  
(2007~).
- 가오즈강 高志綱 로마자 표기 Kao Chihkang 1981~ 대만 야구 선수.
- 귀옌원 郭嚴文 로마자 표기 Kuo Yenwen 1988~ 대만 야구 선수.
- 뤼궈후이 羅國輝 로마자 표기 Luo Kuohui 1985~ 대만 야구 선수.
- 리빙옌 李秉諤 로마자 표기 Lee Bingyen 1988~ 대만 야구 선수.
- 린이취안 林益全 로마자 표기 Lin Yich'üan 1985~ 대만 야구 선수.
- 린이하오 林羿豪 로마자 표기 Lin Yihao 1991~ 대만 야구 선수.
- 린잉제 林英杰 로마자 표기 Lin Yingchieh 1981~ 대만 야구 선수.
- 린저쉬안 林哲瑄 로마자 표기 Lin Chehsüan 1988~ 대만 야구 선수.
- 린즈성 林智勝 로마자 표기 Lin Chihshêng 1982~ 대만 야구 선수.
- 린쿤성 林琨瑯 로마자 표기 Lin K'unshêng 1987~ 대만 야구 선수.

- 샤오이제 蕭一杰 로마자 표기 Hsiao Ichieh 1966~ 대만 야구 선수.
- 쉬밍제 許銘杰 로마자 표기 Hsü Mingchieh 1976~ 대만 야구 선수.
- 양야오쑤 陽耀勳 로마자 표기 Yang Yaohsün 1983~ 대만 야구 선수.
- 양젠푸 陽建福 로마자 표기 Yang Chienfu 1979~ 대만 야구 선수.
- 양중서우 陽仲壽 로마자 표기 Yang Chungshou 1987~ 대만 야구 선수.
- 장첸밍 張建銘 로마자 표기 Chang Chienming 1990~ 대만 야구 선수.
- 장타이산 張泰山 로마자 표기 Chang T'aishan 1976~ 대만 야구 선수.
- 천관위 陳冠宇 로마자 표기 Ch'ên Kuanyü 1990~ 대만 야구 선수.
- 천융지 陳鎰基 로마자 표기 Ch'ên Yungchi 1983~ 대만 야구 선수.
- 천권슈 陳俊秀 로마자 표기 Ch'ên Chünhsiu 1988~ 대만 야구 선수.
- 천홍원 陳鴻文 로마자 표기 Ch'ên Hungwên 1986~ 대만 야구 선수.
- 판웨이룬 潘威倫 로마자 표기 P'an Weilun 1982~ 대만 야구 선수.
- 펑정민 彭政閔 로마자 표기 P'êng Chêngmin 1978~ 대만 야구 선수.
- 황즈룽 黃志龍 로마자 표기 Huang Chihlung 1989~ 대만 야구 선수.

## 2.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우리말 실력을 키우자: 디지털 한글 박물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말 학습용 게임 시범 운영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6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 학습용 게임인 ‘도깨비 대왕과 한글 수비대’의 시범 운영을 10월 9일부터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개발한 게임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휘력과 맞춤법 능력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작한 학습용 게임이다. 이 게임은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래시 형태이지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이야기 요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 게임은 총 5개의 단위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것은 띄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위 게임이다.

이 게임은 도깨비 대왕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한글을 훔쳐가자 한글 수비대가 이를 되찾기 위하여 도깨비 대왕이 부여한 임무를 게임을 통하여 해결하면서 한글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깨비 대왕이 부여하는 임무는 ‘띄어쓰기’, ‘문장 완성’, ‘맞춤법’, ‘단어 선택’ 등 우리말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게임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목표 대상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 구성을 위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자문을 받는 등 오락성보다는 기능성에 주안점을 두어 게임을 개발하였다.

## 3. 가을의 정취와 함께 옛 사전의 모습을 되짚어 본다: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옛 사전 특별 기획전” 개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제564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한글 박물관([www.hangeulmuseum.org](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국어사전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옛 사전 특별 기

획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이번에 개최하는 디지털 한글박물관 <옛 사전 특별전 - 사전의 탄생과 변천>에서는 국어사전의 옛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전 탄생 이전의 옛 사전의 모습과 국어사전 탄생 이후 특수사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국어사전을 비롯하여 총 30여 종의 사전류를 국어사전 이전관, 국어사전관, 특수사전관의 3관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별도로 마련한 기획관에서는 옛 사전의 편찬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하여 방문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초기 화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기도 한다.'



<국어사전관>

이처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전이란 기존의 종이 사전의 개념을 넘어 전자사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종이 사전이 사전으로서의 매력을 점차 잃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최근의 전자사전, 인터넷 사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사전의 모습이 더 달라진다 하더라도 종이 사전이 담고 있었던 내용과 방법론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면면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옛 사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어떤 용도로 사전을 사용하고 어떤 단어들이 사전에 실려 있었을까? 우리의 사전은 어떤 여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을까? 디지털 한글박물관의 <옛 사전 특별전 - 사전의 탄생과 변천>에서 이런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 4. 제5회 국립국어원·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개최

주제: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

일시: 2010년 10월 12일(화요일) 오후 4시

장소: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SBS(대표이사 사장: 우원길)는 올해



에는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을 주제로 하여 다섯 번째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체 언어의 성격,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매체 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국어 교육에서의 방송 언어 활용, 방송 언어의 저격력 언어 사용 실태 연구, 방송 프로그램 종류별 자막 언어의 특징, TV 뉴스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분석 등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5. 언어 정책 토론회(제7회, 제8회)

### □ 제7회 언어 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제7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한국 근대 신어 사전 편찬과 연구의 활용

발표자: 김윤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 시: 2010년 10월 19일(화요일) 15:00~17:00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김윤희 연구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 근대 신어 사전 편찬과 연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였다.



〈제7회 언어 정책 토론회〉

1930년 이후부터는 대중 종합 잡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대중 잡지에는 대부분 ‘新造語’, ‘모던어’, ‘유행어’, ‘사회 과학 용어’, ‘외래어’ 등의 이름으로 당시 대중들에게 낯선 새 어휘들을 소개하는 난이 따로 마련된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이들 어휘를 묶어서 어휘 사전의 형태로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어휘 사전에는 지식인의 계몽 수사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전과 달리 당시 조선 사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소비 문화의 확대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거나, 유행하고 있었던 어휘도 함께 수록되었다. 잡지에 수록된 어휘의 변화는 이시기 대중문화의 발달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총독부의 전시 동원 체제가 발동되면서 급변했다. 1937년에서 1941년 총독부의 동원 체제를 선전하는 총독부 외과 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의 기관지가 쏟아져 나오는 한편에서는 종래 발행되던 잡지 대부분이 폐간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잡지가 선정한 어휘 147개는 대부분 전쟁과 총독부의 전시 동원과 관련된 어휘들로 총독부와 외과 단체들이 발행하는 선전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어휘들이었다. 잡지에서 선정된 어휘의 시기적 변화는 잡지 발간 환경과 식민지 사회의 변동을 대체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강연이 끝나고 현재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당시 사용 어휘의 본래 의

미에 관한 질문과 신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충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점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 제8회 언어 정책 토론회

국립국어원에서는 제8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헝가리 언어연구소 소개

발표자: 전영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요일) 15:00-17:00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영철 교수를 초청하여 ‘헝가리 언어연구소 소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였다. 전영철 교수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헝가리 언어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제8회 언어 정책 토론회>

헝가리어는 계통적으로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해, 우리말과는 어순이 같고 교착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1526년에 라틴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헝가리어는 구어로만 사용하였으나, 1784년부터

시작된 언어 개혁 운동을 통해서 많은 헝가리어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작가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신조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헝가리 고유의 어휘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발전한다. 작가들이 작품을 쓴 뒤에는 작품에 들어 있는 신조어가 너무 많아서 작품 뒤에 신조어 목록표를 붙일 정도였다. 100년간 지속된 언어 개혁 운동 기간 동안 40,000여 개의 신조어가 생산되었고 그 중 10,000여 개의 말들이 남아서 사용되고 있다. 1847년에는 규범 문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언어 개혁 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949년 학술원 산하에 언어연구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헝가리의 언어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모두 100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학과, 동양 언어 연구학과, 다중언어학과 등 10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어 사용과 관계되는 규범 연구,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 서비스, 언어 사용과 관련되는 대민 상담 창구 운영, 사전 편찬 등 대규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LET 언어학과와 공동으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연이 끝나고 헝가리어와 한국어, 헝가리의 언어연구소와 한국의 국립국어원을 대비한 질문들, 대학과 언어연구소의 연결 문제, 헝가리어에 대한 헝가리인들의 자부심과 언어 순화 사업에 관한 질문과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6. 체험 예능 프로그램 언어, 개선되었다: 국립국어원, 체험 예능 프로그램 언어 2차 분석 결과 및 대안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지상파 텔레비전의 체험 예능 프로그램에서 쓰인 국어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6월 1차 분석에 이어 실시한 이번 조사의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2010년 10월 한 달간 방송된 1박

2일(KBS), 무한도전(MBC), 런닝맨(SBS) 등 방송 3사의 체험 예능 프로그램 총 14회분이다. 조사 결과, 비속어와 인격 모독 표현 등이 많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저속한 표현의 양이 6월의 1차 분석 결과 대비 94%로 방송 언어가 다소 개선되었다.

○ 이번 조사에서 국립국어원은 차별적 표현, 인격 모독 표현, 폭력적 표현, 비속어, 욕설 등을 대분류로 삼아 총 1,006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을 골라내었다. 대사 525건, 자막 481건을 합한 수치이다. 비속어가 40%로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 표현이 18%로 뒤를 이었는데, 인격 모독 표현의 55%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었다. 지적된 표현은 '무한도전(MBC)'이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박 2일(KBS)' 247건, '런닝맨(SBS)' 236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비속어

- 우령 된장국이 이거 조금 흥내 널라다가 귀싸대기 한 대 맞겠는데……(1박 2일)  
→ 우령 된장국이 이거 조금 흥내 널라다가 뺨 한 대 맞겠는데……,
- (여기 고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강호동 전화 통화) 땡치지 말고(1박 2일)  
→ (여기 고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강호동 전화 통화) 거짓말 하지 말고,
- 내가 이런 낯작을 좋아하겠어요?(무한도전)  
→ 내가 이런 얼굴을 좋아하겠어요?
- (몇 위까지는 모르겠구요) 일단 뭐 준하 형은 잔 것 같습니다.(무한도전)  
→ (몇 위까지는 모르겠구요) 일단 뭐 준하 형은 이긴 것 같습니다.
- 닥쳐.(런닝맨)  
→ 조용히 해.
- 일루 튀어. 일루 튀어.(런닝맨)  
→ 일루 도망가. 일루 도망가.

## ㉡ 인격 모독 표현

- 외모: (매니저에 비해 손가락이 짧은 이수근을 가리키며 하는 말) 손가락도 얼마나 짧아. 짜리몽땅해 가지고(1박 2일)
- 외모: (담당 PD가 가진 게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그런 차 있게 생겼나?(1박 2일)

- 외모: (동물과 사진 찍는 길에게 하는 말) 동물로 나오는 거 아니?(무한도전)
- 외모: 형 멧돼지인 줄 안다 멧돼지.(무한도전)
- 외모: (나이 들어 보이는 김광규를 보고)토니 아버님 오셨어요?(런닝맨)

## ㉠ 폭력적 표현

- 얘기하면 죽는다(1박 2일)
  - 얘기하면 혼난다
- 나 혼자 허미아를 찾겠어. 쫓아 오면 죽여 버릴 태다.(무한도전)
  - 나 혼자 허미아를 찾겠어. 쫓아 오면 혼내줄 태다.

□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구체적인 표현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정리하여 조사 결과를 제작진에 전달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결과, 프로그램에서 국립국어원의 분석 결과를 편집에 반영하기로 하고 방송사에서 제작 지침을 발표하는 등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방송언어의 품격에 대해 방송 제작진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 공공성과 오락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 III.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 1. 제3기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국립국어원에서는 제3기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을 다 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 가. 교육 목적

- 국어책임관 및 국어책임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올바른 공공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공 언어 개선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

나. 교육 개요

- 과정명: 제3기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 교육 기간: 12. 1(수)~12. 3(금) \*비합숙 3일 19시간
-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 중1층 강의실
- 수강 인원: 40명
- 교육 대상: 국어책임관 및 국어책임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교육 과정 내용: 국어기본법과 국어책임관, 정책 용어 쉽고 바르게 쓰기, 공공 언어의 중요성 및 올바른 사용, 국어원의 공공 언어 지원 정책 소개, 공문서 바로 쓰기 등.

2. 2010년 11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0년 11월(제235기, 제236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35기, 제236기

나. 교육 기간

제235기: 2010년 11월 8일(월)~11월 12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제236기: 2010년 11월 15일(월)~11월 19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 3. 제3기 언론·출판인 특별과정 개설

2010년 제3기 언론·출판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교육 기간: 2010년 11월 1일(월)~11월 3일(수)

나.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 3층 강의실

다. 과정명: 교정·교열의 원칙과 실제

라. 내용: 교열의 기초가 되는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어휘 교열, 문장 교열의 원칙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교육 과정